

삼국연의

三國演義 · 모종강본

제9권 (제97회 ~ 제108회)

나관중 (羅貫中, 약 1330-1400)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5-22

책 정보

원전

나관중 『삼국연의(三國演義)』 모종강본(毛宗崗本, 1660년대 청대), 12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三國演義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2

번역 정책

- 인명·지명·관직은 한국 한자음(劉備 → 유비, 涿郡 → 탁군)

- 자·호·별명은 본명으로 통일(玄德 → 유비, 翼德 → 장비, 雲長 → 관우)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 "且說" → "한편"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97회 — 위나라를 토벌하려 무후가 다시 상표를 올리고, 조조의 군사를 격파하려 강유가 거짓으로 서신을 바치다.....	6
제98회 — 한군을 쫓던 왕쌍이 처형당하고, 진창을 습격하여 무후가 승리를 거두다	24
제99회 — 제갈량이 위나라 군사를 크게 격파하고, 사마의가 서촉으로 침입하다	42
제100회 — 한나라 군사가 진영을 습격하여 조진을 격파하고, 무후가 진법으로 싸워 중달을 육보이다.....	63
제101회 — 룡상에서 출병하여 제갈량이 신묘한 계책을 꾸미고, 검각으로 달려가 장합이 계책에 빠지다.....	85
제102회 — 사마의가 북원의 위교를 점령하고, 제갈량이 목우유마를 만들다	108
제103회 — 상방곡에서 사마의가 곤경에 처하고, 오장원에서 제갈량이 별을 달래다	132
제104회 — 한나라 승상이 하늘로 돌아가고, 목상을 보고 위 도독이 간담이 서늘해지다	153
제105회 — 무후가 금강계로 미리 매복을 준비하고, 위나라 주군이 승로반을 뜯어내다	169
제106회 — 공손연이 병패하여 양평에서 죽고, 사마의가 병을 핑계로 조상을 속이다	188

제107회 — 위왕이 정권을 사마씨에게 돌려주고, 강유는 우두산에서 군사를 잃다	206
제108회 — 정봉이 눈 속에서 짧은 병기를 휘두르고, 손준이 자리에서 비밀스러운 계책을 펼치다	227

제97회 — 위나라를 토벌하려 무후가 다시 상표를 올리고, 조조의 군사를 격파하려 강유가 거짓으로 서신을 바치다

討魏國武侯再上表 破曹兵姜維詐獻書

한편, 촉한 건흥 6년 가을 9월의 이야기이다. 위나라 도독 조휴가 석정에서 동오의 육손에게 대패하면서, 군사들의 수레와 말은 물론이고 군수 물자와 무기까지 모두 바닥나고 말았다. 조휴는 크게 놀라고 두려워한 나머지 근심이 병이 되었고, 낙양에 도착하자마자 등에 종기가 도져 결국 세상을 떠났다. 위나라 황제 조예는 조휴를 위해 성대한 장례를 치르도록 명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마의는 군사를 이끌고 급히 회군했다. 장수들이 마중 나와 물었다. "조 도독께서 패하셨으니 이는 원수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인데, 어찌 이리 급히 돌아오십니까?" 사마의가 대답했다. "제갈량이 우리의 패전 소식을 듣고 반드시 빈틈을 노려 장안을 치러 올 것이다. 만약 룡서 지역이 위급해지면 누가 그곳을 구하겠는가?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다." 장수들은 모두 사마의가 겁을 먹은 것이라 생각하며 비웃으며 물러났다.

한편, 동오가 촉한에 사신을 보내 위나라를 공격하자고 제안하며, 조휴가 대패했다는 소식을 함께 전해왔다. 이는 자신들의 위세를 떨치는 동시에 촉한과 화친을 맺기 위함이었다. 후주 유선은 크게 기뻐하며 사신에게 서신을 들려 한중으로 보내 제갈량에게 알리게 했다. 당시 제갈량은 군사와 말이 강성하고 군량과 마초가 풍족하며 모든 물자가 완비되어 막 출정하려던 참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제갈량은 즉시 연회를 베풀어 여러 장수를 모으고 출정 계획을 논의했다.

그런데 갑자기 북동쪽에서 거센 바람이 몰아치더니 마당의 소나무를 꺾어버렸다. 모든 이가 크게 놀라자 제갈량이 점을 쳐보고는 말했다. "이 바람은 큰 장수 한 명을 잃게 될 징조다!" 장수들은 믿지 않았다. 한창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진남장군의 장남 조통과 차남 조광이 승상을 뵈러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제갈량은 깜짝 놀라 술잔을 땅에 내던지며 외쳤다. "조운이 죽었구나!"

두 아들이 들어와 절하며 울면서 말했다. "저희 아버님께서 어젯밤 삼경에 병이 깊어져 돌아가셨습니다." 제갈량은 발을 구르며 통곡했다. "조운이 죽었으니, 나라는 기둥 하나를 잃은 것이요 나는 팔 하나를 잃은 것과 같다!" 모든 장수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제갈량은 두 아들에게 성도로 들어가 황제께 부친의 부고를 전하라고 명했다.

후주 유선은 조운의 사망 소식을 듣고 목놓아 울며 말했다. "내가 어릴 적 난리 중에 조운이 없었더라면 이미 죽었을 것이다!" 유선은 즉시 조칙을 내려 그를 대장군으로 추증하고 순평후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성도 금병산 동쪽에 장사 지내게 하고 사계절 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 후세에 시로 이르기를,

"상산에 호랑이 같은 장수가 있었으니, 지혜와 용맹은 관우와 장비에 필적했네. 한수에서 세운 공훈은 높고, 당양에서 떨친 이름은 자자하도다. 두 번이나 어린 주군을 보필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선황의 뜻을 닮았으니, 역사는 그 충절을 기록하여, 백 세토록 향기가 흐르리라."

한편, 후주는 조운이 과거에 세운 공을 생각하며 장례를 매우 정중하게 치러주었다. 그리고 조통을 호분중랑장으로, 조광을 아문장으로 봉하여 그들에게 무덤을 지키게 하였으나, 두 사람은 사양하며 물러갔다. 그때 측근 신하가 급히 보고했다.

"제갈 승상께서 군마 배치를 모두 마쳤으며, 바로 오늘 위나라를 치기 위해 출정할 예정입니다."

후주가 조정의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으나, 신하들은 대부분 아직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뿐이었다. 후주는 의구심과 걱정이 생겨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승상이 양의를 보내 출사표를 전해오라는 전갈이 왔다. 후주가 양의를 불러들이자, 양의는 출사표를 올렸다. 후주가 어안 위에 놓인 표문을 펼쳐 읽으니, 그 내용은 이러했다.

"선대께서 한나라와 역적은 양립할 수 없으며, 왕업 또한 한곳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기에 저에게 역적을 토벌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선대께서 명철하시어 저의 재능을 헤아려 주셨기에, 제가 적을 치려 해도 재능은 부족하고 적은 강할 것임을 알고 계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적을 치지 않는다면 왕업 또한 망할 것이니, 가만히 앉아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찌 적을 치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그렇기에 저를 믿고 의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날부터 저는 잠자리가 편치 않고 음식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다. 북벌을 생각하니 마땅히 먼저 남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 여겨, 5월에 노강을 건너 불모의 땅까지 깊숙이 들어갔습다. 며칠 치 식량을 아껴가며 먹었으니, 이는 제가 제 몸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왕업이 촉나라 도성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위험과 난관을 무릅쓰고 선대께서 남기신 뜻을 받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옳지 못한 계책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적들은 서쪽에서는 지쳐 있고 동쪽에서는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니, 병법에 따라 적의 피로를 틈타 진격할 좋은 기회입니다. 이에 삼가 그 일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고조께서는 해와 달처럼 밝은 지혜를 지녔고, 그를 보좌한 신하들은 깊은 지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조께서는 위험한 일을 겪으며 상처를 입기도 하셨으나, 위기를 넘긴 뒤에야 비로소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고조의 반열에 미치지 못하시고, 보좌하는 신하들 또한 장량이나 진평 같은 인물들에 비하면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하께서는 장기적인 계책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

고, 앉은 자리에서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 이것이 바로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유요와 왕랑이 각각 주와 군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신이 평안을 도모할 방책을 논하자, 성현의 말씀을 인용하긴 했으나 의구심은 가득하고 난관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싸우지 않고 내년에 정벌하지 않는다면, 손권의 세력이 커져 결국 강동을 통째로 삼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우려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조조의 지략은 남달리 뛰어났으며, 병법을 쓰는 모습은 마치 손무·오기와의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양에서 곤경에 처하고, 오소에서 위기에 빠졌으며, 기련에서 위험을 겪고, 여양에서 압박을 받았으며, 북산에서는 패배할 뻔하고, 동관에서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고 나서야 겨우 잠시 평온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하물며 신은 재능이 부족한데, 위태로움을 무릅쓰지도 않고 천하를 안정시키려 하니, 이것이 바로 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세 번째입니다."

"조조는 다섯 번이나 창패를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했고, 네 번이나 초호를 넘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복을 등용했더니 이복이 그를 해치려 했고, 하후연을 믿고 맡겼더니 하후연은 패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선대 황제께서도 조조를 능력이 출중하다고 칭송하셨으나 이와 같은 실수가 있었는데, 하물며 재주가 부족한 제가 어찌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네 번째입니다."

"제가 한중에 온 지도 벌써 일 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조운을 비롯해 양군, 마옥, 염지, 정립, 백수, 유합, 등등 등 여러 장수와 곡장, 둔장 70여 명을 잃었습니다. 또한 돌장, 무전, 종수, 청강 같은 정예 부대와 산기, 무기병 1,000여 명도 잃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방에서 모은 정예병들로, 결코 한 주에서만 나온 인원이 아닙니다. 만약 몇 년이 더 흐른다면 병력의 3분의 2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적을 상대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궁핍하고 군사들은 지쳐 있으나, 전쟁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멈추지 않으면 머물러 있든 움직이든 들어가는 노동과 비용은 똑같은 뿐입니다. 그런데도 일찍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고작 한 주의 땅으로 적과 오래 버티려 하니, 이것이 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여섯 번째입니다."

"세상에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예전에 선제께서 초나라 땅에서 패배하셨을 때, 조조는 손뼉을 치며 천하가 이미 안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선제께서 동쪽으로는 오월과 연합하고 서쪽으로는 파촉 땅을 차지하신 뒤, 군사를 일으켜 북벌을 단행하시니 하후연이 목을 베었습니다. 이는 조조의 계산이 틀린 것이었으며, 한나라의 대업이 이루어지려던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오나라가 다시 동맹을 어기고 관우가 패망하였으며, 선제께서 자귀에서 좌절을 겪으시는 사이 조비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이처럼 흘러가니, 어찌 미리 내다보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몸을 굽혀 온 힘을 다해 죽을 때까지 노력하

겠지만, 일이 성사될지 실패할지, 혹은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신의 지혜로도 미리 가늠할 수 없습니다."

후주는 상소를 읽고 매우 기뻐하며 즉시 제갈량에게 군사를 일으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제갈량은 명을 받들어 30만 대군을 일으켰고, 위연을 전군 선봉의 총감독으로 삼아 진창 길목을 향해 곧장 진격했다.

이미 낙양에 첩자의 보고가 들어왔다. 사마의가 이 소식을 위나라 황제에게 보고하자, 문무 백관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대장군 조진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신이 어제 룡서를 지키는 과정에서 공은 적고 죄는 커서 황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대군을 이끌고 가서 제갈량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이 최근에 대장 한 명을 얻었는데, 예순근 무게의 대도를 휘두르고 천 리를 달리는 준마를 타며, 두 섬의 무게가 나가는 철궁을 사용합니다. 또한 세 개의 유성추를 몰래 숨겨 가지고 있어 백 발을 쏘면 백 발 모두 명중시키니, 그 용맹은 만 명의 적도 당해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룡서 적도 출신의 왕쌍이라는 인물로, 자는 자전입니다. 신이 이 사람을 선봉으로 삼겠습니다."

조예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왕쌍을 대전으로 불러들였다. 왕쌍을 살펴보니 키는 아홉 자에 달하고 얼굴은 검고 눈동자는 누렇으며, 곱처럼 굵은 허리와 호랑이 같은 등판을 가진 용맹한 체구였다. 조예가 웃으며 말했다.

"짐이 이런 대장을 얻었으니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조예는 곧바로 왕쌍에게 비단 도포와 황금 갑옷을 하사하고, 호위장군 전부 대선봉으로 봉했다. 조진은 대도독이 되었다. 조진은 은혜에 감사하며 조정을 물러난 뒤, 곧바로 15만 정예병을 이끌고 나가 광회, 장합과 합류하여 길목마다 나누어 배치하며 수비에 나섰다.

한편, 촉한 군대의 전위대가 진창에 이르러 제갈량에게 보고했다. "진창 길목에 성이 하나 쌓여 있는데, 그 안에 학소라는 장수가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깊은 해자와 높은 성벽을 쌓고 곳곳에 가시 돌친 방책까지 배치하여 방비가 매우 삼엄합니다. 차라리 이 성을 포기하고 태백령의 험한 길을 통해 기산으로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할 듯합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진창의 정북쪽에는 가정이 있으니, 반드시 이 성을 얻어야만 군사를 진격시킬 수 있다."

제갈량은 위연에게 군사를 이끌고 성 아래로 내려가 사방에서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며칠을 공격해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위연이 다시 제갈량에게 돌아와 성을 깨뜨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고했다. 제갈량이 크게 노하여 위연을 베려 하는데, 갑자기 막사 아래에 있던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다.

"소인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승상을 여러 해 동안 모시면서 아직 공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원컨대 저를 진창성으로 보내 학소를 설득하게 해주십시오. 화살 한 발 쏘지 않고도 그가 항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사람들이 살펴보니 그는 부곡의 은상이었다. 제갈량이 물었다. "너는 무슨 말로 그를 설득하겠다는 말이나?"

은상이 자세히 설명했다. "학소와 저는 같은 룡서 출신으로 어릴 때 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이해득실을 따져 말한다면 반드시 행복할 것입니다."

제갈량은 즉시 그를 보내기로 했다.

은상이 말을 몰아 성문 아래로 급히 달려가 외쳤다. "학백도의 옛 친구 은상이 뵙기를 청합니다!"

성 위에서 이 소식을 들은 학소가 성문을 열어 은상을 들여보내게 한 뒤, 성루에 올라가 그를 맞이했다. 학소가 물었다. "옛 친구가 어찌 하여 이곳까지 왔는가?"

은상이 대답했다. "저는 서촉의 제갈량 휘하에서 군사 기밀을 돕고 있으며, 귀한 손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학소님을 뵙고 전해드릴 중요한 말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학소의 안색이 돌연 변하며 말했다. "제갈량은 우리 나라의 원수요! 나는 위나라를 섬기고 그대는 촉나라를 섬기니, 각자 주군을 따를 뿐이오! 예전에는 형제처럼 지냈을지 모르나 지금은 원수 사이가 되었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어서 성 밖으로 나가시오!"

은상이 다시 말을 꺼내려 했으나, 학소는 이미 적루 위로 올라가 버렸다. 위나라 병사들이 급히 말을 몰아 은상을 성 밖으로 쫓아냈다. 은상이 뒤를 돌아보니 학소가 성루 난간에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은상이 말의 고삐를 당기며 채찍으로 그를 가리켜 말했다. "백도 아우, 어찌 이리 정이 박한가?"

학소가 말했다. "위나라의 법도를 형님도 잘 아시지 않소? 나는 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니 죽음으로써 그 도리를 다할 뿐이오. 형님은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말고 어서 제갈량에게 돌아가 성을 빨리 공격하라고 전하시오. 나는 전혀 두렵지 않소!"

은상이 돌아와 제갈량에게 보고했다. "학소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막아서며 거절했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네가 다시 가서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그를 설득해 보아라." 은상은 다시 성 아래로 가서 학소에게 뵙기를 청했다. 학소가 적루 위로 올라오자, 은상은 말을 타고 높이 외쳤다. "학백도 동생, 내 충고를 들어보시오! 고립된 성 하나를 지키면서 어찌 수십만 대군을 막아내려 하시오? 지금 일찍 항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오. 대한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간사한 위나라를 섬기려 하다니, 어찌 천명을 모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오? 부디 깊이 생각해보시오!" 학소가 크게 노하여 활을 집어 들고 화살을 매운 채 은상을 가리키며 호통쳤다. "내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더는 말하지 마라! 어서 물러가라. 그러면 화살을 쏘지는 않겠다!" 은상은 제갈량에게 돌아가 학소가 이토록 완강하다는 사실을 상세히 보고했다. 제갈량이 크게 노하며 말했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놈이로구나! 어찌 내가 성을 공격할 병기가 없을 줄로 아느냐?" 제갈량은 즉시 현지인을 불러 진창성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현지인이 대답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대략 삼천 명 정도 됩니다."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이토록 작은 성이 어찌 나를 막겠느냐! 구원병이 도착하기 전에 서둘러 공격하라!"

그러자 군대에서 백 대의 운梯(구름사다리)를 일으켰다. 한 대당 십여 명의 병사가 올라탈 수 있었고, 사방을 나무판자로 둘러싸서 보호하게 했다. 군사들은 저마다 짧은 사다리와 부드러운 밧줄을 들고 군중의 북소리에 맞춰 일제히 성벽으로 올라갔다. 성루에 있던 학소는 촉나라 군사가 운梯를 갖추어 사방에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즉시 삼천 명의 군사에게 화살이 달린 불화살을 들게 하여 사방에 배치하라 명했다. 그리고는 운梯가 성벽에 가까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일제히 쏘게 했다. 제갈량은 성 안에서 아무런 대비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운梯를 크게 만들고 삼군에게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진격하라 명했으나, 뜻밖에 성 위에서 화살이 쏟아지며 운梯가 모두 타버리는 바람에 사다리 위에 있던 병사들이 대거 불에 타 죽고 말았다. 성 위에서 화살과 돌이 비처럼 쏟아지자 촉나라 군사들은 모두 퇴각했다. 제갈량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네놈들이 내 운梯를 태웠으니, 나는 '충차'를 사용하겠다!" 하고는 즉시 밤을 새워 충차를 준비하게 했다.

다음 날, 다시 사방에서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진격했다. 학소는 급히 돌을 깎아 구멍을 내고 칙닝쿨 밧줄을 이용해 날아오는 충차를 끊어버리게 하여, 충차들이 모두 부서지게 했다. 제갈량이 다시 사람을 시켜 흙을 운반해 성 주위의 해자를 메우게 하고, 료화에게 삼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삽과 곡괭이를 들게 하여 밤사이 땅굴을 파서 몰래 성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러나 학소 역시 성 안에 다시 깊은 해자를 파서 가로막았다. 이처럼 밤낮으로 공격을 주고받았으나 이십여 일이 지나도록 성을 함락시킬 방도가 없었다. 제갈량이 마음속으로 근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보고가 올라왔다. "동쪽에서 구원군이 도착했습니다. 깃발에 '위나라 선봉 대장 왕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갈량이 물었

다. "누가 나가서 맞이하겠는가?" 위연이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그대는 선봉 대장이니 함부로 나설 수 없다." 다시 물었다. "누가 감히 맞이하겠는가?" 부장 사옹이 대답하며 나섰다. 제갈량은 그와 함께 삼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갔다. 제갈량이 다시 물었다. "누가 또 가겠는가?" 부장 공기가 대답하며 가겠다고 했다. 제갈량은 그와 함께 또 삼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갔다. 제갈량은 성 안의 학소가 병사를 이끌고 돌격해 나올까 두려워, 사람과 말을 이끌고 이십리 뒤로 물러나 진을 쳤다.

한편, 사옹이 군사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다 왕쌍과 맞닥뜨렸다. 그러나 싸움이 세 합을 채 넘기기도 전에 왕쌍의 칼에 맞아 죽고 말았으며, 촉나라 군사들은 패하여 달아났다. 왕쌍은 그 뒤를 쫓아갔다. 이어 공기가 맞서 싸웠으나, 말 위에서 겨우 세 합을 겨루다 역시 왕쌍에게 베임을 당했다. 패한 병사들이 이 소식을 제갈량에게 보고했다. 제갈량은 크게 놀라 서둘러 료화, 왕평, 장익 세 사람에게 나가 맞서라고 명령했다. 양 진영이 서로 마주 보자 장익이 말을 타고 나갔다. 왕평과 료화는 진영의 양 끝을 지켰다. 왕쌍이 말을 달려 장익과 몇 합을 겨루었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왕쌍은 일부러 패한 척하며 달아났고, 장익이 그 뒤를 쫓아갔다. 왕평은 장익이 계책에 빠진 것을 보고 급히 외쳤다. "쫓아가지 마시오!" 장익이 급히 말을 돌리려 할 때, 왕쌍의 유성추가 먼저 도착하여 장익의 등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장익은 안장에 엮드린 채 겨우 도망쳤고, 왕쌍이 다시 말을 돌려 추격해 왔다. 이때 왕평과 료화가 앞을 가로막아 장익을 구출해 진영으로 돌아오게 했다. 왕쌍이 군사를 몰아 크게 한바탕 쓸어버리니 촉나라 군사의 피해가 매우 컸다. 장익은 피를 몇 입이나 토하며 제갈량에게 돌아가 보고했다. "왕

쌍은 대단한 영웅이라 천하에 적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나라 군사 2만 명이 진창 성 밖에 진을 치고 사방에 울타리를 세우고 견고한 성을 쌓았으며, 깊은 해자를 파서 방비가 매우 엄중합니다." 제갈량은 장수 두 명을 잃고 장억마저 부상을 입은 것을 보고 즉시 강유를 불러 물었다. "진창 길목은 이대로 가기 어려워 보이는데, 다른 방책이 있겠는가?" 강유가 대답했다. "진창의 성벽은 견고하고 학소의 수비도 매우 치밀합니다. 게다가 왕쌍의 도움까지 받고 있으니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말 무리입니다. 차라리 큰 장수를 보내 산과 물을 끼고 진을 치게 하여 굳게 지키게 한다면, 조진을 붙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갈량이 그의 말을 따랐다. 즉시 왕평과 이회를 보내 병사 2천 명으로 계정의 좁은 길을 지키게 하고, 위연에게는 병사들을 이끌고 진창 길목을 지키게 했다. 마대를 선봉으로 삼고 관흥과 장포를 앞뒤 구원병으로 배치했다. 이들은 사곡의 작은 길을 통해 나와 기산을 향해 진군했다.

한편, 조진은 지난번 사마의에게 공을 빼앗겼던 일이 생각나, 낙구로 곽희와 손례를 나누어 보내 동서쪽을 지키게 했다. 그러던 중 진창 입구가 위급하다는 급보를 듣고 이미 왕쌍을 보내 구원하게 했는데, 왕쌍이 적장의 목을 베며 공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중호군 대장 비요에게 전군을 임시로 지휘하게 하고, 다른 장수들에게는 각자 역로를 지키도록 명했다.

이때 갑자기 산골짜기에서 첩자를 잡았다는 보고가 올라와 조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소인은 첩자가 아니라, 도둑님께 드릴 기밀 사항이 있어 찾아오던 중 길목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에

게 잘못 붙잡힌 것입니다. 부디 좌우의 병사들을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조진이 결박을 풀어주자 좌우의 병사들이 잠시 물러났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말했다. "저는 강유의 심복입니다. 도독님께서 보내신 밀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진이 "편지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그 사람은 옷 안쪽에 품고 있던 편지를 꺼내 바쳤다. 조진이 편지를 뜯어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죄를 지은 장수 강유가 대도독 조진 장군님께 머리 숙여 올립니다. 강유는 대대로 위나라의 녹봉을 먹으며 변방의 성을 지켜온 몸으로서, 그 크나큰 은혜를 입었으나 보답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제는 제갈량의 꾀계에 빠져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옛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마침 촉나라 군사가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어 제갈량도 이를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독께서 친히 대군을 이끌고 오신다면, 만약 적을 만나거든 거짓으로 패하는 척하십시오. 제가 뒤에서 횃불로 신호를 보내 촉나라 군사의 군량마를 먼저 불태운 뒤, 곧바로 대군을 몰아 적을 덮친다면 제갈량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공을 세워 나라에 보답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의 죄를 씻고자 함입니다. 부디 살피주시고 속히 명을 내려 주십시오."

조진은 보고를 다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것은 하늘이 나를 도와 성공하게 하려는 것이로구나!" 조진은 즉시 가져온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고, 정해진 기한에 맞춰 군사를 모으라고 명했다. 이어 조진

은 비요를 불러 상의했다. "지금 강유가 몰래 밀서를 보내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하는구나." 비요가 말했다. "제갈량은 책략이 많고 강유는 지혜가 넓으니, 혹시 제갈량이 보낸 속임수가 아닐까 두렵습니다." 조진이 말했다. "강유는 원래 위나라 사람이었으나 어쩔 수 없이 촉나라에 항복한 것인데,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비요가 다시 말했다. "도둑떼서는 가벼이 움직이지 마시고 본진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제가 한 부대를 이끌고 나가 강유를 도우러 가겠습니다. 만약 성공하면 도둑떼 돌아올 것이나, 만약 간계라면 제가 몸소 감당하겠습니다." 조진은 매우 기뻐하며 비요에게 군사 5만 명을 주어 사곡을 향해 진격하게 했다.

비요가 군사를 이끌고 길을 떠나 두세 차례쯤 가다 군마를 세우고 정찰병을 보냈다. 그날 오후 3시경, 정찰병이 돌아와 보고했다. "사곡 길목에 촉나라 군사가 오고 있습니다!" 비요는 급히 군사를 몰아 나아갔다. 촉나라 군사는 싸우기도 전에 먼저 퇴각했고, 비요가 군사를 몰아 추격하면 촉나라 군사는 다시 나타났다가, 막 대열을 갖추어 맞서려 하면 또다시 물러났다.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었다.

어느덧 다음 날 오후 3시가 되었다. 위나라 군대는 촉나라 군사가 공격해 올까 두려워 밤낮으로 한시도 쉬지 못했다. 이제 막 진을 치고 밥을 지으려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키고 북과 나팔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졌다. 촉나라 군사가 산과 들을 가득 메우며 몰려왔다. 그때 진영의 깃발이 열리더니 네 바퀴 달린 수레 한 대가 나타났다. 그 가운데 제갈량이 단정히 앉아 위나라 주장의 답변을 청했다.

비요가 말을 타고 달려 나갔다. 멀리 제갈량을 보자 마음속으로 내심 기뻐하며 좌우를 돌아보고 말했다. "만약 촉나라 군사가 밀려오면 즉시 후퇴한다. 만약 산 뒤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이면 그때 몸을 돌려 공격하라. 그러면 자연히 지원군이 맞이해 줄 것이다." 지시를 마친 비요가 말을 몰아 소리쳤다. "조금 전에는 패해서 도망치더니, 이제 와서 또 무엇을 하러 왔느냐!" 제갈량이 말했다. "조진을 불러 대답하게 하라!" 비요가 욱하며 말했다. "조 도독께서는 귀한 신분이신데, 어찌 반역자와 만나겠느냐!"

제갈량이 크게 노하여 깃털 부채를 휘두르자, 왼쪽에서는 마대가, 오른쪽에서는 장억이 두 갈래로 병사들을 몰아 돌진했다. 그러자 위나라 군사들은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서른 리쯤 나아갔을 때, 촉나라 군사들의 뒤편에서 불길이 치솟고 끊임없는 함성이 들려왔다. 양쪽 군대가 격렬하게 싸우며 쏟아져 나왔는데, 왼쪽에는 관흥이 있고 오른쪽에는 장포가 있었다. 산 위에서는 화살과 돌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려왔고, 위나라 군사는 대패했다.

비요는 계책에 빠졌음을 깨닫고 퇴각하는 군사들을 모아 산골짜기를 향해 도망쳤으나, 병사들과 말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이때 뒤쫓아온 관흥이 정예병을 이끌고 들이닥치자, 위나라 군사들은 서로 짓밟히거나 계곡 아래로 떨어져 죽는 이가 부지기수였다. 비요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중 산비탈 입구에서 한 무리의 군사를 마주했는데, 바로 강유였다. 비요가 크게 욱하며 외쳤다.

"믿을 수 없는 반역자 놈 같으니! 내가 불행히도 네 간사한 계책에 속아 넘어갔구나!"

강유가 웃으며 말했다.

"조진을 사로잡으려다 그만 그대를 속이고 말았구려. 어서 말에서 내려 항복하십시오!"

비요는 말을 몰아 억지로 길을 뚫고 산골짜기 쪽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갑자기 골짜기에서 불길이 하늘을 찌를 듯 솟구쳤고, 뒤에서는 추격병들이 다시 들이닥쳤다. 결국 비요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남은 병사들은 모두 항복했다.

제갈량은 밤새 군사를 몰아 기산 앞에 진을 쳤다. 그는 군마를 정비한 뒤 강유에게 큰 상을 내렸다. 강유가 말했다.

"조진을 잡지 못한 것이 못내 한스럽습니다."

제갈량 역시 말했다.

"큰 계책을 작은 일에 쓰고 말았으니 참으로 아쉽구려."

한편, 조진은 비요가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후회막급하여 곧바로 곽희와 함께 군사를 몰릴 방책을 상의했다. 그사이 손례와 신비는 밤을 도와 위나라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촉나라 군사가 다시 기산으로 나왔으며 조진이 병사와 장수를 잃어 형세가 매우 위태롭다고 보고했다.

조예는 크게 놀라 즉시 사마의를 불러들여 말했다. "조진이 병사와 장수를 잃고 촉나라 군사는 또 기산으로 나왔으니, 그대를 보니 이들을 물리칠 계책이 무엇인가?"

사마의가 대답했다. “신에게는 이미 제갈량을 물리칠 계책이 있습니다. 굳이 위나라 군사가 무력을 떨치며 위세를 과시할 필요도 없이, 촉나라 군사는 자연히 스스로 물러갈 것입니다.”

과연 자단(조진)은 이길 재주가 없었으니, 오로지 중달(사마의)의 뛰어난 계책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그 계책이 과연 무엇일지, 결국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8회 — 한군을 쫓던 왕쌍이 처형당하고, 진창을 습격하여 무후가 승리를 거두다

追漢軍王雙受誅 襲陳倉武侯取勝

한편, 사마의가 보고했다.

"신이 전에도 폐하께 제갈량이 반드시 진창으로 나올 것이니 학소를 보내 그곳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연 그대로 되었습니다. 만약 저들이 진창을 통해 침입한다면 보급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학소와 왕쌍이 버티고 있어 저들이 이 길로 보급로를 삼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좁은 길들은 물자를 운반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신이 계산해 보니 촉나라 군사의 식량은 한 달 정도밖에 버티지 못할 것이니, 저들은 급하게 싸워 승부를 보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군은 그저 오래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폐하께서는 조서를 내려 조진에게 모든 관문을 굳게 지키게 하고, 함부로 출전하지 말라고

명하십시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촉나라 군사는 스스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때 빈틈을 타서 공격한다면 제갈량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조예가 기뻐하며 말했다.

"경에게 이미 앞을 내다보는 밝은 지혜가 있거늘, 어찌하여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 저들을 습격하지 않는가?"

사마의가 대답했다.

"신이 제 몸과 목숨을 아까워해서가 아니라, 실은 동오의 육손을 방비하기 위해 이 병력을 남겨두려는 것입니다. 손권이 머지않아 반드시 황제를 참칭할 것인데, 만약 그가 황제를 자처한다면 폐하께서 정벌하러 나가실 때 그가 먼저 우리를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신은 군사를 남겨두어 그를 기다리려 합니다."

말을 나누던 중, 갑자기 근신이 달려와 보고했다. "조진 도독께서 군사 상황을 보고해 왔습니다."

사마의가 말했다. "폐하께서는 즉시 사람을 보내 조진에게 경고하십시오. 촉나라 군대를 추격할 때는 반드시 그 허실을 살피야 하며, 절대로 적의 깊은 본거지로 들어갔다가 제갈량의 계략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조예는 즉시 조서를 내려, 태상경 한기를 보내 칙령을 전하며 조진에게 경고하게 했다. "절대로 함부로 싸우지 말고 오로지 성을 굳게 지

키는 데 힘쓰라. 축나라 군대가 물러가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비로소 공격하라."

사마의는 성 밖까지 한기를 배웅하며 당부했다. "이 공은 자단(조진)에게 양보할 것이니, 그를 만나면 내가 제안한 뜻이라고 말하지 말고 오직 천자께서 수비를 우선하라는 조서를 내리셨다고만 전하십시오. 추격하는 자들은 반드시 신중해야 하니, 성격이 급하고 조급한 자를 보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한기가 인사를 올리고 물러갔다.

한편, 조진이 막 막사에서 일을 논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자가 태상경 한기를 보내 절을 전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진이 진영 밖으로 나가 이를 맞이하고 조서를 받은 뒤, 돌아와 곽희, 손례와 함께 대책을 의논했다.

곽희가 웃으며 말했다. "이것은 분명 사마의의 생각이 담긴 것입니다."

조진이 물었다. "그 생각이 어떠하냐?"

곽희가 답했다. "이 조서는 제갈량의 병법을 깊이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축나라 군사를 막아낼 사람은 반드시 사마의가 될 것입니다."

조진이 다시 물었다. "만약 축나라 군사가 물러나지 않으면 그때는 어찌해야 하느냐?"

곽희가 말했다. "몰래 사람을 보내 왕쌍에게 지시하십시오. 왕쌍이 작은 길로 군사를 이끌고 순찰하게 하면, 저들이 감히 식량 수송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 식량이 떨어져 군사가 물러갈 때를 기다려 기세를 몰아 추격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손례가 말했다. "제가 기산으로 가서 식량을 나르는 병사로 위장하겠습니다. 수레에는 마른 땔감과 풀을 가득 싣고, 그 위에 유황과 초석을 뿌려 놓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용서로 식량을 운반한다고 거짓 보고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촉나라 군사가 식량이 부족하다면 반드시 이를 빼앗으러 올 것입니다. 그때 수레에 불을 지르고 밖에서 북병으로 대응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진이 기뻐하며 말했다. "그 계책이 참으로 묘하구나!"

조진은 즉시 손례에게 명령하여 그 계획대로 군사를 움직이게 했다. 또한 사람을 보내 왕쌍이 작은 길로 군사를 이끌고 순찰하도록 일렸으며, 곽희에게는 기곡과 가정의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 길목의 요충지를 지키게 했다. 조진은 또 장료의 아들 장호에게 선봉을, 악진의 아들 악렴에게 부선봉을 맡겨 함께 본영을 지키게 하며 함부로 출전하지 못하게 엄명을 내렸다.

한편, 제갈량은 기산 진영에서 매일 사람을 보내 도전을 청했으나, 위나라 군사들은 굳게 지키며 나오지 않았다. 제갈량이 강유를 불러 상의하며 말했다. '위나라 군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 군의 군량이 부족할 것이라 헤아렸기 때문이오. 지금 진창으로 가는 수송로는 막혔고, 다른 작은 길들도 험난하여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소. 내가 계산해

보니 군량과 군수품이 한 달도 채 버티지 못할 듯한데, 이를 어찌면 좋겠소?' 제갈량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농서(隴西)에서 위나라 군대가 수천 대의 수레에 군량을 실어 기산 서쪽으로 운반하고 있는데, 그 운반을 맡은 관원이 손례라는 것이었다. 제갈량이 물었다. '그 사람은 어떤 자인가?' 그러자 한 위나라 사람이 대답했다. '그 사람은 예전에 위나라 황제를 따라 대석산으로 사냥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맹호 한 마리가 뛰쳐나와 황제 앞으로 달려들자, 손례가 말에서 내려 검을 뽑아 그 호랑이를 베었습니다. 이때부터 상장군에 봉해졌으니, 조진의 심복인 인물입니다.'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저들은 우리에게 군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 계책을 쓴 것이로군. 수레에 실린 것은 분명 불을 붙이기 위한 띠풀 같은 것일 터. 나는 평생 화공을 즐겨 쓰는데, 저들이 그 점을 이용해 나를 유인하려는 것이 아닌가? 만약 저들이 내가 군량을 탈취하러 갈 것을 안다면, 반드시 우리 진영을 습격하려 들 것이다. 그러니 저들의 계책을 역이용하여 일을 진행하자.'

제갈량이 마대를 불러 명령했다. "그대는 군사 삼천을 거느리고 곧장 위나라 군대의 식량 창고로 가라. 다만 진영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 불을 질러야 한다. 수레와 마차에 불이 붙으면 위나라 군사들이 반드시 우리 진영을 포위하러 올 것이다." 이어 마충과 장억에게도 각각 오천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외곽을 에워싸서 안팎으로 협공하라고 일렀다. 세 사람은 명령을 받고 물러갔다.

또한 관흥과 장포를 불러 지시했다. "위나라 군대의 본영은 사방으로 길이 통하는 요충지다. 오늘 밤 서쪽 산에서 불이 나면 위나라 군사

들은 반드시 우리 진영을 구하러 올 것이다. 너희 둘은 위나라 진영의 좌우에 매복하고 있다가, 적군이 진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즉시 습격하라." 그리고 오반과 오이에게도 명령했다. "너희 둘은 각각 군사를 이끌고 진영 밖에 매복해 있다가, 위나라 군사가 도착하면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라."

제갈량은 작전 배치를 모두 마친 뒤 기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 앉았다. 한편, 위나라 군사들이 촉나라 군사가 식량을 약탈하러 온다는 소식을 알아채고 급히 손례에게 보고하자, 손례는 즉시 전령을 보내 조진에게 알렸다. 조진은 사람을 보내 본영에 있는 장호와 악렴에게 지시했다. "오늘 밤 산서 쪽에서 불이 나면 촉나라 군사가 반드시 구원하러 올 것이다. 이때 군사를 출동시켜 이렇게 이렇게 하라." 두 사람은 명령을 받고 사람을 시켜 성루에 올라 불길을 예의주시하게 했다.

한편, 손례는 촉나라 군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산서에 군사를 매복시켰다. 그날 밤 두경(밤 10시경)쯤, 마대가 삼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타났다. 군사들은 모두 재갈을 물렸고 말들도 입을 막아 소리가 나지 않게 했다. 그들이 산서에 이르러 보니, 수많은 수레와 깃발이 겹겹이 쌓여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는 모두 가짜였다. 마침 남서풍이 불어오자, 마대는 군사들에게 곧장 진영 남쪽으로 가서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다. 불길이 수레에 옮겨붙자 하늘을 찌를 듯한 불꽃이 치솟았다.

손례는 촉나라 군대가 위나라 진영에 침입해 불을 지른 줄로만 알고, 급히 군사를 이끌고 일제히 공격해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하늘을 뒤흔들며 두 갈래의 군대가 몰려왔다. 바로 마충과 장악이 위나라 군대를 포위하고 공격한 것이었다. 손

례가 크게 놀라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위나라 진영 안에서도 함성이 터져 나왔다. 한 무리의 군사가 불길을 뚫고 달려들었는데, 바로 마대였다. 안팎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자 위나라 군대는 대패했다. 불길은 거세고 바람은 빨라 사람과 말들이 어지럽게 흩어졌고, 죽은 자가 셀 수 없이 많았다. 손례는 부상당한 군사들을 이끌고 자욱한 연기와 불길을 뚫고 겨우 도망쳤다.

한편, 장호는 진영 안에서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는 것을 보고는 영채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악렴과 함께 군사와 말을 모두 이끌고 촉군의 진영을 향해 맹렬히 돌격했으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급히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려 할 때, 오반과 오의가 이끄는 두 갈래의 병력이 습격해 나와 퇴로를 끊어버렸다. 장호와 악렴 두 장수가 급히 군사를 몰아 포위망을 뚫고 본진으로 도망치듯 돌아가 보니, 토성 위에서 화살이 마치 날아다니는 메뚜기 떼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알고 보니 관흥과 장포가 위나라의 진영을 기습한 것이었다. 위나라 군대는 크게 패하여 모두 조진의 진영으로 도망쳐 들어왔다. 막 진영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패배한 한 무리의 군사가 급히 달려오는 것이 보였으니 바로 손례였다. 손례와 조진은 함께 진영 안으로 들어가 사태를 파악하며, 자신들이 어떻게 계책에 빠졌는지 상세히 보고했다. 조진은 그 말을 듣고 대진영을 엄중히 지키며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했다. 한편, 승리한 촉나라 군대는 제갈량에게 돌아가 승전보를 전했다.

제갈량은 몰래 사람을 보내 위연에게 계책을 전하는 한편, 영채를 거두고 일제히 떠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양의가 물었다. '지금 크게 승리하여 위나라 군대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 놓았는데, 어

찌하여 도리어 군사를 거두려 하십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우리 군사는 식량이 부족하니 승부는 신속히 내는 것이 이롭다. 하지만 지금 저들이 굳게 지키며 나오지 않으니, 오히려 우리가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저들이 비록 지금은 일시적으로 패했으나, 중원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병력을 보충할 것이다. 만약 저들이 가벼운 기병을 보내 우리의 보급로를 습격한다면, 그때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게 된다. 지금은 위나라 군사가 막 패하여 감히 촉나라 군사를 정면으로 마주 보지 못할 때이니, 이 기회를 틈타 불시에 퇴각해야 한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위연의 군대뿐이다. 진창 길목에서 왕쌍을 막아내느라 급히 몸을 빼지 못할까 염려된다. 내가 이미 사람을 보내 밀계를 전했으니, 위연이 왕쌍을 베어 위나라 군사가 감히 추격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후방 부대부터 먼저 출발하게 하라.' 그날 밤, 제갈량은 징과 북만 남겨 진영 안에서 야경 소리를 내게 했다. 밤새 군사들은 모두 퇴각하였고, 진영에는 빈 막사들만 덩그러니 남았다.

한편, 조진이 막 진영 안에서 근심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좌장군 장합이 군사를 이끌고 도착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장합은 말에서 내려 막사로 들어오며 조진에게 말했다.

“황제의 명을 받들어 특별히 지시를 듣고자 왔습니다.”

조진이 물었다.

“사마의와는 전에 만난 적이 있는가?”

장합이 대답했다.

“사마의가 이렇게 일러 두었습니다. ‘우리 군이 승리하면 촉나라 군사는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나, 만약 우리 군이 패한다면 촉나라 군사는 즉시 물러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이 패한 뒤에, 도둑께서 직접 정찰을 나가 촉나라 군사의 동태를 살펴보셨습니까?”

조진이 대답했다.

“아직 하지 못했네.”

조진은 즉시 사람을 보내 정찰하게 했다. 확인해 보니 과연 촉나라 군사는 허술하게 진영을 꾸며놓은 채 깃발 수십 개만 꽂아두었을 뿐, 이미 이틀 전에 떠나고 없었다. 조진은 뒤늦게 후회하며 자책했다.

한편, 위연은 밀계를 받자마자 그날 밤 이경(밤 10시경)에 진영을 거두고 급히 한중으로 돌아갔다. 이미 첩자를 통해 소식을 들은 왕쌍이 군마를 크게 몰아 힘껏 추격했다. 20여 리를 달려가니 어느덧 위연의 군대가 눈앞에 보였고, 앞쪽에 위연의 깃발이 나타나자 왕쌍이 '위연은 도망가지 마라!'라고 크게 외쳤다. 그러나 촉나라 병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다. 왕쌍이 말을 채찍질하며 뒤쫓아갈 때였다. 뒤따라오던 위나라 병사들이 '성 밖 진영에 불이 났습니다! 적의 간계에 빠진 것 같습니다!'라고 크게 외쳤다. 왕쌍이 급히 말머리를 돌려 뒤를 보니, 이미 불길이 하늘을 찌를 듯 치솟고 있었다. 그는 당황하여 퇴각 명령을 내렸다. 산비탈 왼쪽을 지나갈 무렵, 갑자기 말 한 마리가 숲속에서 튀어나오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위연이 여기 있다!' 왕쌍은 너무나 놀라 손쓸 틈도 없이 위연의 칼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졌다. 위나라 병

사들은 매복이 있을까 두려워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위연의 수하에는 겨우 서른 명의 기병뿐이었으나, 그들은 한중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후세의 시인이 이를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제갈량의 묘책은 손빈과 방연을 능가하니, 빛나기가 마치 긴 별이 한 방면을 비추는 듯하구나. 진퇴를 결정하는 용병술은 헤아릴 길이 없고, 진창 길목에서 왕쌍을 베었도다.'

한편, 위연은 제갈량의 묘책을 받들어 먼저 기병 서른 명을 따로 뽑아 왕쌍의 진영 근처에 매복시켰다. 그러고는 왕쌍이 군사를 일으켜 급히 출동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왕쌍이 움직이는 즉시 그의 진영에 불을 질렀다. 왕쌍이 급히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위연은 허점을 찔러 기습적으로 달려들어 왕쌍의 목을 베었다. 위연은 군사를 이끌고 왕쌍을 베어 한중으로 돌아와 제갈량에게 보고하며 인마를 인계했다. 제갈량이 연회를 베풀어 승리를 축하한 이야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한편, 장합은 도망치는 촉군을 쫓아가지 못하고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때 갑자기 진창성의 학소가 사람을 보내, 왕쌍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 조진은 이 소식을 듣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병까지 얻고 말았다. 결국 조진은 낙양으로 돌아갔고, 관희와 손례, 장합에게 명하여 장안의 여러 길목을 지키게 했다.

한편, 오나라의 군주 손권이 조회를 열었을 때, 첩자가 와서 보고했다. '촉한의 제갈 승상이 두 차례나 군사를 일으켰는데, 위나라의 도독 조진은 병사를 잃고 장수마저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신료들은 모두 손권에게 위나라를 공격하여 중원을 도모하자고 권했으나, 손권은 여전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였다. 이때 장소가 나아가 아뢰었

다. '근래 듣자 하니 무창의 동산에는 봉황이 날아와 춤추었고, 큰 강 가운데에서는 황룡이 여러 번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주공의 덕은 옛 성군인 요임금(당요)·순임금(우순)에 짝하고, 밝으심은 문왕·무왕과 나란하니, 마땅히 황제의 자리에 오르신 뒤에 군사를 일으키셔야 합니다.' 많은 관리들이 이에 동조하며 '자포(장소)의 말이 옳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여름 4월 병인일을 정하여 무창의 남쪽 교외에 제단을 쌓았다. 이날 신료들은 손권에게 제단에 올라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을 청하였고, 손권은 황제로 즉위하며 황무 8년을 황룡 원년으로 고쳤다. 또한 돌아가신 아버지 손견을 무열황제로, 어머니 오씨를 무열황후로 추존하고, 형 손책을 장사환왕으로 봉하였으며, 아들 손등을 황태자로 세웠다. 그리고 제갈근의 장남 제갈각을 태자좌보로, 장소의 차남 장휴를 태자우필로 임명하였다.

제갈근의 장남 제갈각은 자가 원손이며, 키는 칠 척에 매우 총명하고 응대에도 능했다. 손권은 그를 무척 아꼈다. 그가 여섯 살 때 동오의 연회에 아버지를 따라 참석하게 되었다. 손권이 제갈근의 얼굴이 길쭉한 것을 보고는 사람을 시켜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게 하더니, 분필로 나귀의 얼굴에 '제갈자유'라고 적었다. 좌중의 사람들이 모두 크게 웃었다. 이때 제갈각이 앞으로 달려 나가 분필을 들더니, 그 아래에 두 글자를 더 적어 '제갈자유의 나귀'라고 했다.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손권은 매우 기뻐하며 그 나귀를 제갈각에게 하사했다. 또 어느 날, 관료들을 위해 큰 연회를 베풀었을 때 손권이 제갈각에게 술잔을 돌리라고 명했다. 제갈각이 잔을 들고 돌아 장소 앞에 이르렀는데, 장소가 술을 마시지 않으며 '이것은 노인을 봉양하는 예법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손권이 제갈각에게 '네가 자포(장소)에게 억지

로라도 술을 마시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 제갈각은 명을 받들어 장소에게 말했다. '옛날 강상보(강태공)는 아흔 살의 나이에도 깃발과 부월을 잡고 군을 지휘하며 한 번도 늙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장에 나아가는 날에는 선생을 뒤에 모시고, 술을 마시는 날에는 선생을 앞에 모시니, 어찌 노인을 봉양하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장소는 대답할 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다. 손권은 이 일을 계기로 그를 더욱 아껴 태자를 보살피게 했다. 장소는 오왕을 보좌하며 삼공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기에, 그의 아들 장휴를 태자우필로 삼았다. 또한 고옹을 승상으로, 육손을 상장군으로 삼아 태자를 도와 무장을 지키게 했다. 손권이 다시 건업으로 돌아오자 신료들이 모여 위나라를 정벌할 계책을 논의했다. 장소가 아뢰기를, '폐하께서 이제 막 보위에 오르셨으니 아직 군사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문교를 닦고 무력을 거두며 학교를 늘려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한 사신을 축한에 보내 동맹을 맺어 천하를 나눈 뒤 천천히 도모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손권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즉시 사신에게 명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축한으로 달려가 후주를 만나게 했다. 예를 마치고 사신이 그 일을 자세히 아뢰자, 후주는 그 내용을 듣고 곧바로 신료들과 상의했다. 신료들은 모두 손권이 분수를 넘어 황제를 참칭하니 그와의 동맹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장완이 '사람을 보내 승상께 여쭙어보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후주는 즉시 사신을 한중으로 보내 제갈량의 의견을 물었다. 제갈량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사람을 보내 예물을 가지고 오나라로 가서 축하하게 하고, 육손에게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를 치도록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위나라는 반드시 사마의를 보내 이를 막게 할

것입니다. 사마의가 남쪽으로 동오를 막느라 묶여 있는 동안, 우리는 다시 기산으로 나아가 장안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후주는 제갈량의 말에 따라 태위 양진에게 명하여 명마와 옥띠, 금과 보석 같은 귀한 보물을 챙겨 오나라로 축하하러 가게 했다. 양진이 동오에 도착하여 손권을 알현하고 국서를 올리자, 손권은 크게 기뻐하며 연회를 베풀어 대접한 뒤 양진을 축한으로 돌려보냈다. 손권은 육손을 불러 서촉과 약속한, 위나라를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는 일을 알렸다. 그러자 육손이 말했다. '이것은 제갈량이 사마의를 두려워하여 꾸민 계책입니다. 이미 함께 도모하기로 한 일이니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겉으로만 군사를 일으키는 기세를 만들어 멀리 있는 촉군과 호응하는 척하다가, 제갈량이 위나라를 급히 공격할 때를 기다려 그 빈틈을 타 중원을 차지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육손은 즉시 명령을 내려 형주와 양양 각처에서 인마를 훈련시키고, 적당한 날을 골라 군사를 일으키도록 준비하게 했다.

한편, 진진이 한중으로 돌아와 제갈량에게 보고를 올렸다. 제갈량은 진창을 쉽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며, 먼저 사람을 보내 정찰하게 했다. 정찰한 사람이 돌아와 보고했다. "진창성의 학소가 병이 깊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갈량이 말했다. "드디어 큰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

제갈량은 곧 위연과 강유를 불러 명령했다. "그대들 둘은 병사 5천 명을 거느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창성 아래로 직행하라. 만약 불길 이 치솟는 것을 보거든 힘을 합쳐 성을 공격하라." 두 사람은 이 명령을 완전히 믿지 못해 다시 물었다. "언제쯤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제

갈량이 대답했다. "사흘이면 모든 준비가 끝날 것이니, 나에게 미안해할 것 없이 즉시 출발하라." 두 사람은 계획을 듣고 물러갔다.

이어 제갈량은 관흥과 장포를 불러 귓속말로 은밀한 계획을 일러주니, 두 사람도 각자 밀명을 받고 물러갔다.

한편, 곽희는 학소가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장합과 상의하며 말했다. "학소가 병이 깊으니, 그대가 서둘러 가서 대신 성을 지켜주시오. 내가 조정에 상소를 올려 보고할 테니, 그 후의 처분은 조정의 결정에 따릅시다." 이에 장합은 군사 삼천을 이끌고 급히 학소를 대신 하러 달려왔다. 당시 학소는 병세가 매우 위독하여 그날 밤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촉나라 군대가 성 밑에 당도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학소는 급히 사람을 시켜 성 위로 올라가 수비하게 했으나, 그사이 성문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성 안은 큰 혼란에 빠졌다. 학소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틈을 타 촉나라 군대가 한꺼번에 성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한편, 위연과 강유가 군사를 이끌고 진창성 아래에 이르러 살펴보니, 깃발 하나 보이지 않고 망을 보는 병사조차 없었다. 두 사람은 의아하고 의심스러워 감히 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포성한 번이 울려 퍼지더니 사방에서 깃발이 일제히 솟아올랐다. 그러더니 깃을 쓰고 깃털 부채를 든 채 도포를 입은 한 사람이 크게 외쳤다.

"그대들 두 사람이 너무 늦게 왔구려!"

두 사람이 살펴보니 바로 제갈량이었다. 위연과 강유는 황급히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승상, 참으로 신묘한 계책이십니다!"

제갈량이 그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며 말했다.

"내가 학소가 병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대들에게 사흘 안에 성을 함락하라고 명하여 군사들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그리고 관흥과 장포에게는 점검만 하는 척하며 한중에서 몰래 빠져나가게 했지. 나는 군사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와 성 아래에 도착 함으로써, 적이 병력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또한 성 안에 미리 심어 둔 첩자들이 불을 지르고 함성을 지르며 도와주게 하여 위나라 병사들이 당황하게 만들었으니, 장수가 없는 군대는 반드시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성을 취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다. 병법에 이르기를 '상대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나가, 대비하지 못한 곳을 공격하라'고 했는데, 바로 이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위연과 강유는 다시 엎드려 절했다. 제갈량은 학소의 죽음을 가엾게 여겨, 그의 아내에게 영구를 들려 위나라로 돌려보내게 함으로써 그의 충성을 기리게 했다.

제갈량이 위연과 강유에게 말했다. '그대들 두 사람은 아직 갑옷을 벗지 말고, 군사를 이끌고 산관으로 가서 습격하라. 관문을 지키는 자들은 군사가 도착한 것을 알면 분명 겁을 먹고 달아날 것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지체하여 위나라 군사가 관문에 먼저 도착하면 공략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위연과 강유는 명을 받들어 곧장 군사를 이끌고 산관으로 향했다. 과연 관문을 지키던 자들은 모두 달아났다. 두 사람이 관에 올라가 막 갑옷을 벗으려는데, 멀리 관 밖에서 엄청난 먼지 구름이

일며 위나라 군사가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두 사람이 서로 말했다. '승상님의 신통한 계산은 참으로 헤아릴 수가 없구나!' 두 사람이 급히 성루에 올라 살펴보니, 바로 위나라 장수 장합이었다. 두 사람은 군사를 나누어 험한 길목을 지켰다. 장합은 촉나라 군사가 요충지를 점령한 것을 보고는 곧장 군대를 물렸다. 위연이 뒤를 쫓아 한바탕 추격전을 벌이니, 위나라 군사 중 죽은 자가 셀 수 없이 많았고 장합은 크게 패하여 도망쳤다. 위연이 관으로 돌아와 제갈량에게 소식을 전했다. 제갈량은 먼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진창의 사곡으로 나가 건위를 함락시켰다. 그 뒤를 이어 촉나라 군사들이 속속 진격해 왔다. 후주가 다시 대장 진식을 보내 지원하게 했다. 제갈량은 대군을 몰아 다시 기산으로 나갔다. 진영을 차린 뒤 제갈량이 장수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내가 두 번이나 기산으로 나갔으나 아직 큰 이득을 얻지 못했다. 이번에 다시 이곳에 오니, 위나라 사람들은 분명 전과 같은 싸움터에서 나를 상대하려 들 것이다. 저들은 내가 웅성과 미성(雍·郾) 두 곳을 취할 것이라 의심하여 반드시 군사로 지키려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무도와 음평이 한중과 잇닿아 있으니 이 두 군을 얻으면 위나라 군사의 기세를 나눌 수 있다. 누가 감히 이곳을 취하겠는가?' 강유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했고, 왕평 또한 '저도 가겠습니다'라고 했다. 제갈량이 크게 기뻐하며 강유에게 군사 만 명을 주어 무도를 취하게 하고, 왕평에게 군사 만 명을 주어 음평을 취하게 했다. 두 사람은 명을 받들어 길을 떠났다.

한편, 장합이 장안으로 돌아와 곽회와 손례에게 말했다. '진창을 잃었고 학소도 죽었으며, 산관마저 촉나라 군대에게 점령당했소. 이제 제갈량이 다시 기산으로 나와 여러 길로 군사를 나누어 진격하고 있소.' 곽회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반드시 웅성과 미성

을 노릴 것이오!' 이에 장합을 장안에 남겨 지키게 하고, 손례에게는 응성을 지키게 했다. 광희는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성으로 달려가 방어에 나섰으며, 한편으로는 낙양에 표문을 올려 위급한 상황을 알렸다.

한편, 위나라 황제 조예가 조회를 열었을 때 곁에 있던 신하가 급히 아뢰었다. '진창성을 잃었고 학소도 죽었사옵니다. 제갈량이 다시 기산으로 출병하였으며, 산관 또한 촉나라 군사들에게 빼앗겼나이다.' 조예가 크게 놀라는데, 이때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다. 만총 등이 올린 표문에 이르기를, '동오의 손권이 스스로 황제를 칭하며 촉나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지금 육손을 무창에 보내 군사를 훈련시키며 명령을 기다리게 하고 있으니, 머지않아 반드시 침공해 올 것이옵니다'라고 하였다. 조예는 양쪽 전선이 모두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몹시 당황하였다. 마침 조진의 병도 아직 다 낫지 않은 터라, 조예는 즉시 사마의를 불러 대책을 논의하였다. 사마의가 말했다. '신이 미련하게나마 헤아려 보건대, 동오는 결코 군사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조예가 물었다. '경은 어찌 그것을 아는가?' 사마의가 대답했다. '제갈량은 일찍이 효정(猊亭)의 원수를 갚으려 생각하고 있으니 오나라를 삼키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다만 중원이 그 빈틈을 타 자신을 칠까 두려워 잠시 동오와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육손 또한 그 속뜻을 알고 있기에 겉으로는 군사를 일으키는 척 호응할 뿐, 실제로는 그저 앉아서 승패를 지켜보려는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오나라를 경계하실 필요 없이 오직 촉나라만 막으시면 됩니다.' 조예가 감탄하며 말했다. '경의 견해가 참으로 높구려!' 그러고는 사마의를 대도독으로 봉하여 농서(隴西) 지역의 모든 군마를 총괄하게 하고, 곁의 신하들에게 조진의 총병

장 인장을 가져오라고 명했다. 사마의가 말했다. '그 인장은 제가 직접 가져가겠습니다.' 사마의는 황제에게 작별을 고하고 궁을 나와 곧장 조진의 집으로 향했다. 먼저 사람을 보내 집안에 소식을 알린 뒤에야 들어가 조진을 알현하였다.

병세를 묻는 일이 끝나자 사마의가 말했다. '동오와 서촉이 힘을 합쳐 침공해 오고 있는데, 이제 제갈량까지 다시 기산으로 나와 진을 쳤습니다. 명공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조진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내 집안사람들이 내 병이 위중한 줄 알고 나에게는 알리지 않았구나. 나라가 이토록 위급한데, 어찌하여 중달(사마의)을 도둑으로 삼아 촉나라 군대를 물리치게 하지 않는단 말인가?' 사마의가 대답했다. '저는 재주가 부족하고 지혜가 얕아 그 직책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조진이 말했다. '인장을 가져다 중달에게 주어라.' 사마의가 말했다. '도둑께서는 염려 마십시오. 저는 한 팔의 힘을 보태어 돕고자 할 뿐, 감히 이 인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진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만약 중달이 이 임무를 맡지 않는다면 중원이 위태로워질 것이오! 내가 병을 무릅쓰고라도 천자를 뵈고 이 일을 받들도록 하겠소!' 사마의가 말했다. '천자께서 이미 은혜로운 명을 내리셨으나, 다만 제가 감히 받지 못할 뿐입니다.' 조진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중달이 이 임무를 맡는다면 반드시 촉나라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오.' 사마의는 조진이 거듭 인장을 사양하는 것을 보고 마침내 인장을 받아 들었다. 이어 위나라 황제에게 작별을 고하고 군사를 이끌고 장안으로 향하여 제갈량과 결전을 벌이러 나아갔다. 이야말로, 옛 장수의 인장을 새 장수가 거두니, 두 갈래의 군사 중 오직 한 길만 쳐들어오는구나. 승부가 어떻게 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니, 다음 이야기에서 풀어 보리라.

제99회 — 제갈량이 위나라 군사를 크게 격파하고, 사마의가 서촉으로 침입하다

諸葛亮大破魏兵 司馬懿入寇西蜀

촉한 건흥 7년 여름 4월, 제갈량은 기산에 군사를 머물게 하며 세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 위나라 군대가 오기를 기다렸다.

한편, 사마의가 군사를 이끌고 장안에 이르자 장합이 그를 맞이하여 지난 일을 보고했다. 사마의는 장합에게 선봉을 맡기고 대릉을 부장으로 삼아 10만 대군을 이끌고 기산으로 진격하게 한 뒤, 위수 남쪽에 진을 치게 했다. 이때 곽회와 손례가 진영으로 들어와 사마의를 알현했다. 사마의가 물었다. "그대들은 전에 촉나라 군대와 맞서 싸워본 적이 있는가?" 두 사람이 대답했다. "없습니다." 사마의가 말했다. "촉나라 군대는 천 리 길을 달려왔으니 속전속결로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 지금 이곳에 와서 싸우지 않는 것은 분명 무슨 계책을 꾸미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농서 지역의 여러 길에서 들어온 소식은 없는가?" 곽회가 말했다. "첩자를 보내 확인해 보니 각 군락에서 밤낮으로 방비에 힘쓰고 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무도와 음평 두 곳의 소식

만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사마의가 말했다. "내가 직접 사람을 보내 제갈량과 싸워보겠다. 그대들 둘은 서둘러 셋길로 가서 두 군을 구하되, 촉나라 군대의 뒤쪽을 기습하라. 그러면 저들이 스스로 혼란에 빠질 것이다." 두 사람은 이 계책을 받아들여 5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농서의 셋길을 통해 무도와 음평을 구하러 가면서 촉나라 군대의 후방을 습격하기로 했다. 길을 가던 중 광회가 손례에게 물었다. "사마의는 제갈량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손례가 대답했다. "제갈량이 사마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광회가 말했다. "제갈량이 비록 뛰어나다 해도, 이 계책 하나만 보면 사마의가 남다른 지혜를 가졌음을 충분히 알 수 있네. 촉나라 군대가 두 군을 정면으로 공격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우리가 뒤쪽을 치고 들어간다면, 저들이 어찌 스스로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정찰병이 급히 말을 달려와 보고했다. "음평은 왕평에게 함락되었고, 무도 또한 강유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촉나라 군사가 멀지 않은 곳까지 다가왔습니다!"

손례가 말했다. "촉나라 군사가 이미 성들을 함락시켰는데, 어찌 성 밖에 군사를 진을 치고 있겠습니까? 분명 속임수일 것이니, 차라리 서둘러 퇴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광회도 그 말에 따랐다. 막 군사들에게 퇴각 명령을 내리려던 찰나, 갑자기 포성 한 발이 울려 퍼지더니 산등성이 너머로 군마 한 무리가 나타났다. 깃발에는 '한나라 승상 제갈량'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고, 중앙의 네 바퀴 달린 수레 위에는 제갈량이 위엄 있게 앉아 있었

다. 그 왼쪽에는 관흥이, 오른쪽에는 장포가 버티고 있었다. 이를 본 손례와 곽회는 크게 놀랐다.

제갈량이 크게 웃으며 외쳤다. "곽회, 손례는 도망가지 마라! 사마의의 계책이 어찌 나를 속일 수 있겠느냐? 그는 매일 사람을 보내 앞쪽에서 교전하게 하면서, 너희를 시켜 우리 군의 뒤를 습격하게 하려 했다. 무도와 음평은 이미 내가 차지했다. 너희 둘은 진작 항복하지 않고, 어찌 군사를 몰아 나와 나와 결전을 벌이려 하느냐?"

곽회와 손례가 이 말을 듣고 당황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쪽에서 함성 소리가 하늘을 찢었다. 왕평과 강유가 군사를 이끌고 뒤에서 들이닥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관흥과 장포 두 장수마저 군사를 이끌고 앞쪽에서 공격해 왔다.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자 위나라 군대는 대패했다. 곽회와 손례는 말을 버리고 산을 기어 도망쳤다.

장포가 이를 보고 말을 달려 추격했으나, 뜻밖에도 말과 함께 계곡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뒤따라오던 군사들이 급히 그를 구해냈지만, 이미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제갈량은 장포를 성도로 보내 요양하게 했다.

한편, 곽회와 손례 두 사람이 겨우 도망쳐 돌아와 사마의에게 보고했다. "무도와 음평 두 군이 이미 함락되었습니다. 제갈량이 요충지에 매복해 있다가 앞뒤에서 공격해 오는 바람에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말을 버리고 걸어서 겨우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사마의가 말했다. "너희의 잘못이 아니다. 제갈량의 지략이 나보다 한발 앞섰을 뿐이다. 다시 군사를 이끌고 웅성과 미성 두 성을 지키도록 하되, 절대로 먼저 싸

우려 나가지는 마라. 나에게 적을 물리칠 계책이 있다." 두 사람이 물러가자, 사마의는 다시 장합과 대릉을 불러 명령했다. "지금 제갈량이 무도와 음평을 얻었으니, 반드시 백성들을 다독여 민심을 안심시키느라 진영을 비웠을 것이다. 너희 둘은 각각 정예병 만 명씩을 이끌고 오늘 밤 즉시 출발하여 촉나라 군대의 뒤를 차단하라.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용맹하게 달려들어 공격해라. 나는 군사를 이끌고 앞쪽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촉나라 군대의 기세가 어지러워지는 순간 대규모 병력을 몰아 공격하겠다. 양쪽 군대가 힘을 합친다면 촉나라의 진영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의 지형만 잘 이용한다면 적을 물리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느냐?"

두 사람은 계책을 받아 병사들을 이끌고 떠났다. 대릉은 왼편에, 장합은 오른편에 서서 각각 셋길을 택해 진격하며 촉나라 군대의 후방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삼경(밤 11시~새벽 1시) 무렵, 두 군대가 큰길에 이르러 합류한 뒤 촉나라 군대의 등 뒤를 습격했다. 그러나 30리를 채 가지 못해 앞서가던 군사들이 움직이지 못했다. 장합과 대릉이 직접 말을 달려 살펴보니, 수백 대의 수레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장합이 말했다. "이것은 분명 미리 준비한 함정이다. 서둘러 길을 돌려 퇴각하자." 그가 막 퇴각 명령을 내리려는데, 갑자기 산 전체가 불빛으로 환해지더니 북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사방에서 북병들이 쏟아져 나와 두 사람을 포위했다. 기산 위에 있던 제갈량이 크게 외쳤다. "대릉과 장합은 내 말을 들어라! 사마의는 내가 무도와 음평으로 가서 백성들을 살피느라 진영을 비워두었을 것이라 판단하여, 너희 둘에게 내 진영을 습격하라고 시켰으나 결국 내 계책에 빠진 것이다! 너희는 이름 없는 하급 장수들이니 내가 죽이지는 않겠다. 어서 말에서 내려 항복하

라!" 장합이 크게 분노하며 제갈량을 손가락질하며 꾸짖었다. "네 이놈, 미천한 시골뜨기 주제에 감히 우리 대국의 국경을 침범하고도 어찌 그런 망언을 내뱉느냐! 만약 내가 너를 잡기만 한다면, 반드시 네 몸을 갈가리 찢어 죽이리라!" 말을 마친 장합은 말을 달려 창을 휘두르며 산 위로 돌격했다. 그러자 산 위에서 화살과 돌이 비처럼 쏟아졌다. 장합은 산 위로 올라가지 못하자, 말을 몰아 창을 휘두르며 포위망을 뚫고 나갔는데 그를 막아설 자가 없었다. 촉나라 군사들이 대령을 포위하여 궁지에 몰아넣었다. 장합이 돌격해 나갔으나 대령이 보이지 않자, 다시 용맹하게 포위망 속으로 뛰어들어 대령을 구해낸 뒤 돌아왔다. 산 위에 있던 제갈량이 장합이 수만 대군 사이를 오가며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 용맹함이 평소보다 배는 더했다. 제갈량이 좌우 부하들에게 말했다. "내가 예전에 장익덕(장비)이 장합과 크게 싸워 모두가 경악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오늘 직접 보니 과연 그 용맹함이 대단하구나. 만약 저 자를 살려둔다면 반드시 촉나라에 해가 될 것이다. 내가 저 자를 제거해야겠다." 그러고는 군사를 거두어 진영으로 돌아갔다.

한편, 사마의는 군사를 이끌고 진을 쳐 놓은 채 촉나라 군대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일제히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장합과 대령이 엉망이 된 모습으로 달려오더니 이렇게 보고했다.

"제갈량이 미리 이런 식으로 방비를 해 두었기에 크게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마의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제갈량은 정말 신인과 같구나! 일단 후퇴하는 것이 좋겠다."

사마의는 즉시 명령을 내려 대군을 모두 본진으로 돌려보내고, 굳게 수비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한편, 제갈량이 대승을 거두어 노획한 무기와 말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제갈량은 이 전리품들을 챙겨 대군을 이끌고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는 매일 위연을 보내 도전장을 내밀게 했으나, 위나라 군사들은 결코 진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보름 동안 단 한 차례의 전투도 벌어지지 않았다. 제갈량이 막 천막 안에서 군사 회의를 하던 중, 갑자기 천자의 명을 받은 시중 비의가 조서를 가지고 도착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제갈량이 조서를 받아 진영 안으로 들어와 향을 피우고 예를 갖춘 뒤, 조서를 펼쳐 읽었다.

"가정에서의 실책은 마속의 잘못이나, 그대는 그 허물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깊이 낮추고 강등을 청하였소. 짐은 그대의 뜻을 거둬 여기기가 어려워 그대가 고집한 바를 들어주었던 것이오. 재작년에는 군사를 떨쳐 왕쌍을 베었고, 올해는 다시 정벌에 나서 곽회를 도망치게 했으며, 저족과 강족을 항복시켜 무도와 음평 두 군을 다시 일으켜 세웠소. 그 위세가 흥포한 무리를 떨게 했으니 그 공훈이 참으로 뚜렷하오. 지금 천하가 소란스럽고 으름가는 악인이 아직 처단되지 않았는데, 큰 임무를 맡아 나라의 중책을 진 그대가 오랫동안 스스로를 억누르고 깎아내리는 것은 빛나는 공업을 드높이는 길이 아니오. 이제 그대를 다시 승상으로 삼으니, 부디 사양하지 마시오!"

제갈량이 조서를 다 듣고 나서 비의에게 말했다. "우리 나라의 일이 아직 다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승상의 직책을 맡을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완강히 거절하며 받지 않으려 했다. 그러자 비의가 말했다. "승상께서 만약 직책을 받지 않으시면 천자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장병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우선은 임시로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갈량은 그제야 직책을 받기로 하고, 비의는 물러갔다.

제갈량이 사마의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한 가지 계책을 떠올려, 각 부대에 명령을 내려 진영을 거두고 철수하게 했다. 이때 첩자가 사마의에게 달려가 "제갈량이 군사를 물리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사마의가 말했다. "제갈량은 분명 큰 계략을 꾸미고 있을 것이니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자 장합이 말했다. "군량이 다 떨어져서 돌아가는 것이 분명한데, 어찌 추격하지 않으십니까?" 사마의가 대답했다. "내가 짐작건대, 제갈량은 작년에 수확이 컸고 지금은 또 밀이 익었으니 군량이 풍족할 것이다. 비록 운반이 어렵다 해도 반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텐데, 어찌 그리 쉽게 도망치겠느냐? 저쪽에서 내가 며칠째 싸우지 않는 것을 보고 나를 유인하려고 이런 계책을 쓰는 것이다. 사람을 보내 멀리서 망만 보게 하라."

군사들이 정찰한 뒤 돌아와 보고했다. "제갈량이 여기서 30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쳤습니다." 사마의가 말했다. "제갈량이 정말로 도망치지는 않을 것이다. 진영을 굳건히 지키고 절대 함부로 나아가지 마라."

그렇게 열흘 동안 머물렀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촉나라 장수들이 싸움을 걸어오는 일도 없었다. 사마의가 다시 사람을 보내 정찰하게 하니, "촉나라 군사들이 이미 진영을 옮겨 떠났습니다"라는 보고가 들어왔다. 사마의는 믿지 않고 옷을 갈아입은 뒤 군사들 사이에 섞여 직접 확인하러 나갔다. 과연 촉나라 군사들이 다시 30리 뒤로 물러나 진을 친 것이 보였다. 사마의는 진영으로 돌아와 장합에게 말했다. "이것은 제갈량의 계책이니 절대 추격해서는 안 된다."

며칠 동안 더 진영을 유지하며 정찰을 계속하게 했다. 정찰병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촉나라 군사가 다시 30리 뒤로 물러나 진을 쳤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장합이 말했다. "제갈량이 시간을 끌며 서서히 한중으로 퇴각하고 있는데, 사령관께서는 어찌하여 의심만 하시고 진즉에 추격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직접 가서 승부를 내고 싶습니다!" 사마의가 대답했다. "제갈량은 꾀계가 매우 많으니, 만약 작은 실수라도 생긴다면 우리 군의 기세가 꺾일 것이다.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장합이 다시 말했다. "만약 제가 패한다면 군령에 따라 처벌받겠습니다." 사마의가 말했다. "정 그리 가고 싶다면 병력을 두 갈래로 나누어라. 네가 한 갈래를 이끌고 먼저 나가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 나는 뒤따라가며 매복에 대비해 너를 지원하겠다. 네가 첫날 먼저 출발하여 중간 지점에 진을 치고, 다음 날 전투를 벌여야 병력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병력 분할을 마쳤다. 다음 날, 장합과 대릉은 부장 수십 명과 정예병 3만 명을 이끌고 용맹하게 전진하여 중간 지점에 진을 쳤다. 사마의는 진영을 지키기 위해 많은 군마를 남겨두고, 정예병 5천 명만을 이끌고 그 뒤를 따랐다.

알고 보니 제갈량이 몰래 사람을 보내 살피게 했더니, 위나라 군사들이 도중에 쉬고 있었다. 그날 밤, 제갈량이 장수들을 불러 모아 상의하며 말했다.

"지금 위나라 군사가 추격해 오고 있으니 필시 결사적으로 싸울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한 사람이 열 명을 상대할 기세로 싸워야 하며, 나는 복병을 보내 적의 뒤를 끊을 것이다. 지략과 용맹을 겸비한 장수가 아니라면 이 임무를 맡을 수 없다."

말을 마친 제갈량이 위연을 쳐다보았으나, 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이때 왕평이 나서며 말했다.

"제가 맡겠습니다."

제갈량이 물었다.

"만약 잘못된다면 어찌하겠느냐?"

왕평이 대답했다.

"기꺼이 군령을 따르겠습니다."

제갈량이 탄식하며 말했다.

"왕평이 목숨을 걸고 화살과 돌을 마주하려 하니 참으로 충신이다! 하지만 위나라 군사가 두 갈래로 나뉘어 앞뒤로 몰려오고 있으니, 내 복병이 중간에서 끊기게 되면 왕평이 아무리 지략과 용맹이 뛰어나다 한들 한쪽만 막을 수 있을 뿐이지 어떻게 몸을 두 군데로 나눌 수 있

겠느냐? 반드시 장수 한 명을 더 붙여주는 것이 좋겠으나, 아쉽게도 군중에 목숨을 걸고 앞장설 사람이 더 없구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장수가 나서며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갈량이 그를 살펴보니 바로 장익이었다. 제갈량이 말했다. "장합은 위나라의 명장으로, 만 명의 적도 당해내지 못할 용맹을 지녔으니 그대는 상대가 되지 않네." 장익이 대답했다. "만약 일을 그르치게 된다면, 제 머리를 가져가 장막 아래에 바치겠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그대가 감히 가겠다고 하니, 왕평과 함께 각각 정예병 만 명씩을 이끌고 산골짜기에 매복하게. 위나라 군대가 따라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적군이 모두 지나가면 그대들이 복병을 이끌고 뒤에서 습격하여 몰살시키게나. 만약 사마의가 뒤따라온다면 병력을 나누어 양쪽을 막아야 하네. 장익은 한 군대를 이끌고 후방 부대를 막아서고, 왕평은 다른 한 군대를 이끌고 전방 부대를 차단하게. 두 군대는 반드시 죽기로 싸워야 할 것이니, 내가 따로 계책을 세워 둘겠네." 두 사람은 계책을 받아들이고 병사를 이끌고 떠났다.

제갈량이 다시 강유와 요화를 불러 말하였다. "너희 둘에게 비단 주머니 하나를 주겠다. 정예병 삼천 명을 이끌고 깃발을 내리고 북소리를 죽인 채 앞산 위에 매복해 있거라. 만약 위나라 군대가 왕평과 장익을 포위하여 상황이 매우 위태로워 보이는 것을 보거든, 억지로 구하려 들지 말고 그저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아라. 그러면 위기를 벗어날 방책이 나올 것이다." 두 사람이 계책을 받들어 병사를 이끌고 떠났다.

이어 제갈량은 오반, 오이, 마충, 장익 네 장수를 불러 귓속말로 지시하였다. "내일 위나라 군대가 도착하면 기세가 매우 등등할 것이니,

곧장 맞서 싸우지 말고 싸우는 척하며 뒤로 물러나거라. 그러다 관흥이 병사를 이끌고 지원하러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때 군사를 돌려 적을 몰아쳐라. 내가 뒤에서 병력을 보내 도와주겠다." 네 장수도 계책을 받들어 병사를 이끌고 떠났다.

마지막으로 제갈량은 관흥을 불러 일렀다. "너는 정예병 오천 명을 이끌고 산골짜기에 매복해 있거라. 그러다 산 위에서 붉은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보면, 그때 병사를 이끌고 쏟아져 나와 적을 공격하라." 관흥 역시 계책을 받들어 병사를 이끌고 떠났다.

한편, 장합과 대룡이 군사를 이끌고 바람처럼 비처럼 몰아치며 달려왔다. 이에 마충, 장억, 오의, 오반 네 장수가 즉시 말에 올라 맞서 싸웠다. 장합은 크게 분노하여 병사들을 몰아 추격했고, 촉나라 군사들은 싸우면서도 계속 뒤로 물러났다. 위나라 군사가 20여 리를 추격해 들어갔는데, 마침 6월이라 날씨가 매우 더워 사람과 말의 땀이 물을 끼얹은 듯 쏟아졌다. 50리쯤 달려가자 위나라 군사들은 모두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이때 산 위에 있던 제갈량이 붉은 깃발을 흔들자, 관흥이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 습격했다. 마충을 비롯한 네 장수도 일제히 병사를 이끌고 돌아와 공격했다. 장합과 대룡은 죽을힘을 다해 버텼으나, 갑자기 큰 함성과 함께 왕평과 장익이 이끄는 두 갈래 군사가 나타나 뒤를 차단하며 몰아쳤다. 장합이 장수들에게 크게 외쳤다. "너희는 언제까지 기다릴 셈이냐! 여기서 죽기로 싸우지 않으면 어찌하겠느냐!" 위나라 군사들은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으나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하늘을 찢었고, 사마의가 정예병을 이끌고 나타났다. 사마의는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왕평과 장익을 포위망 한가운데 가두었다. 장익이 크게 외쳤다. "승상께서는 참으로 신령한 분이시구나! 이미 계책을 세우셨으니 반드시 좋은 방책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죽기로 싸워야 한다!" 그러고는 군사를 두 갈래로 나누어, 왕평은 한쪽 군사를 이끌고 장합과 대릉을 막아섰으며, 장익은 다른 쪽 군사를 이끌고 사마의를 상대했다. 양쪽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니 비명과 함성이 하늘을 찢었다.

강유와 요화가 산 위에서 상황을 살피는데, 위나라 군사의 기세가 위낙 강해 촉나라 군사가 위태로워 보였고 점차 버티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강유가 요화에게 말했다. "상황이 이토록 위급하니 비단 주머니를 열어 계책을 확인해 봅시다." 두 사람이 주머니를 열어보니 안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약 사마의의 군사가 몰려와 왕평과 장익을 포위하는 상황이 급박해지면, 너희 둘은 군사를 두 갈래로 나누어 사마의의 진영을 기습하라. 그러면 사마의는 반드시 급히 퇴각할 것이니, 너희는 그 혼란을 틈타 공격하라. 진영을 점령하지 못하더라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군사를 나누어 사마의의 진영을 향해 곧장 달려갔다.

사마의 역시 제갈량의 계략에 휘말릴까 두려워하여, 가는 길마다 끊임없이 소식을 전하라고 명하고 있었다. 사마의가 막 전투를 재촉하던 찰나, 갑자기 전령이 급히 달려와 촉나라 군사가 두 갈래로 나뉘어 곧장 본진을 치러 갔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마의는 안색이 창백해지며 장수들에게 외쳤다.

“내가 제갈량에게 계략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음에도 너희가 믿지 않고 억지로 쫓아왔으니, 결국 큰일을 그르치게 되었구나!”

사마의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급히 회군하려 했으나, 이미 군심은 건잡을 수 없이 흔들리며 혼란스럽게 도망치기 시작했다. 뒤를 쫓던 장익이 몰아치며 공격하자 위나라 군대는 대패했다. 장합과 대릉도 고립될 위기에 처하자 산 너머 외진 길을 찾아 도망쳤고, 촉나라 군사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관흥은 뒤에서 병력을 이끌고 나타나 여러 길에서 공격해 오는 촉나라 군사를 지원했다. 사마의는 한바탕 대패하고 진영으로 겨우 도망쳐 들어갔으나, 촉나라 군사는 이미 철수하고 없었다. 사마의는 패잔병을 모아놓고 장수들을 꾸짖었다.

“너희는 병법도 모르면서 그저 혈기만 믿고 억지로 싸우려 하더니, 결국 이런 패배를 불러왔구나! 앞으로는 절대로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다시 한번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엄중히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장수들은 모두 부끄러워하며 물러났다. 이번 전투에서 위나라 군사는 수많은 병사를 잃었으며, 버려진 말과 무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한편, 제갈량은 승전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진영으로 돌아온 뒤, 다시 군사를 일으켜 진격을 시도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성도에서 사람이 급히 달려와 장포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제갈량은 목놓아 통곡하다가 입에서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사람들이 서둘러 달려와 그를 간호하여 겨우 깨웠으나, 제갈량은 이때부터 병을 얻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그를 따르

던 장수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후대의 사람들이 시를 지어 그를 기리며 탄식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용맹한 장포는 공을 세우려 하였건만, 가련하게도 하늘이 영웅을 돕지 않는구나! 무후의 눈물은 서풍을 타고 훑날리니, 곁에서 보필할 이 없는 슬픔뿐이로다."

열흘 뒤, 제갈량은 동궐과 번건 등을 장막으로 불러들여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내가 몸이 무거워 정신이 흐릿하니, 더는 일을 처리하기 어렵겠구나. 차라리 한중으로 돌아가 병을 다스린 뒤에 다시 좋은 방책을 세우는 편이 낫겠다. 너희는 이 사실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만약 사마의가 알게 된다면 반드시 공격해 올 것이다."

말을 마친 제갈량은 곧바로 군령을 내려, 그날 밤 몰래 진영을 거두고 모두 한중으로 퇴각하게 했다. 제갈량이 떠나고 닷새가 지나서야 사마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마의는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제갈량은 참으로 신출귀몰한 계책을 가졌구나.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도다!"

사마의는 장수들을 진영에 남겨두어 각 요충지를 나누어 지키게 한 뒤, 스스로 군사를 돌려 돌아갔다.

한편, 제갈량은 대군을 한중에 주둔시킨 뒤 성도로 돌아가 병을 치료했다. 문무 관리들이 성 밖으로 나가 그를 맞이하여 승상의 저택으로

모셨고, 유선 또한 직접 행차하여 그의 안부를 물으며 어의를 보내 치료하게 하니, 제갈량의 병세는 날로 나아졌다.

건흥 8년 가을 7월, 위나라의 도독 조진이 병이 들자 상소를 올려 말했다. "촉나라 군사가 여러 차례 국경을 침범하여 중원을 거둬 위협하고 있으니, 지금 이를 소탕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마침 지금은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돌아 사람과 말의 상태가 평온하니, 정벌하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신은 사마의와 함께 대군을 이끌고 한중으로 곧장 들어가 간사한 무리를 멸하고 변방을 평정하기를 원하나이다." 위나라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시중 유엽에게 물었다. "자단(조진)이 짐에게 촉나라를 치라고 권했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엽이 아뢰었다. "대장군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소탕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큰 재앙이 될 것이니, 폐하께서는 즉시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황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엽이 궁을 나가 집으로 돌아가자, 여러 대신이 그를 찾아와 물었다. "천자께서 공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촉나라를 칠 계획을 논의하셨다는데, 이 일이 사실인가?" 유엽이 대답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촉나라는 산천의 험준함이 있어 쉽게 도모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괜히 군사와 말을 낭비하며 수고를 들여봐야 나라에 이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대신들은 아무 말 없이 물러갔다. 이때 양계가 궁으로 들어가 아뢰었다. "어제 유엽이 폐하께 촉나라를 치라고 권하더니, 오늘 대신들과 논의할 때는 또 치면 안 된다고 말하니 이는 폐하를 속이는 것입니다. 폐하, 어찌하여 그를 불러 물으시지 않습니까?" 황제는 즉시 유엽을 불러 물었다. "경은 짐에게 촉나라를 치라고 권하더니, 이제는 또 안 된다고 하니 어찌 된 일인가?" 유엽이 말했다. "신이 자세히 살펴본 결과, 촉나라는 쳐서는 안 됩

니다." 황제는 크게 웃었다. 잠시 후 양계가 밖으로 나가자 유엽이 다시 아뢰었다. "신이 어제 폐하께 촉나라를 치라고 권한 것은 나라의 중대한 사안인데, 어찌 함부로 남들에게 누설할 수 있겠습니까? 병법이란 속임수의 도리이니,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하는 법입니다." 황제는 그제야 깨달으며 말했다. "경의 말이 옳다." 그 후로 황제는 유엽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다.

열흘 사이에 사마의는 조정에 나아가 위나라 주군에게 조진이 올린 상소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했다. 사마의가 말했다.

"신이 헤아려 보건대, 동오가 감히 군사를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니, 오늘이야말로 이 기회를 틈타 촉나라를 치기에 적기입니다."

위나라 황제는 즉시 조진을 대사마 겸 정서대도독으로 삼고, 사마의를 대장군 겸 정서부도독으로, 유엽을 군사로 임명했다. 세 사람은 위나라 주군에게 작별을 고한 뒤, 40만 대군을 이끌고 장안으로 나아가 검각을 거쳐 곧장 한중을 치러 달려갔다. 그 외에 곽회와 손례 등은 각자 다른 길을 택하여 진군했다.

한중에서 성도로 급보가 날아들었다. 이때 제갈량은 병이 난 지 꽤 오래되었으나, 매일같이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팔진법을 익히는 데 전념하여 그 수법이 매우 정교하고 숙련되어 있었다. 그는 중원을 차지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다. 소식을 들은 제갈량이 장억과 왕평을 불러 명령했다.

"너희 둘은 먼저 군사 천 명을 이끌고 진창의 옛길로 가서 위나라 군사를 막아라. 내가 곧 대군을 이끌고 가서 합류하겠다."

두 사람이 대답했다.

"보고에 따르면 위나라 군사는 40만이라는데, 80만이라고 속여 말할 정도로 기세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어찌 천 명의 병력만으로 요충지를 지키라 하십니까? 만약 위나라 군사가 대거 몰려오면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병사를 많이 보내고 싶지만, 그러면 군사들이 너무 고생할까 염려되어 그러는 것이다."

장악과 왕평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제갈량이 다시 말했다.

"만약 실수가 생긴다 해도 그것은 너희의 죄가 아니다. 더 말할 것이 없이 어서 가거라."

두 사람이 다시 애원하며 말했다.

"승상께서 저희 둘을 죽이려 하신다면 차라리 지금 죽여 주십시오.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참으로 어리석구나! 내가 너희를 보내는 데에는 다 생각이 있다. 내가 어젯밤 하늘의 움직임을 살펴보니, 별들이 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번 달 안에는 반드시 큰비가 쏟아질 것이다. 위나라 군

사가 비록 40만이라 한들, 어찌 험한 산악 지대로 깊숙이 들어오겠느냐? 그러니 많은 군사를 보낼 필요 없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나는 대군을 한중에 한 달간 머물게 하며 위나라 군사가 물러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대군을 급히 출동시켜 그들을 덮칠 것이다. 쉬면서 적의 피로를 이용한다면, 나의 10만 군사로도 위나라의 40만 군사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두 사람은 이 말을 듣고서야 크게 기뻐하며 절을 하고 물러갔다. 제갈량은 곧 대군을 거느리고 한중을 나섰다. 그는 각 요충지에 명령을 내려 마른 쌀감과 풀, 그리고 세밀한 식량을 미리 준비하게 하여, 가을 비에 대비해 한 달 동안 군사들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군에게는 한 달간의 여유를 주어 의식주를 충분히 제공하며 출정 준비를 갖추게 했다.

한편, 조진과 사마의가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에 이르렀으나, 성 안에는 집 한 채 남아 있지 않았다. 땅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제갈량이 돌아가면서 불을 질러 모두 태워버렸다고 대답했다. 조진이 곧 진창도를 통해 진군하려 하자, 사마의가 말했다.

"함부로 진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밤에 천문을 살펴보니 별들이 달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는 반드시 큰비가 내릴 것입니다. 만약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승리하면 다행이지만, 혹여라도 실수라도 하게 되면 병사들과 말이 고생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때 가서 퇴각하려 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성안에 막사를 지어 머물면서 비가 올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조진이 사마의의 말을 따랐다. 채 보름이 지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큰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그칠 줄을 몰랐다. 진창성 밖 평지에는 물이 석 자나 차올랐고, 군기들은 모두 젖어버렸으며, 병사들은 잠을 이루지 못해 밤낮으로 고통을 겪었다. 비가 서른 날 동안 계속해서 내리자 말들은 먹을 풀이 없어 죽어 나갔고, 죽은 자가 셀 수 없이 많아지니 군사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소식이 낙양에 전해지자 위나라 황제는 제단을 쌓고 날이 개기를 빌었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때 황문시랑 왕숙이 상소를 올리며 말했다.

옛 기록에 이르기를, "천 리 길에 식량을 나르면 병사들의 얼굴에 굶주린 기색이 돌고, 땀나물을 베고 풀을 구한 뒤에야 밥을 지으니 군사가 배불리 먹고 자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평탄한 길을 행군하는 경우를 말한 것입니다. 하물며 험난한 곳에 깊숙이 들어가 길을 뚫으며 나아가는 상황이라면 그 노고는 반드시 백 배는 더할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장맛비까지 더해져 산비탈은 가파르고 미끄러우며, 군사들은 좁은 곳에 몰려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식량은 멀리 있어 잇기 어려우니, 이는 실로 행군에서 가장 꺼려야 할 일입니다. 듣자 하니 조진이 출정한 지 이미 한 달이 넘었으나 이제 겨우 골짜기의 절반쯤 행군했을 뿐이며, 길 닦는 일이 커서 전사들이 모두 그 일에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적이 도리어 편안히 쉬면서 지친 우리 군을 기다리는 격이니, 병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지난 시대의 일을 말하자면 주나라 무왕이 주왕을 치러 나설 때 관문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왔고, 가까운 일을 논하자면 우리 무제(조조)와 문제(조비)께서 손권을 정벌하실 때 강에 이르렀으나 건너지 못하셨습니다. 이 어찌 하늘에 순응하고 때를 알아 임기응변에 통달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비바람이 거세어 군사들이 겪는 고초를 헤아리시어 병사들을 쉬게 하소서. 훗날 적에게 빈틈이 생기면 그 기회를 틈타 쓰십시오. 이것이 이른바 기쁜 마음으로 어려움에 나아가게 하면 백성이 죽을 조차 잊는다는 것입니다.

위나라 황제가 상소를 읽으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양부와 화흠도 상소를 올려 이를 만류했다. 그러자 위나라 황제는 즉시 조서를 내려 사신을 보내 조진과 사마의를 조정으로 불러들였다.

한편, 조진과 사마의가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지금 30일 동안이나 비가 계속 내리니, 군사들이 싸울 의욕을 잃고 다들 돌아가고 싶어 하는 눈치인데 이를 어찌 막아야 하겠소?" 사마의가 대답했다. "차라리 일단 퇴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조진이 물었다. "만약 제갈량이 쫓아오면 어떻게 물러날 생각이오?" 사마의가 말했다. "먼저 양쪽 군대에 후방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려 매복시킨 뒤에야 퇴각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막 의논을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사자가 달려와 명령을 전했다. 이에 두 사람은 대군의 전진 부대를 후방 부대로 바꾸고, 후방 부대를 전진 부대로 바꾸어 차례차례 천천히 퇴각하기 시작했다.

한편, 제갈량은 한 달 정도 가을비가 내리면 날이 개겠지만 아직은 날씨가 맑지 않을 것이라 계산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성고에 진을 치게 한 뒤, 대군은 적파에 주둔하도록 명령했다. 제갈량이 장막 위로 올라가 장수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위나라 군대는 반드시 물러갈 것이다. 위나라 황제도 조진과 사마의를 불러들이라는 조서를 내릴 것이니, 내가 지금 무리하게 추격한다

면 적이 미리 준비한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 적이 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나중에 다시 좋은 계책을 세우는 것이 낫다."

그때 마침 왕평이 위나라 군대가 이미 물러갔다는 보고를 가져왔다. 제갈량은 보고를 받은 뒤 왕평에게 전령을 보내 "절대 추격하지 말라. 나에게는 위나라 군대를 격파할 별도의 계책이 있다"라고 일러두었다.

위나라 군대가 아무리 매복을 해둔다 한들, 한나라의 승상은 애초에 추격할 생각이 없었다. 과연 제갈량이 어떤 방법으로 위나라 군대를 격파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0회 — 한나라 군사가 진영을 습격하여 조진을 격파하고, 무후가 진법으로 싸워 중달을 육보이다

漢兵劫寨破曹真 武侯鬥陣辱仲達

한편, 장수들은 제갈량이 위나라 군대를 쫓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모두 막사로 들어가 이렇게 말했다. "위나라 군사들이 비 때문에 진영을 차리지 못해 퇴각하는 것이니, 이 기세를 몰아 추격해야 합니다.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쫓지 않으십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사마의는 병법에 능한 자이니, 지금 군대가 물러나는 데에는 반드시 매복이 있을 것이오. 만약 우리가 쫓아간다면 바로 그 계략에 빠지게 될 것이오. 차라리 저들이 멀리 가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군사를 나누어 사곡으로 곤장 나가 기산을 점령함으로써 위나라 군사들이 방비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좋겠소."

장수들이 물었다. "장안 땅을 차지하려면 다른 길이 있을 텐데, 승상께서 어찌하여 기산만을 취하려 하십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기산은 장안으로 가는 길목의 요충지요. 만약 농서의 여러 군에서 병력을 보낸다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하오. 게다가 앞에는 위빈이 있고 뒤에는 사곡이 있어, 왼쪽과 오른쪽으로 드나들며 복병을 매복하기에 아주 좋은 무대로 삼을 수 있소. 그래서 나는 먼저 이곳을 차지하여 지형의 이점을 얻으려 하는 것이오."

장수들이 모두 감탄하며 복종했다. 제갈량은 위연, 장익, 두경, 진식에게는 기곡으로 나가게 하고, 마대, 왕평, 장익, 마충에게는 사곡으로 나가게 하여 모두 기산에서 만나도록 명령했다. 군사 배치가 모두 끝나자, 제갈량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관흥과 요화를 선봉으로 삼아 출정했다.

한편, 조진과 사마의는 뒤에서 군마를 감독하며, 한 부대를 진창의 옛길로 보내 살피게 했다. 그러나 촉나라 군사가 오지 않는다는 보고만 돌아왔다. 다시 열흘이 지나도록 뒤에 매복했던 병사들이 모두 돌아왔으나, 촉나라 군사의 소식은 전혀 없었다.

조진이 말했다. "가을비가 연달아 내리고 잔도가 끓었으니, 촉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퇴각하는 것을 어찌 알겠소?"

사마의가 말했다. "촉나라 군사가 뒤따라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조진이 물었다. "그걸 어찌 아시오?"

사마의가 대답했다. "며칠째 날이 맑은데도 촉군이 쫓아오지 않는 것을 보니, 필시 우리에게 복병이 있다고 생각하여 일부러 우리 군사를

멀리 보내준 것입니다. 우리 군사가 다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가 기산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지요."

조진은 믿지 않았다. 그러자 사마의가 말했다. "자단, 어찌하여 믿지 못하십니까? 제 생각에 제갈량은 반드시 두 골짜기를 통해 올 것입니다. 저와 자단이 각각 골짜기 입구를 하나씩 지키기로 하고 열흘의 기한을 정합시다. 만약 촉나라 군사가 오지 않는다면, 제가 얼굴에 연지를 바르고 여인의 옷을 입은 채 진영으로 돌아와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조진이 말했다. "만약 촉나라 군사가 온다면, 나는 황제께서 하사하신 옥띠 하나와 임금의 말 한 마리를 그대에게 주겠소."

말을 마친 두 사람은 군사를 둘로 나누었다. 조진은 군사를 이끌고 기산 서쪽의 사곡 입구에 주둔하였고, 사마의는 기산 동쪽의 기곡 입구에 군사를 배치하였다.

각 진영에 막사를 치는 일이 모두 끝났다. 사마의는 먼저 병사 한 갈래를 이끌고 산골짜기에 매복시킨 뒤, 나머지 군사들은 요충지마다 나누어 진을 치게 했다. 사마의는 옷을 갈아입고 군사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 각 진영을 두루 살폈다. 그러다 어느 진영에 이르렀을 때, 한 편장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비가 이렇게 오랫동안 쏟아지는데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하더니, 이제 여기서 또 시간을 끌며 내기를 하려 드니, 관군들이 얼마나 고생이란 말인가!"

그 말을 들은 사마의는 즉시 진영으로 돌아가 막사를 세우고, 모든 장수를 불러 모은 뒤 그 장수가 누구인지 밝히게 했다. 사마의가 꾸짖으며 말했다.

"조정에서 군사를 기르는 데는 천일이 걸리지만, 정작 쓰이는 것은 한순간이다. 네가 어찌 감히 입을 놀려 원망을 늘어놓음으로써 군심을 어지럽히느냐!"

하지만 그 장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마의가 함께 있던 동료들을 불러 증언하게 하자, 그 장수는 더 이상 발뺌하지 못했다. 사마의가 다시 말했다.

"나는 내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촉나라 군사를 이기고 승리하여 너희 모두가 공을 세워 조정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망령되이 원망을 늘어놓으니 스스로 죄를 자초한 것이다!"

사마의가 무사들에게 명령하여 그를 끌어내어 처형하게 했다. 잠시 후, 그의 머리가 사마의의 막사 앞으로 바쳐졌다. 이를 본 장수들은 모두 겁에 질렸다. 사마의가 말했다.

"장수들은 모두 마음을 다해 촉나라 군사를 방비하라. 내 중군에서 포성을 울리면 사방에서 진격하라."

장수들은 명령을 받고 물러갔다.

한편, 위연, 장억, 진식, 두경 네 장수는 이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기곡을 통해 진군했다. 한창 행군하던 중, 갑자기 참모 등지가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네 장수가 그 이유를 묻자 등지가 말했다.

"승상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기곡으로 나가면 위나라 군사의 매복이 있을 수 있으니 함부로 진격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진식이 말했다.

"승상께서는 어찌 이리도 의심이 많으신가? 내가 보기에 위나라 군사들은 연일 내린 폭우 때문에 갑옷과 옷이 모두 망가져서 분명 급히 퇴각하고 있을 터인데, 어찌 매복이 있단 말인가? 지금 우리가 속도를 내어 진격하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데, 어찌하여 다시 진격을 멈추라고 하시는가?"

등지가 다시 말했다.

"승상의 계책은 틀림이 없고, 그 전략 또한 빈틈이 없습니다. 그대가 어찌 감히 명을 어기려 합니까?"

진식이 비웃으며 말했다.

"승상께서 정말로 지략이 뛰어나셨다면, 예전에 가정에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오!"

위연도 예전에 제갈량이 자신의 계책을 듣지 않았던 일을 떠올리며 함께 비웃었다.

"승상께서 내 말을 듣고 곧장 자오곡으로 나갔더라면, 지금쯤 장안은커녕 낙양까지도 차지했을 것이오! 이제 와서 기산으로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니 무슨 이득이 있겠소? 진격하라고 명령했다가 이제 와서 다시 멈추라니, 어찌 이리도 군령이 불명확하단 말이오!"

진식이 말을 이었다.

"나에게는 이미 오천 명의 병사가 있으니, 곧장 기곡을 나가 기산 아래에 진을 치고 승상이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아닌지 확인하겠소!"

등지가 몇 번이고 만류했으나 진식은 듣지 않고, 제멋대로 오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기곡을 나갔다. 등지는 급히 제갈량에게 이 사실을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진식이 군사를 이끌고 몇 리쯤 나아갔을 때였다. 갑자기 포성 한 발이 울려 퍼지더니 사방에서 북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진식이 급히 후퇴하려 했으나, 위나라 군사들이 이미 골짜기 입구를 꼭 메우고 있어 마치 무쇠 통에 갇힌 듯했다. 진식은 좌우로 거칠게 돌파하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큰 함성이 땅을 울리더니 한 무리의 군사가 들이닥쳤는데, 바로 위연이었다. 위연은 진식을 구해 골짜기 안으로 돌아왔으나, 다섯 천 명에 달하던 군사는 부상당한 병사와 말들을 포함해 겨우 사오백 명밖에 남지 않았다. 뒤쫓아오는 위나라 군사들을 향해 두경과 장억이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 지원해주자, 그제야 위나라 군사들은 물러갔다. 진식과 위연은 그제야 제갈량의 예견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뒤늦은 후회만 할 뿐이었다.

한편, 등지가 제갈량을 찾아가 위연과 진식이 이토록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보고했다.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위연은 본래 반역할 상을 가졌으니, 그에게 늘 불만이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용맹함이 가여워 중용했을 뿐입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화근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전령이 급히 말을 타고 달려와 보고했다. 진식이 4천여 명의 병사를 잃고, 부상당한 병사와 말 500여 명만을 데리고 기곡에 머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제갈량은 등지에게 다시 기곡으로 가서 진식을 위로하며 혹시 모를 변고를 막으라고 명했다. 그러고는 마대와 왕평을 불러 지시했다.

"사곡에 만약 위나라 군사가 지키고 있다면, 너희 둘은 본대 군사를 이끌고 산등성이를 넘어라. 낮에는 몸을 숨기고 밤에 이동하여 신속히 기산의 왼쪽으로 나가서, 불을 피워 신호를 보내라."

이어 마충과 장익을 불러 지시했다.

"너희 또한 산의 외진 샅길을 통해 낮에는 숨고 밤에 이동하여 기산의 오른쪽으로 곧장 나가 불을 피워라. 마대, 왕평과 합류하여 조진의 진영을 함께 습격해야 한다. 나는 스스로 골짜기 세 방향에서 공격할 테니, 그러면 위나라 군사를 격파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사람은 명을 받들어 각자 군사를 이끌고 떠났다. 제갈량은 다시 관흥과 요화를 불러 비밀스러운 계책을 일러주었다. 두 사람도 밀명을 받은 뒤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제갈량은 직접 정예병을 거느리고 말을

달려 빠르게 이동했다. 길을 가던 중 오반과 오의를 불러 비밀스러운 계책을 전해주고, 그들 역시 먼저 군사를 이끌고 나가게 했다.

한편, 조진은 축나라 군대가 올 리 없다고 믿고 방심한 채 군사들을 쉬게 했다. 그는 열흘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사마의를 망신 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렇게 칠 일을 보냈을 때, 갑자기 누군가 골짜기에 축나라 군사들이 조금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조진은 부장 진량에게 군사 오천 명을 이끌고 정찰을 나가되, 축군이 경계선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진량이 명을 받고 군사를 이끌고 골짜기에 막 도착했을 때, 정찰병들이 축군이 물러가는 것을 보았다. 진량이 급히 군사를 몰아 뒤쫓아 오십, 육십 리를 달려갔으나 축군은 보이지 않았다. 의아하게 생각한 진량은 군사들에게 말에서 내려 쉬라고 했다. 그때 갑자기 정찰병이 말을 타고 달려와 외쳤다.

"앞쪽에 축나라 군사의 매복이 있습니다!"

진량이 말을 타고 살펴보니 산속에서 엄청난 먼지가 일고 있었다. 그는 급히 군사들에게 방비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방에서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앞쪽에서는 오반과 오의가 군사를 몰아 들이닥쳤고, 뒤쪽에서는 관흥과 요화가 군사를 이끌고 습격해 왔다. 좌우는 온통 산뿐이라 도망갈 길조차 없었다.

산 위의 축군이 크게 외쳤다.

"말에서 내려 항복하는 자는 죽이지 않겠다!"

위나라 군사들 태반이 항복했다. 진량은 끝까지 죽기로 싸웠으나, 결국 요화의 칼에 맞아 말 아래로 쓰러졌다.

제갈량은 항복한 병사들을 후방에 묶어두고, 위나라 병사들의 갑옷을 가져다 촉나라 병사 5천 명에게 입혀 위나라 군사처럼 위장하게 했다. 그리고는 관흥, 요화, 오반, 오의 네 장수에게 이들을 이끌고 조진의 진영으로 곧장 돌격하라고 명령했다. 먼저 정찰병을 보내 진영 안으로 들어가 "촉나라 군사가 아주 조금밖에 없으니 모두 쫓아버렸습니다"라고 보고하게 하니, 조진은 크게 기뻐했다.

그때 갑자기 사마의 도독이 심복을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조진이 그를 불러 물으니, 그가 말했다. "지금 촉나라 군사가 매복계를 써서 위나라 병사 4천여 명을 죽였습니다. 사마의 도독께서 장군께 전하기를, 지금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니 반드시 마음을 다해 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진이 "내 이곳에는 촉나라 병사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며 그를 돌려보냈다.

그런데 돌연 진량이 병사를 이끌고 돌아왔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조진이 직접 막사 밖으로 나가 그를 맞이하려 하는데, 막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앞뒤 두 곳에서 불길이 치솟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진이 급히 막사 뒤편으로 돌아가 확인해 보니, 관흥, 요화, 오반, 오의 네 장수가 촉나라 군사를 지휘하며 진영 바로 앞에서 몰려들어 공격하고 있었다. 뒤이어 마대와 왕평이 뒤쪽에서 들이닥쳤고, 마충과 장익 역시 병사를 이끌고 공격해 왔다. 위나라 병사들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각자 살길을 찾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여러 장수가 조진을 부축해 동쪽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촉나라 병사들이 바로 뒤까지 쫓아오고 있었다.

조진이 허둥지둥 도망치는데, 갑자기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과 함께 한 무리의 군사가 몰려왔다. 조진이 깜짝 놀라 살펴보니 바로 사마의였다. 사마의가 한바탕 격렬하게 싸우는 사이 촉나라 군사들이 몰려갔고, 조진은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몸 둘 바를 몰랐다.

사마의가 말했다. "제갈량이 기산의 지세를 차지했으니 우리가 이곳에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위빈으로 가서 진을 치고 다시 좋은 계책을 세워야 합니다."

조진이 물었다. "사마의, 그대는 내가 이렇게 대패할 줄 어찌 알았는가?"

사마의가 대답했다. "방금 달려온 전령이 조진 장군님께서서는 촉나라 군사를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보고하더군요. 저는 제갈량이 몰래 기습을 해왔을 것이라 짐작하고 미리 맞서 싸울 준비를 했는데, 과연 계책에 걸려들었습니다. 이제 지난번 내기했던 일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고, 오직 나라를 위해 마음을 모읍시다."

조진은 너무나 당황하고 겁이 난 나머지 병이 생겨 침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군대를 위빈에 주둔시키게 되었으나, 사마의는 군심이 흔들릴까 두려워 조진에게 군사를 이끌게 하지 않았다.

한편, 제갈량이 군사와 말을 크게 몰아 다시 기산으로 출병했다. 군사들을 격려하는 일을 마친 뒤, 위연, 진식, 두경, 장억 네 장수가 막사로 들어와 옆드려 죄를 청했다. 제갈량이 물었다.

"누가 군사를 패하게 만들었느냐?"

위연이 대답했다.

"진식이 명령을 듣지 않고 몰래 골짜기 입구로 들어갔다가 크게 패했습니다."

그러자 진식이 말했다.

"이 일은 위연이 저에게 가라고 시킨 것입니다!"

제갈량이 꾸짖었다.

"위연은 너를 구해주려 했는데, 너는 오히려 그를 탓하는구나! 이미 명령을 어겼으니 변명은 필요 없다!"

제갈량은 즉시 무사들을 시켜 진식을 끌어내어 참수하게 했다. 잠시 후 진식의 머리가 막사 앞에 걸려 모든 장수에게 경고를 보였다. 이때 제갈량이 위연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를 나중에 쓰기 위해 남겨두려는 속셈이었다.

제갈량이 진식을 처형하고 막 진군을 논의하려는데, 갑자기 첩자가 들어와 보고했다. 조진이 병으로 누워 있어 현재 진영에서 치료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제갈량은 크게 기뻐하며 장수들에게 말했다.

"만약 조진의 병이 가뻐다면 반드시 장안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지금 위나라 군사가 물러나지 않는 것을 보니, 병이 중하여 군중에 남아 병사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편지를 한 통

쓸 테니, 진량의 행복한 병사들에게 시켜 조진에게 전하게 하겠다. 조진이 이 편지를 본다면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이어 행복한 병사들을 막사 앞으로 불러 물었다.

"너희는 모두 위나라 군사들이니 부모와 처자가 대부분 중원에 있을 터, 촉나라에 오래 머무는 것은 좋지 않다. 지금 너희를 고향으로 보내 주려 하는데 어떠냐?"

병사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절하고 감사를 표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조자단과 나는 약속한 것이 있다. 내가 쓰는 이 편지를 너희가 가져가서 조자단에게 전한다면 반드시 큰 상을 내리겠다."

위나라 병사들은 편지를 받아 본진으로 달려가 조진에게 바쳤다. 조진은 병중임에도 몸을 일으켜 편지를 뜯어보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나라 승상 무향후 제갈량이 대사마 조자단 앞에 글을 올리노라.

무릇 장수란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고, 부드러움과 강함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하며, 진격과 퇴각을 다스리고 약함과 강함을 부릴 줄 알아야 한다. 움직임은 태산처럼 묵직해야 하고, 그 깊이는 음양처럼 헤아릴 수 없어야 하며, 끝없음은 천지 같고 충실함은 창고와 같아야 한다. 사해처럼 넓고 삼광(세 가지 빛)처럼 눈부셔야 하며, 하늘의 가

몸과 홍수를 미리 알고 땅의 평탄함과 험함을 먼저 알아야 한다. 진영의 형세와 때를 살피고, 적의 장단점을 꿰뚫어 보아야 마땅하다.

슬프다, 배운 것 없는 너 같은 후배여!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나라를 찬탈하려는 반역자를 도와 낙양에서 황제를 자처하는구나! 사곡에서 패잔병을 몰고 도망치다 진창에서 폭우를 만났으니, 물과 육지에서 모두 곤경에 처하고 인마가 미쳐 날뛰는구나! 들판에 가득했던 갑옷과 창칼을 내버리고 땅에 가득한 무기를 버렸으니, 도둑은 간담이 서늘해지고 장군은 쥐새끼처럼 도망치기에 급급하구나! 관중의 어른들을 어찌 뵈는 것이며, 조정의 대청에 어찌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사관이 붓을 들어 기록하고 백성들이 입을 모아 전하리니, 사마의는 진영의 소식에 벌벌 떨고 조진은 바람 소리만 들어도 당황할 것이다!

우리 군사는 병사와 말이 강성하고 대장들은 용맹하게 날뛰니, 진천을 평지로 만들고 위나라를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리라!"

조진은 편지를 다 읽고는 가슴이 분노로 치밀어 올라, 결국 그날 밤 군중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사마의는 군용 수레에 조진의 시신을 실어 낙양으로 보내 장례를 치르게 했다. 위나라 황제가 조진의 죽음을 전해 듣고는 즉시 사마의에게 출전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사마의는 대군을 이끌고 나와 제갈량과 맞붙었으며, 이튿날 먼저 도전장을 보냈다.

제갈량이 장수들에게 말했다. "조진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고는 곧바로 나중예 맞붙을 계획을 적어 내려갔다. 전령이 물러가자, 제

갈량은 그날 밤 강유를 불러 밀명을 내리며 이대로 행하라 일렀고, 이어 관흥을 불러 이래저래 당부했다.

다음 날, 제갈량은 기산에 있는 병사들을 모두 일으켜 위빈까지 진격했다. 한쪽은 강이 흐르고 다른 한쪽은 산이 가로막고 있으며, 그 중앙은 평탄하고 넓은 들판이니 그야말로 싸우기에 딱 좋은 전장이었다! 양 군대가 서로 마주하며 맞붙자, 화살이 빗발치며 진영의 모퉁이를 휩쓸었다. 북소리가 세 번 울리고 난 뒤, 위나라 진영의 중앙 깃발이 열리며 사마의가 말을 타고 나왔고, 여러 장수들이 그 뒤를 이어 나타났다. 제갈량은 수레 위에 단정히 앉아 깃털 부채를 흔들고 있었다.

사마의가 말했다. "우리 주상께서는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선양하신 법을 본받으시어 두 황제에 걸쳐 제위가 전해 내려왔고, 중원을 지키며 촉과 오 두 나라를 용납해 주시는 것은 우리 주상께서 너그러우며 인자하고 덕이 깊어 백성들이 다칠까 염려하시기 때문이다. 너는 남양의 일개 농부 출신으로서 하늘의 뜻도 모르고 억지로 침략하려 하니, 마땅히 멸망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겠다면 즉시 돌아가 각자의 국경을 지키며 솔밭처럼 세 나라의 형세를 이루어라. 그래야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것을 면하고 너희 모두가 목숨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선헌제로부터 고아를 부탁받은 무거운 책임을 맡았으니, 어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도적을 토벌하지 않겠는가? 너희 조씨 일가는 머지않아 한나라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모두 한나라의 신하로서 대대로 한나라의 녹봉을 먹었으면

서도, 보답할 생각은커녕 도리어 찬탈자를 돕고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사마의가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며 말했다. "오늘 너와 승부를 겨루어 우열을 가리겠다! 만약 네가 이긴다면 나는 다시는 대장이 되지 않겠다고 맹세하겠다! 하지만 네가 패한다면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해치지 않는겠다!"

제갈량이 말했다. "그대는 장수로 맞서겠는가, 군사로 맞서겠는가, 아니면 진법으로 맞서겠는가?"

사마의가 대답했다. "먼저 진법으로 겨루어 봅시다."

제갈량이 말했다. "그럼 먼저 진을 펼쳐 보이시오. 내가 보겠소."

사마의가 중군 장막 아래로 들어가 노란 깃발을 손에 들고 휘두르자, 좌우의 군사들이 움직이며 하나의 진을 형성했다. 사마의는 다시 말에 올라 진영 앞으로 나와 물었다. "내 진법을 알아보겠소?"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군의 말단 장수라도 이 정도는 펼칠 수 있소! 이것은 '혼원일기진'이구려."

사마의가 말했다. "그럼 이제 그대가 진을 펼쳐 보이시오."

제갈량이 진을 펼치고 깃털 부채를 한 번 흔든 뒤, 다시 진영 앞으로 나와 물었다. "그대는 내 진법을 알아보겠소?"

사마의가 말했다. "이 '팔괘진'을 어찌 모르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알아보았다면, 감히 내 진을 공격해 보겠소?"

사마의가 말했다. "이미 알아보았으니 어찌 감히 공격하지 못하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그럼 마음대로 덤벼 보시오."

사마의는 본진으로 돌아가 대릉, 장호, 낙림 세 장수를 불러 명령했다. "지금 제갈량이 펼쳐놓은 진법은 휴, 생, 상, 두, 경, 사, 경, 개라는 여덟 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너희 세 사람은 정동쪽의 생문으로 쳐들어간 뒤, 남서쪽의 휴문으로 돌파하여 나와라. 그리고 나서 다시 정북쪽의 개문으로 쳐들어간다면 이 진법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모두 각별히 주의하라!"

말을 마친 뒤 대릉이 가운데에 서고 장호가 앞장서며 낙림이 뒤를 따랐다. 세 장수는 각각 기병 서른 명씩을 이끌고 생문으로 돌격했다. 양측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싸움이 격렬해졌다. 세 장수가 촉나라 진영 안으로 거침없이 쳐들어갔으나, 진법이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겹겹이 쌓여 있어 도무지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 당황한 세 장수는 말을 돌려 진영의 모퉁이를 타고 남서쪽으로 돌파하려 했으나, 이번에도 촉나라 병사들의 화살 세례에 막혀 나아가지 못했다. 진영 안은 층층이 겹쳐 있고 곳곳에 문이 있어 동서남북을 분간하기조차 어려웠다. 세 장수는 서로를 돌볼 겨를도 없이 그저 앞뒤 가리지 않고 부딪치며 헤맸지만, 눈앞에는 오직 짙은 구름과 뿌연 안개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함성이 터져 나올 때마다 위나라 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붙잡혀 중군으로 끌려갔다.

제갈량이 막사 안에 앉아 있는데, 좌우에는 포로로 잡힌 장호, 대릉, 낙림 세 장수와 군졸 아흔 명이 함께 막사 아래 묶여 있었다.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너희를 잡았다고 해서 딱히 놀랄 일도 아니다! 차라리 너희를 풀어 주어 사마의를 만나게 하마. 가서 그에게 병법서를 다시 읽고 전술을 다시 살피라고 전해라. 그때 다시 승부를 겨루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너희 목숨은 살려줄 테니, 대신 군기와 말과 무기는 남겨두어야겠다."

말을 마친 제갈량은 사람들의 갑옷을 벗기고 얼굴에 먹칠을 한 뒤, 맨몸으로 진영을 나섰다. 이를 본 사마의는 크게 분노하며 장수들을 돌아보며 외쳤다.

"이토록 기세를 꺾였으니, 무슨 면목으로 중원의 대신들을 뵈겠느냐!"

사마의는 즉시 삼군에 명령을 내려 죽을힘을 다해 공격을 퍼부었다. 사마의 스스로 칼을 뽑아 들고 백여 명의 용맹한 장수들을 이끌며 앞장 서서 돌격했다. 양측 군대가 막 맞붙으려던 찰나, 갑자기 진영 뒤편에서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한 무리의 군사가 서남쪽에서 몰려와 공격해 왔는데, 바로 관흥이었다. 사마의는 후군을 나누어 이를 막게 하고, 다시 본대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 싸웠다.

그때 갑자기 위나라 군대가 크게 혼란에 빠졌다. 알고 보니 강유가 이끄는 별동대가 몰래 습격해 온 것이었다. 촉나라 군사가 세 갈래 길에서 협공해 들어오자, 사마의는 크게 놀라 급히 퇴각을 명령했다. 촉

군이 사방에서 압박해 오자, 사마의는 삼군을 이끌고 남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돌파해 나갔다. 위나라 군사들은 열에 예닐곱이 쓰러졌다. 사마의는 위빈 남쪽 기슭으로 물러나 진을 치고 굳게 지키며 나오지 않았다.

제갈량이 승전한 군사를 거느리고 기산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영안성의 이엄이 도위 구안을 보내 군량미를 전달하게 했다. 구안은 군중에 도착해 물자를 인도해야 했다. 그런데 구안은 술을 좋아한 탓에 길 위에서 게으름을 피우느라 예정보다 열흘이나 늦어지고 말았다. 제갈량이 크게 노하여 말했다.

"우리 군대에서는 군량을 챙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단 사흘만 늦어도 참형에 처해야 하거늘, 네놈은 무려 열흘이나 늦었으니 대체 무슨 변명을 하겠느냐!"

제갈량이 호통을 치며 즉시 구안을 끌어내어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장사 양의가 나서서 말했다.

"구안은 이엄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서천에서 나오는 막대한 돈과 식량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만약 이 사람을 죽인다면 앞으로 누가 감히 군량을 보내겠습니까?"

제갈량은 그 말을 듣고 무사들에게 명령하여 구안의 결박을 풀게 한 뒤, 곤장 80대를 때리는 것으로 죄를 대신하고 풀어주었다. 구안은 꾸지람을 듣자 마음속에 원한을 품게 되었다. 그는 그날 밤 곤장 친하곶 속을 거느리고 말 대여섯 마리를 몰아 위나라 진영으로 달려가 투항했

다. 사마의가 그를 불러들이자, 구안은 지난 일을 상세히 고했다. 사마의가 말했다.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갈량은 지략이 뛰어난 자이니, 네 말이 사실인지 믿기 어렵구나. 하지만 네가 나를 위해 큰 공을 세운다면, 내가 천자에게 상소하여 너를 상장으로 삼도록 보장하겠다."

구안이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곧장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사마의가 일렀다.

"너는 성도로 돌아가 유언비어를 퍼뜨려라. 제갈량이 황제에게 원망을 품고 있으며, 조만간 스스로 황제가 되려 한다는 소문을 내는 것이다. 만약 황제가 조서를 내려 제갈량을 성도로 불러들이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네 공이 될 것이다."

구안은 승낙한 뒤 곧장 성도로 돌아갔다. 그는 환관들을 만나 제갈량이 큰 공을 세운 것을 믿고 머지않아 나라를 찬탈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이 소식을 들은 환관들은 크게 놀라 즉시 황제에게 들어가 이전의 일들을 상세히 보고했다.

유선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환관이 대답했다. "제갈량에게 성도로 돌아오라는 조서를 내려 병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선은 즉시 조서를 내려 제갈량에게 군사를 거두고 조정으로 돌아오라고 명했다. 그러자 장완이 나아가 아뢰었다. "승상께서는 출병하신 이래로 계속해서 큰 공을 세워 오셨는데, 어찌하여 돌아오라고 명하시는 것입니까?"

유선이 말했다. "짐에게는 반드시 승상과 직접 만나 의논해야 할 기밀한 일이 있다."

그러고는 즉시 사신을 보내 조서를 전달하며, 제갈량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급히 성도로 돌아오도록 했다.

명령이 기산 대채에 도착하자, 제갈량은 이를 받아 조서를 다 읽은 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주상께서 아직 어리시니, 곁에 간신이 분명 있는 것이로구나! 내가 이제 막 공을 세우려 하는데 어찌하여 불리들이는가?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것은 주상을 기만하는 일이나, 만약 명을 받들어 퇴각한다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강유가 물었다. "만약 대군이 퇴각할 때 사마의가 그 기세를 몰아 추격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내가 지금 군사를 물린다면 다섯 갈래로 나누어 퇴각할 수 있다. 우선 오늘 이 진영에서 물러나되, 만약 진영 안에 병사가 천 명이라면 솔을 이천 개 파놓는 것이다. 오늘은 삼천 개를 파고, 내일은 사천 개를 파는 식으로, 매일 군사를 물릴 때마다 솔의 수를 늘려가며 이동하겠다."

양익이 의아해하며 말했다. "옛날 손빈이 방연을 사로잡을 때 병사를 늘리고 술을 줄이는 법을 썼다는데, 지금 승상께서는 퇴각하시면서 어찌하여 술을 늘리려 하십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사마의는 병법에 능하여 내가 퇴각한다는 사실을 알면 반드시 추격해 올 것이다. 하지만 내 군대에 복병이 있다는 의심을 품게 하려면, 그가 예전 진영에 파놓은 술의 개수를 세어보게 해야 한다. 그런데 매일 술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본다면, 병사들은 군사가 물러나는 것인지 아닌지 갈피를 잡지 못할 것이고, 결국 감히 추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천천히 물러나면 병사를 잃는 화를 면할 수 있다."

말을 마친 제갈량은 곧 군사들에게 퇴각 명령을 내렸다.

한편, 사마의는 구안이 계책을 써서 촉군이 물러날 때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몰살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데 한창 고민하던 차에 갑자기 촉군의 진영이 텅 비어 있으며 사람과 말도 모두 떠났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사마의는 제갈량이 워낙 지략이 뛰어난 사람임을 알기에 함부로 추격하지 못했다. 대신 직접 기병 백여 명을 이끌고 촉군의 진영에 들어가 살펴본 뒤, 군사들에게 술의 개수를 세게 하고 본진으로 돌아가게 했다. 다음 날, 다시 군사들을 그 진영으로 보내 술의 개수를 다시 확인하게 했다. 보고가 돌아오기를, "진영 안의 술이 어제보다 또 조금 더 늘었습니다"라고 했다. 사마의가 장수들에게 말했다. "나는 제갈량이 꾀가 많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과연 병력을 늘리고 술의 수도 늘렸구나. 내가 지금 추격한다면 반드시 저놈의 계책에 빠질 것이다. 차라리 일단 물러나서 다른 좋은 방도를 찾는 것이 좋겠다." 그리하여 사마의

는 군사를 돌려 추격을 포기했다. 제갈량은 단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고 무사히 성도를 향해 돌아갔다.

그 후, 천구의 토착민들이 사마의를 찾아와 보고하기를, "제갈량이 퇴각할 때 병사가 늘어난 것은 보지 못했고, 오직 술의 수만 늘어난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했다. 사마의는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제갈량이 우후의 법을 써서 나를 속였구나! 그의 지략은 내가 따라갈 수가 없도다!" 그러고는 대군을 이끌고 낙양으로 돌아갔다.

비슷한 실력을 가진 상대끼리는 승부를 내기 어렵고, 뛰어난 장수는 재능 있는 상대를 만나면 감히 교만하지 못한다.

제갈량이 성도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1회 — 룡상에서 출병하여 제갈량이 신묘한 계책을 꾸미고, 감각으로 달려가 장합이 계책에 빠지다

出隴上諸葛妝神 奔劍閣張郃中計

한편, 제갈량은 병력은 줄이되 아궁이는 늘리는 계책으로 군사를 거두어 한중으로 돌아왔다. 사마의는 혹시라도 매복이 있을까 두려워 감히 추격하지 못하고 군사를 거두어 장안으로 돌아갔으니, 이로써 촉한의 군사들은 단 한 명의 손실도 입지 않았다. 제갈량이 삼군 장병들에게 큰 상을 내린 뒤 성도로 돌아와 후주를 알현하고 아뢰었다.

"노신이 기산을 나와 장안을 취하려 하던 차에, 갑자기 폐하께서 불러들이는 조서를 내리시니 무슨 큰일이 있는 것입니까?"

후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말했다.

"짐이 승상을 본 지도 오래되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특별히 불러들인 것이니, 다른 일은 없소."

제갈량이 말했다.

"이것은 폐하의 본심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 간신들이 저에게 탄마음이 있다고 참소한 것이 분명합니다."

후주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침묵했다. 제갈량이 다시 말을 이었다.

"노신은 선제로부터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니 죽음으로써 보답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라 안에 간사한 무리가 있다면, 신이 어찌 적을 토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후주가 말했다.

"짐이 환관들의 말을 잘못 듣고 잠시 승상을 불러들였소. 이제야 비로소 눈앞의 안개가 걷힌 듯 깨달았으나, 이미 후회해도 늦었구려."

제갈량은 즉시 환관들을 불러 문초하게 하여, 그들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음을 알아냈다. 급히 사람을 보내 그들을 붙잡게 했으나, 이미 위나라로 도망친 뒤였다. 제갈량은 망령된 말을 올린 환관들을 처형하고 나머지는 모두 궁 밖으로 내쫓았다. 또한 장완과 비의 등에게 간신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천자에게 간언하지 못한 책임을 깊이 물었으니, 두 사람은 그저 잘못을 빌며 복종할 뿐이었다.

제갈량이 후주에게 작별을 고하고 다시 한중으로 돌아왔다. 그는 한편으로는 이엄에게 격문을 보내 군량미를 잘 준비하여 전방으로 운반하라고 명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출사 계획을 논의했다.

이때 양의가 말했다. "지난번 군사를 일으켰을 때는 군사들의 기력이 다 빠진 데다 군량마저 끊겼습니다. 이번에는 차라리 병력을 두 반으로 나누어 석 달을 주기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20만 명의 병사가 있다면, 일단 10만 명만 이끌고 기산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머물다 보면 다시 나머지 10만 명과 교대하여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병력이 부족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후에 천천히 진격해 나간다면 중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그대의 말이 참으로 내 뜻과 같구려. 내가 중원을 정벌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끝낼 일이 아니니, 마땅히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오."

제갈량은 즉시 명령을 내려 병력을 두 반으로 나누게 했다. 그리고 100일을 주기로 삼아 서로 교대하며 순환하게 하되, 만약 이 기한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엄격히 군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건흥 9년 봄 2월, 제갈량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를 정벌하러 나섰다. 때는 위나라 태화 5년이였다. 위나라 황제 조예는 제갈량이 다시 중원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사마의를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사마의가 말했다. "이미 자단(조진)이 죽었으니, 신이 한 몸의 힘을 다해 도적을 소탕하여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조예는 크게 기뻐하며 연회를 베풀어 그를 대접했다. 다음 날, 촉한의 군사가 급히 쳐들어왔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조예는 즉시 사마의에게 출정하여 적을 막으라 명하고, 친히 황제의 수레를 배치하여 성 밖까지 배웅했다. 사마의는 조예에게 작별 인사를 고한 뒤 곧장 장안으로 달려가 여러 길의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촉한 군사를 격파할 계책을 논의했다. 장합이

말했다. "제가 한 군대를 이끌고 옹과 미 지역을 지켜 축한 군사를 막아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사마의가 말했다. "우리 앞선 군사만으로는 제갈량의 대군을 홀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군사를 앞뒤로 나누는 것은 승산이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차라리 병사들을 상규에 남겨 지키게 하고, 나머지 군사는 모두 기산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군께서 선봉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장합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저는 평소 충의를 품고 나라에 보답하고 싶었으나 뜻이 맞는 이를 만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이제 도둑께서 이 중책을 맡겨주시니, 만 번 죽는 한이 있어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사마의는 장합을 선봉으로 삼아 대군을 총괄하게 하고, 곽회에게는 농서의 여러 군을 지키게 했다. 나머지 장수들은 각자 길을 나누어 진군했다. 이때 전방의 정찰병이 보고했다. "제갈량이 대군을 이끌고 기산을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선봉인 왕평과 장익은 진창을 나와 검각을 지나 산관을 거쳐 사곡 방면으로 오고 있습니다." 사마의가 장합에게 말했다. "지금 제갈량이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으니, 분명 농서의 익은 밀을 베어 군량으로 삼으려 할 것이요. 장군은 기산에 진을 치고 계시오. 나와 곽회가 천수 지역의 여러 군을 돌아다니며 적군이 밀을 베지 못하도록 막겠소." 장합이 명을 받들고 곧장 4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기산을 지키러 떠났다. 사마의는 대군을 이끌고 농서 방향으로 향했다.

한편, 제갈량이 군사를 이끌고 기산에 도착하여 진영을 다 갖추었을 때, 위변 근처에 이미 위나라 군사가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제갈량이 장수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필시 사마의가 보낸 군사일 것이다. 지금 우리 진영에 식량이 부족하여 이엄에게 계속해서 쌀을 보내라고 재촉했으나, 좀처럼 도착하지 않고 있다. 내 생각에는 농상 지역의 밀이 다 익었으니, 몰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수확해야겠다."

이에 제갈량은 왕평, 장익, 오반, 오의 네 장수에게 기산 진영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강유, 위연 등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노성으로 향했다. 노성의 태수는 평소 제갈량을 잘 알고 있었기에 황급히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했다. 제갈량이 태수를 위로한 뒤 물었다.

"지금 어느 곳의 밀이 익었소?"

태수가 대답했다.

"농상의 밀이 이미 다 익었습니다."

제갈량은 장익과 마충을 노성에 남겨 수비하게 하고, 자신은 장수들과 삼군을 이끌고 농상을 바라보며 나아갔다. 그때 전방의 군사가 돌아와 보고했다.

"사마의가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제갈량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저자가 내가 밀을 수확하러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구나!"

제갈량은 즉시 목욕재계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미리 준비해 둔 네 바퀴 달린 수레 세 대를 끌어냈다. 수레는 모두 똑같이 꾸며져 있었다.

이 수레들은 제갈량이 촉나라에서 미리 만들어 둔 것이었다. 제갈량은 명령을 내려 강유에게 천 명의 군사를 주어 수레를 호위하게 하고, 오백 명에게는 북을 치게 하여 상구 뒤편에 매복시키게 했다. 또한 마대는 왼쪽에, 위연은 오른쪽에 배치하여 각각 천 명의 호위병과 오백 명의 북 치는 병사를 거느리고 수레를 지키게 했다.

수레 한 대당 스물네 명의 병사를 배치했는데, 이들은 검은 옷을 입고 맨발에 머리를 풀어헤친 채 칼을 차고, 손에는 칠성 흑색 깃발을 들고 좌우에서 수레를 밀게 했다. 세 팀의 병사들은 미리 약속된 계획에 따라 수레를 밀며 나아갔다. 제갈량은 또 삼만 명의 군사에게 낮과 짐을 실을 밧줄을 들려 밀을 베포도록 준비하게 했다. 그리고 정예 병사 스물네 명을 따로 뽑아 검은 옷을 입히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칼을 차게 하여, 수레를 밀며 호위하는 사절로 삼았다. 또한 관흥에게는 하늘의 북두칠성 신령과 같은 모습으로 차려입고 칠성 흑색 깃발을 든 채 수레 앞에서 걷게 했다. 제갈량은 수레 위에 단정히 앉아 위나라 진영을 향해 나아갔다.

정찰병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이것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하지 못해 깜짝 놀라, 서둘러 사마의에게 보고했다. 사마의가 직접 진영 밖으로 나가 살펴보니, 제갈량이 관을 쓰고 흰 도포 차림으로 수레 위에 단정히 앉아 부채를 흔들고 있었다. 좌우에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칼을 찬 스물네 명의 사람이 서 있었고, 앞에는 검은 깃발을 든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 같았다. 사마의가 말했다.

"제갈량이 또 괴이한 술수를 부리는구나!"

사마의는 즉시 이천 명의 군사를 뽑아 명령했다.

"너희는 지체 말고 달려가서 수레와 사람을 통째로 모조리 잡아 오너라!"

위나라 군사들이 명령을 받들고 일제히 달려 나갔다. 제갈량은 위나라 군사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는 수레를 돌리게 한 뒤, 멀리 촉나라 진영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위나라 군사들이 말을 몰아 급히 뒤쫓았으나, 어디선가 음산한 바람이 불어오고 차가운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다. 한참을 전력을 다해 달려갔지만 도무지 거리가 좁혀지지 않자, 군사들은 크게 놀라 말머리를 돌리며 말했다.

"이상하도다! 우리가 급히 30리나 달려왔는데, 분명 눈앞에 보였음에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종단 말인가?"

제갈량이 병사들이 쫓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수레를 밀어 보내 위나라 병사들이 있는 방향을 향하게 한 뒤 잠시 멈추게 했다. 위나라 병사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말을 달려 쫓아오자, 제갈량은 다시 수레를 돌려 천천히 나아갔다. 위나라 병사들이 다시 20리나 쫓아갔지만, 눈앞에 보일 뿐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 모두가 뉘이 나간 듯 멍하니 바라만 보았다. 제갈량이 수레를 돌려 위나라 병사들을 향해 뒷걸음질로 밀게 하자, 위나라 병사들이 다시 추격하려 했다.

그때 뒤쪽에서 사마의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며 명령을 내렸다. "제갈량은 팔문둔갑에 능하여 육정육갑의 신들을 부릴 줄 안다. 지금 저것은 천서에 기록된 '촉지법'이니, 모든 군사는 절대 뒤쫓지 마라!"

군사들이 막 말을 돌려 물러나려는데, 왼쪽 아래에서 북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한 무리의 군사가 습격해 왔다. 사마의가 급히 병사들에게 막으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축한 병사 24명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검은 채, 검은 옷을 입고 맨발로 한 대의 사륜차를 호위하며 나오고 있었다. 수레 위에는 제갈량이 관을 쓰고 학의 깃털로 만든 도포를 입은 채 단정히 앉아 부채를 흔들고 있었다.

사마의가 크게 놀라 외쳤다. "방금 그 수레에 앉아 있던 제갈량이 50리나 달아나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는데, 어찌하여 여기에 또 제갈량이 있단 말인가! 괴이하구나, 참으로 괴이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른쪽 아래에서 다시 북소리가 울리며 한 무리의 군사가 달려들었다. 그런데 그 사륜차 위에도 제갈량이 앉아 있었고, 좌우에는 역시 검은 옷을 입고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친 채 검은 채 24명의 병사가 수레를 호위하며 오고 있었다. 사마의는 마음속으로 크게 의심하며 장수들을 돌아보고 말했다. "저것은 필시 신비로운 군사들이 틀림없다!"

군사들은 마음이 크게 흔들려 감히 싸우지 못하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전투가 한창 진행되던 그때, 갑자기 북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또 다른 군사 한 무리가 들이닥쳤다. 맨 앞에는 사륜차가 한 대 달려오고 있었는데, 제갈량이 그 위에 단정히 앉아 있었고 좌우에서 수레를 미는 사신들도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 위나라 병사들은 모두 겁에 질려 경악했다. 사마의는 눈앞의 존재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촉나라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 수 없어 몹시 두려워하며 급히 군사를 이끌고 상구성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걸고 나오지 않았다.

그사이 제갈량은 이미 3만 명의 정예병을 시켜 농상 지역의 밀을 모두 수확하게 한 뒤, 노성으로 운반하여 말리고 있게 해둔 상태였다. 사마의는 상구성 안에서 사흘 동안 감히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다가, 나중에 촉나라 군사가 물러가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군사를 내보내 정찰하게 했다.

정찰 중에 촉나라 병사 한 명을 붙잡아 사마의 앞에 데려왔다. 사마의가 그에게 물었다. 그러자 병사가 대답했다. "저는 밀을 베던 사람인데, 말을 잃어버리고 헤매다 붙잡혔습니다." 사마의가 다시 물었다. "아까 본 그 신비로운 군사는 대체 무엇이었느냐?" 병사가 답했다. "세 갈래로 나타난 복병들은 제갈량이 아니라 강유, 마대, 위연이었습니다. 각 부대마다 수레를 호위하는 병사 천 명과 북을 치는 병사 오백 명 뿐이었습니다. 다만 처음에 진을 흔들기 위해 앞장섰던 수레에 제갈량이 타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마의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길게 탄식했다. "제갈량은 정말 신출귀몰한 재주를 가졌구나!"

이때 부도독 곽희가 들어왔다는 보고가 들려와 사마의가 그를 맞이했다. 곽희가 말했다. "촉나라 군사가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노성에서 밀을 말리고 있으니 그곳을 공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마의가 방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곽희가 웃으며 말했다. "잠시 속아 넘어간 것뿐입니다. 이제 정체를 알았으니 대수롭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갈래 군사를 이끌고 뒤를 공격할 테니, 장군께서는 한 갈래로 앞을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노성을 함락시키고 제갈량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의가 그 말에 동의하여 즉시 군사를 두 갈래로 나누어 출동했다.

한편, 제갈량이 군사를 이끌고 노성에서 밀을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장수들을 불러 명령을 내렸다.

"오늘 밤 적들이 반드시 성을 공격하러 올 것이다. 내 짐작에 노성 동서쪽 밀밭 안에 복병을 매복시키기에 충분할 듯하니, 누가 감히 나를 위해 앞장서겠는가?"

그러자 강유, 위연, 마대, 마충 네 장수가 나서며 말했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제갈량이 크게 기뻐하며 강유와 위연에게 각각 이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동남쪽과 북서쪽에 매복하라고 명했다. 이어 마대와 마충에게도 각각 이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서남쪽과 북동쪽에 매복하라고 명령하며 덧붙였다.

"대포 소리가 들리면 네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라."

네 장수는 명령을 받고 병사들을 이끌고 떠났다. 제갈량은 직접 백여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화포를 챙겨 성 밖으로 나가 밀밭 안에 매복하며 때를 기다렸다.

한편, 사마의가 군사를 이끌고 곧장 노성 아래에 이르니 날이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사마의가 장수들에게 말했다. "대낮에 군사를 움직이면 성안에서 반드시 대비를 했을 것이다. 지금은 밤을 틈타 공격해야 한다. 이곳은 성벽이 낮고 해자도 얕으니 쉽게 함락할 수 있다." 말을 마친 사마의는 성 밖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첫 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릴 무렵, 곽회도 군사를 이끌고 도착했다. 두 군대가 힘을 합쳐 북소리를 울리며 공격을 시작하자, 노성은 사방에서 철통같이 포위되었다. 성 위에서는 만 개의 노가 일제히 화살을 쏘아 올렸고, 돌과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지니 위나라 군사들은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위나라 진영에서 신호탄이 연달아 터지자, 삼군이 크게 놀라 어찌 된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어디선가 병사들이 몰려왔다. 곽회가 사람을 보내 밀밭을 수색하게 하니, 밀밭 네 모퉁이에서 불길기하늘을 찌를 듯 솟구치고 함성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촉나라 병사 네 갈래가 일제히 들이닥쳤고, 노성의 네 성문이 활짝 열리며 성안의 병사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안팎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으니 위나라 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수없이 죽어나갔다.

사마의는 패퇴하는 군사들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싸우며 포위망을 뚫고 나와 산등성이를 점령했고, 곽회 역시 패한 군사들을 이끌고 산 뒤로 달려가 진을 쳤다. 제갈량은 성안으로 들어간 뒤, 네 명의 장수에게 밀밭 네 모퉁이 아래에 진영을 구축하도록 명령했다.

곽희가 사마의에게 말했다. "지금 촉한의 군사와 오랫동안 대치하고 있으나 물러날 방도가 없습니다. 게다가 방금 전 전투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 삼천여 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지금 서둘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물러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마의가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곽희가 대답했다. "옹주와 양주의 군마를 불러 모아 힘을 합쳐 적을 소탕하도록 격문을 보내야 합니다. 저는 군사를 이끌고 검각을 습격하여 적의 퇴로를 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의 군량 보급을 막으면 촉한의 삼군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때 기세를 몰아 공격하면 적을 멸할 수 있습니다."

사마의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즉시 격문을 보내 밤낮없이 옹주와 양주에 병력을 요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장 손례가 여러 군의 병력을 이끌고 도착했다. 사마의는 곧바로 손례에게 곽희와 약속을 정하여 검각을 습격하게 했다.

한편, 제갈량은 노성에서 오랫동안 버텼으나 위나라 군사가 싸우려 나오지 않자, 마대와 강유를 성 안으로 불러 명령을 내렸다.

"지금 위나라 군사들이 험한 지형을 지키며 나와 싸우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하나는 우리의 밀이 떨어져 식량이 바닥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병사를 보내 검각을 습격해 우리의 보급로를 끊으려는 것이다. 너희 두 사람은 각각 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먼저 가서 요충지를 지켜라. 위나라 군사가 우리가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히 물러갈 것이다."

두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떠나자, 장사 양의가 막사로 들어와 보고했다.

"조금 전 승상께서 대군을 백 일마다 교대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어느덧 그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한중에서 출발한 병사들은 이미 사천 관문에 도착하여 공문을 보내왔으니, 이제 군사 교대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팔만 군사 중 사만 명은 교대해야 합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이미 명령이 내려졌으니, 즉시 시행하라."

군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저마다 짐을 챙겨 길을 떠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손례가 옹주와 양주의 군마 20만 명을 이끌고 원군으로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들은 검각을 기습하려 하고, 사마의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노성을 공격해 오고 있다는 급보였다. 촉나라 군사들은 모두 경악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양의가 제갈량에게 들어가 말했다. "위나라 군사가 너무 급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승상께서는 교대할 병력을 잠시 남겨두어 적을 막아 내시고, 새로 도착할 병력이 오면 그때 교대하십시오."

제갈량이 대답했다. "그럴 수는 없네. 내가 병사를 부리고 명령을 내릴 때는 신의를 근본으로 삼는다네. 이미 내린 명령이 있는데 어찌 신의를 저버릴 수 있겠는가? 게다가 돌아가기로 예정된 촉나라 병사들은 모두 귀가할 채비를 마쳤고, 그들의 부모와 처자식은 집 문앞에서 돌아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네. 지금 내게 큰 난관이 닥쳤다고 해서 결코 그들을 붙잡아 두지는 않을 것이네."

말을 마친 제갈량은 즉시 명령을 내려, 돌아가기로 했던 병사들에게 당일에 바로 출발하라고 일렀다. 군사들이 이 말을 듣고는 모두 크게 외쳤다. "승상께서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니, 저희는 차라리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기꺼이 목숨을 걸고 위나라 군사를 크게 물리쳐 승상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제갈량이 다시 말했다. "그대들은 마땅히 집으로 돌아가야 하거늘, 어찌하여 이곳에 머물러 하는가?"

그러나 군사들은 모두 전쟁에 나가고 싶어 하며 집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자 제갈량이 말했다. "정녕 나와 함께 싸우고자 한다면, 성 밖으로 나가 진영을 치도록 하라. 위나라 군사가 도착하면 그들이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즉시 몰아쳐 공격하라. 이것이 바로 편안한 상태에서 지친 적을 기다려 공격하는 방법이다."

병사들은 명령을 받들고 무기를 챙겨 기쁜 마음으로 성 밖으로 나가 진을 치고 적을 기다렸다.

한편, 서량의 군마들이 길을 재촉하여 강행군으로 달려오느라 병사들은 몹시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다. 그들이 막 진영을 치고 쉬려던 찰나, 촉나라 군사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며 공격해 왔다. 촉나라 병사들은 저마다 용맹을 떨치며 날카로운 무기로 몰아붙였고, 이에 옹주와 양주의 군사들은 적의 기세를 당해내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기 바빴다. 촉나라 군사들은 힘차게 추격하며 사냥하듯 몰아쳤으니, 도망치던 옹주

와 양주의 병사들이 들판에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도랑처럼 흐를 정도로 처참하게 죽어 나갔다.

제갈량이 성 밖으로 나가 승리한 군사들을 수습한 뒤, 성 안으로 들어가 공을 세운 이들을 격려하며 상을 내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영안에 있는 이엄이 긴급한 보고를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제갈량이 크게 놀라 서신을 뜯어보니, 내용은 이러했다.

"최근 동오에서 사람을 보내 낙양에 들어가 위나라와 손을 잡으려 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위나라가 동오를 시켜 촉나라를 대신 치게 하려는 속셈인 듯하나, 다행히 아직 동오가 군사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다. 제가 정황을 살펴 알아낸 바이니, 승상께서는 부디 조속히 좋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갈량이 내용을 다 읽고 나니 몹시 놀랍고 의심스러웠다. 그는 즉시 장수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만약 동오가 군사를 일으켜 촉을 침공한다면, 나는 서둘러 돌아가야 한다." 그러고는 곧바로 명령을 내려, 기산의 대영채에 있는 군사들에게 서천으로 퇴각하라고 일렀다. "사마의는 내가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감히 뒤쫓아 오지 못할 것이다." 이에 왕평, 장익, 오반, 오의가 병력을 두 갈래로 나누어 천천히 서천으로 물러갔다.

장합은 촉나라 군대가 물러가는 것을 보고 혹시 어떤 계략이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 감히 추격하지 못했다. 그는 군사를 이끌고 사마의를 찾아가 말했다.

"지금 축나라 군대가 물러갔는데, 대체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마의가 대답했다.

"제갈량은 궤계가 매우 많으니 가볍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성을 굳게 지키며 저들의 식량이 다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저들은 자연히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자 대장 위평이 나서서 말했다.

"축나라 군대가 기산의 진영을 버리고 물러갔으니, 지금이야말로 승세를 몰아 추격할 적기입니다. 도둑떼서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축나라를 호랑이 두려워하듯 피하시니, 천하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마의는 완강하게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제갈량은 기산의 군사들이 이미 철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마충과 양의를 막사로 불러 비밀스러운 계책을 일러주었다. "먼저 궁수 만 명을 이끌고 검각의 목문도로 가서 양쪽 길목에 매복해 있거라. 만약 위나라 군사가 추격해 오면, 내 포성 소리가 들리는 즉시 나무와 돌을 굴려 그들의 길을 먼저 막고, 양쪽에서 일제히 화살을 퍼부어라." 두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떠나자, 제갈량은 다시 위연과 관흥을 불러 후방을 지키게 했다. 그러고는 성벽 사방에 깃발을 뿔뿔이 꽂고, 성 안에는 땀감을 잔뜩 쌓아둔 뒤 헛되이 연기와 불꽃을 피워 올렸다. 대군이 모두 목문도 방향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속임수였다.

위나라 진영의 순찰병이 달려와 사마의에게 보고했다. “촉나라 대부대가 이미 퇴각했습니다. 하지만 성 안에 병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마의가 직접 성안을 살피러 가보니, 성벽 위에는 깃발이 꽂혀 있고 성안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마의는 이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곳은 빈 성이로구나.”

사마의가 사람을 보내 살펴보게 하니, 과연 빈 성이었다. 사마의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제갈량이 이미 물러갔으니, 누가 감히 그 뒤를 쫓겠는가?”

그러자 선봉장인 장합이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사마의가 만류하며 말했다. “장합 장군은 성격이 급하니 가면 안 됩니다.”

장합이 말했다. “도둑께서 관문을 나서실 때 저를 선봉으로 임명하셨지 않습니까? 오늘이야말로 공을 세울 절호의 기회인데, 어찌 저를 쓰지 않으려 하십니까?”

사마의가 말했다. “촉나라 군사가 물러갔다면 험한 지형에 분명 매복이 있을 것이니,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뒤를 쫓을 수 있습니다.”

장합이 말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마의가 다시 말했다. “정 가고 싶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오.”

장합이 외쳤다. “대장부로서 몸을 바쳐 나라에 보답할 수 있다면, 만 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사마의가 말했다. “정 가겠다면 우선 병사 5천 명을 이끌고 먼저 나가시오. 대신 위평에게 기병과 보병 2만 명을 거느리고 뒤따르게 하여 매복에 대비하게 하시오. 나는 직접 병사 3천 명을 거느리고 뒤에서 지원하겠소.”

장합은 명령을 받고 즉시 군사를 이끌고 급히 추격했다. 30여 리쯤 달려갔을 때, 갑자기 뒤편에서 엄청난 함성이 울려 퍼지더니 숲속에서 군사 한 무리가 튀어나왔다. 그 선두에 선 장수가 칼을 옆으로 뉘어 말을 멈춰 세우며 크게 외쳤다. "적장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장합이 고개를 돌려 보니 바로 위연이었다. 장합은 크게 노하여 말을 돌려 맞붙어 싸웠다. 열 합을 채 못 되어 위연은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달아났다. 장합이 다시 30여 리를 추격하다가 말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으나 복병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장합은 다시 말을 몰아 앞을 향해 나아갔다.

산고개를 막 넘었을 때, 갑자기 다시 함성이 터져 나오더니 또 다른 군사 무리가 나타났다. 선두에 선 장수는 바로 관흥이었다. 그는 칼을 옆으로 뉘어 말을 멈춰 세우고 크게 소리쳤다. "장합, 멈춰라! 내가 여기 있다!" 장합이 즉시 말을 달려 맞붙어 싸웠으나, 열 합을 넘기지 못하고 관흥이 말을 돌려 달아났다. 장합은 그 뒤를 쫓았다.

장합이 울창한 숲에 다다르자 의구심이 생겨 부하들에게 사방을 정찰하게 했으나 복병은 없었다. 그제야 안심하고 다시 추격하던 장합은

뜻밖에도 위연이 다시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장합이 다시 열 합 넘게 싸웠으나 위연은 또 패한 척하며 달아났다. 장합이 분노하며 쫓아갔으나, 이번에는 관흥이 다시 길을 가로막으며 나타났다. 장합이 크게 노하여 말을 몰아 맞붙어 싸웠는데, 열 합쯤 싸우던 중 측나라 군사들이 옷과 갑옷, 각종 물건들을 길 위에 마구 버리고 달아나는 바람에 길이 가득 메워졌다. 위나라 군사들은 모두 말에서 내려 그 물건들을 차지하려고 다투기 시작했다.

위연과 관흥, 두 장수가 번갈아 가며 전투를 벌였다. 장합은 용맹하게 군사를 몰아 추격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목문도 입구에 이르자, 위연이 말머리를 돌리며 크게 소리쳤다.

"역적 장합아! 나는 너와 맞서 싸우지 않겠다! 너는 그저 달려오기만 해라. 내가 오늘 너와 생사를 결정짓겠다!"

장합은 몹시 분노하여 창을 치켜들고 말을 몰아 위연을 향해 돌진했다. 위연도 칼을 휘두르며 맞서 싸웠다. 그러나 열 합을 채 버티지 못하고 위연이 크게 패했다. 위연은 갑옷과 투구, 말까지 모두 버려둔 채 패잔병을 이끌고 목문도 안쪽으로 도망쳤다.

장합은 기세가 올라 위연이 패하여 달아나는 것을 보고는 더욱 거세게 말을 몰아 뒤쫓았다. 이때 마침 날이 어둑어둑해졌는데, 갑자기 포성 한 번이 울리더니 산 위에서 불길이 하늘을 찌를 듯 솟구쳤다. 커다란 바위와 땔나무들이 굴러 떨어지며 길을 막아섰다. 장합이 크게 놀라 외쳤다.

"아차, 계략에 빠졌구나!"

그가 급히 말머리를 돌리려 했으나, 이미 뒤쪽 길은 나무와 돌로 꽉 막혀버린 상태였다. 가운데에 겨우 빈터가 조금 있을 뿐 양옆은 모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라 장합은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었다. 그때 갑자기 딱딱거리는 신호 소리가 들리더니, 양쪽에서 만 개의 노가 일제히 발사되어 장합과 백여 명의 부하 장수들을 목문도 안에서 모두 화살로 쏘아 죽였다.

후세 사람들이 시로 읊기를 다음과 같다.

"매복한 노가 만 개의 별처럼 날아올라, 목문도에서 용맹한 군사를 쏘아 맞췄네. 오늘날 검각을 지나는 이들이 여전히, 승상께서 남기신 그 명성을 이야기하네."

한편, 장합이 죽자 뒤따라오던 위나라 군사들이 길을 가로막힌 것을 보고 장합이 계략에 빠졌음을 알아차렸다. 군사들은 급히 말머리를 돌려 퇴각했다. 그때 갑자기 산 위에서 "제갈 승상이 여기 있다!" 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위나라 군사들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제갈량이 불길 속에 서서 군사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늘 사냥을 하려다 말을 쏘려던 것이 그만 노루를 맞혔구나. 너희는 각자 마음 편히 돌아가거라. 사마의에게 전하기를, 조만간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사로잡으러 갈 것이라고 말이다."

위나라 군사들이 돌아가 사마의에게 이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사마의는 슬픔을 금치 못하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장준의가 죽었으니, 이는 모두 나의 잘못이다!" 사마의는 결국 군사를 거두어 낙양으로 돌아갔다. 위나라 황제 조예도 장합의 전사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사람을 보내 그의 시신을 수습해 정중히 장례를 치러주었다.

한편, 제갈량이 한중으로 들어온 뒤 성도로 돌아가 후주를 알현하려 했다. 이때 도호 이엄이 후주에게 망령된 상소를 올렸다. "신이 이미 군량을 준비하여 승상에게 보내려 하였는데, 승상께서 어찌하여 갑자기 군사를 돌려 퇴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주는 즉시 상서 비의를 한중으로 보내 제갈량을 만나 퇴각하는 이유를 물으라고 명했다.

비의가 한중에 도착해 후주의 뜻을 전하자, 제갈량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이엄이 급보를 보내 동오가 촉나라를 침공하려 한다기에 그 때문에 회군한 것이요." 비의가 대답했다. "이엄은 군량이 이미 준비되었는데 승상께서 아무 이유 없이 군사를 돌리셨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천자께서 저를 보내 그 이유를 묻게 하신 것입니다."

제갈량은 크게 노하여 사람을 시켜 사실을 조사하게 했다. 알고 보니 이엄은 군량이 부족해지자 제갈량에게 죄를 물을까 두려워, 급보를 보내 군사를 불러들인 뒤 천자에게는 거짓 보고를 하여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했던 것이다. 제갈량이 분노하며 외쳤다. "일개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국가의 중대사를 그르치다니!" 그는 즉시 이엄을 불러와 처형하려 했다.

비의가 제갈량을 만류하며 말했다. "승상, 선제께서 고아를 맡기셨던 뜻을 생각하여 잠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갈량이 그 말을 따르자, 비의는 곧바로 표문을 작성해 천자에게 올렸다. 표문을 읽은

후주는 불같이 화를 내며 무사들을 시켜 이엄을 끌어내 처형하라고 호통쳤다.

이때 참군 장완이 나아가 아뢰기를, "이엄은 선제께서 고아를 맡기실 때 함께했던 신하이니, 부디 은혜를 베풀어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했다. 후주는 그 말을 받아들여 이엄을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자동 지역으로 유배 보냈다.

제갈량이 성도로 돌아온 뒤, 이엄의 아들 이풍을 장사로 삼았다. 그는 풀을 쌓아 군량을 비축하고, 진법을 논하며 무예를 닦았으며, 군기를 정비하고 장병들을 정성껏 돌보았다. 그렇게 3년이 흐른 뒤에야 다시 정벌을 떠났다. 익주와 성도의 백성과 군사들은 모두 그의 은덕을 우러러보았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건흥 12년 봄 2월, 제갈량이 조정에 나아가 다음과 같이 상소했다. "신이 군사들을 돌보며 정성을 다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군량은 풍족하고 무기는 완비되었으며, 군사와 말의 기세도 당당하니 위나라를 정벌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간사한 무리를 쓸어버리고 중원을 되찾지 못한다면, 결코 폐하를 뵙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유선이 말했다. "지금 이미 삼국이 술발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고, 오나라와 위나라 모두 우리를 침공해오지 않는데, 상부께서는 어찌하여 태평성대를 누리지 않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 하십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신은 선제(유비)로부터 깊은 은혜를 입었기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위나라를 정벌할 계책을 세우지 않은 적이 없습니

다. 온 힘을 다해 충성을 다함으로써 폐하를 위해 중원을 되찾고 한나라의 위업을 다시 세우는 것이 신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조정 관리 중 한 사람이 나서며 말했다. "승상, 군사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니, 그는 바로 초주였다. 과연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다.

'무후는 나라 걱정애 온 힘을 다하고, 태사는 기회를 살피 하늘의 뜻을 논하는구나.'

과연 초주가 어떤 논리로 반대할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진다.

제102회 — 사마의가 북원의 위교를 점 령하고, 제갈량이 목우유마를 만들다

司馬懿占北原渭橋 諸葛亮造木牛流馬

한편, 태사직을 맡고 있어 천문에 밝았던 초주는 제갈량이 다시 출병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후주에게 상소를 올렸다.

"신은 지금 천문을 살피는 직책을 맡고 있으니, 화가 될 만한 징조가 있다면 마땅히 아뢰어야 합니다. 최근 수만 마리의 새 떼가 남쪽에서 날아와 한수에서 죽는 일이 있었으니, 이는 불길한 징조입니다. 또한 하늘의 형상을 살피건대, 규성(奎星)이 태백성 근처에 머물러 있어 북쪽의 기운이 성하니 위나라를 치는 데 불리합니다. 게다가 성도 백성들 사이에서는 밤마다 측백나무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재앙의 징조가 있으니, 승상은 부디 경거망동하지 말고 신중히 수비에 힘써야 합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나는 선제께서 고아를 맡기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으니, 마땅히 힘을 다해 적을 토벌해야 합니다. 어찌 근거 없는 재앙의 기운 때문에 국가의 대사를 그르칠 수 있겠습니까?"

제갈량은 곧바로 관련 부서에 명하여 유비의 사당에 정성스러운 제사를 지내게 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리고 다음과 같이 고했다.

"신 제갈량은 다섯 번이나 기산으로 출병했으나 아직 땅 한 뼘도 얻지 못했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 신이 다시 전 군을 이끌고 기산으로 나아가려 하니, 온 힘과 마음을 다해 한나라의 도적들을 소탕하고 중원을 회복하겠습니다. 몸이 부서져 죽을 때까지 오직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제사를 마친 제갈량은 후주에게 작별을 고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중으로 달려가 장수들을 모아 출병을 논의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관흥이 병으로 사망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제갈량은 목놓아 통곡하다가 땅에 쓰러졌고,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장수들이 거듭 위로하며 달랬으나 제갈량은 탄식하며 말했다.

"충의를 다하는 자가 참으로 가련하구나. 하늘이 수명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이번 출병에 또 한 명의 대장을 잃었도다!"

후세의 사람들이 시로 그를 탄식하며 읊었다.

"삶과 죽음은 사람의 상도이니, 하루살이처럼 덧없는 것. 다만 충성과 효도, 절개를 남겼으니, 어찌 반드시 장수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갈량은 촉한의 군사 34만 명을 이끌고 다섯 갈래로 나누어 진격했다. 강유와 위연을 선봉으로 삼아 기산으로 나가 적을 치게 했고, 이회에게는 사곡도 입구에서 군량과 군수품을 운반하며 대기하도록 명했다.

한편, 위나라는 지난해 모파정 우물에서 청룡이 나타난 것을 기념하여 연호를 청룡 원년으로 고쳤으니, 때는 청룡 2년 봄 2월이었다. 이때 가까운 신하가 나아가 보고했다. “변방의 관리로부터 급보가 왔습니다. 촉나라 군사 30여 만이 다섯 갈래로 나누어 다시 기산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나라 황제 조예는 크게 놀라 급히 사마의를 불러 물었다. “촉나라 사람들이 3년 동안 침범하지 않더니, 이제 제갈량이 다시 기산으로 나왔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사마의가 대답했다. “신이 밤에 천문을 살피니, 중원의 왕성한 기운이 한창 성하고 규성(奎星)이 태백성(太白)을 범하고 있으니 서천(촉나라)에는 불리한 징조입니다. 지금 공명이 자신의 재주만 믿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하니, 이는 스스로 패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폐하의 큰 복을 빌며 신이 가서 저들을 격파하겠습니다. 다만 신이 네 사람을 데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조예가 물었다. “경이 말하는 네 사람이 누구인가?”

사마의가 말했다. “하후연에게는 네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이 패이고 자는 중권이며, 둘째는 위이고 자는 계권이며, 셋째는 헤이고 자는 아권이며, 넷째는 화이고 자는 의권입니다. 패와 위 두 사람은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숙하고, 혜와 화 두 사람은 병법에 밝습니다. 이 네 사람은 평소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를 갈망해 왔습니다. 신이 이번에 하후패와 하후위를 좌우 선봉으로 삼고, 하후혜와 하후화를 행군사마로 삼아 함께 군사를 도와 촉나라 군사를 물리치고자 합니다.”

조예가 말했다. “예전에 부마 하후무가 군사 작전을 그르쳐 많은 병사와 말을 잃고 지금까지 부끄러워하며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네 사람도 하후무와 같지는 않겠소?”

사마의가 답했다. “이 네 사람은 하후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재들입니다.”

조예는 사마의의 청을 받아들여 즉시 그를 대도독으로 임명하고, 모든 장수와 병사를 재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각지의 병마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하였다. 사마의는 명을 받들고 조회를 마친 뒤 성을 나섰다. 조예는 다시 밀지를 내려 사마의에게 전했다.

“경이 위수 근처에 도착하면 마땅히 성을 굳게 지키고 방어에 힘써야 하며, 적과 맞서 싸우지 마시오. 촉나라 군사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거짓으로 후퇴하며 적을 유인할 것이니, 경은 절대 추격하지 마시오. 적의 군량이 다 떨어져 스스로 물러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허점을 찔러 공격한다면 승리를 거두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며 군마가 지치는 고생도 면할 수 있을 것이오. 이보다 더 좋은 계책은 없을 것이오.”

사마의는 머리를 조아리며 조서를 받들고, 즉시 장안으로 가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군마를 불러 모았다. 모인 군사는 모두 40만 명에 달했

으며, 모두 위수 기슭에 진을 쳤다. 또한 5만 명의 군사를 따로 뽑아 위수에 아홉 개의 띄우는 다리인 부교를 놓게 한 뒤, 선봉장인 하후패와 하후위를 위수로 건너가 진을 치게 했다. 그리고 나서 대영 뒤편 동쪽 언덕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성 하나를 쌓았다. 사마의가 장수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때, 갑자기 곽회와 손례가 찾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사마의가 그들을 맞이하여 인사를 마친 뒤였다. 곽회가 말했다. "지금 촉나라 군사는 모두 기산에 있습니다. 만약 저들이 위수를 건너 언덕을 넘고 북산과 이어지는 길목을 점령하여 농서로 가는 길을 끊어버린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사마의가 대답했다. "그대의 말이 매우 옳소. 그대는 농서 지역의 군마를 총괄하여 북쪽 언덕에 진을 치도록 하시오. 깊은 해자를 파고 높은 성벽을 쌓아 군사를 배치한 채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다가, 저들의 군량이 다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때 공격하도록 하시오." 곽회와 손례는 명을 받들어 군사를 이끌고 진을 치러 떠났다.

한편, 제갈량은 다시 기산으로 나아가 좌, 우, 중, 전, 후의 다섯 진영을 갖추고 대규모 진을 쳤다. 사곡에서 검각에 이르기까지 연달아 열네 개의 진영을 더 구축하여 군사를 나누어 배치함으로써 장기전을 대비하고, 매일 순찰을 돌리게 했다. 그러던 중, 곽회와 손례가 농서의 군사를 이끌고 북원에 진을 쳤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제갈량이 장수들에게 말했다. "위나라 군사가 북원에 진을 친 것은, 내가 이 길을 통해 농서로 가는 길목을 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북원을 허투루 공격하는 척하면서, 몰래 위수 가로 접근할 것이다. 사람을 시켜 뗏목 백여 척을 만들게 하고 그 위에 짚단들을 싣

게 하라. 그리고 물길에 익숙한 사공 오천 명을 뽑아 이를 운반하게 하라. 우리는 한밤중에 북원을 공격할 것인데, 그러면 사마의가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올 것이다. 만약 적이 조금이라도 패하여 흔들린다면, 우리는 후군을 먼저 강 건너로 건네보낸 뒤, 전군은 뗏목에 올라타게 하라. 이때 절대 육지로 올라오지 말고, 물길을 따라 부교로 가서 불을 질러 끊어버림으로써 적의 후방을 공격해야 한다. 나는 직접 한 부대를 이끌고 적의 앞 진영 문을 공격하겠다. 만약 위수 남쪽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진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장수들은 모두 명령을 받들어 실행에 옮겼다.

순찰군이 벌써 사마의에게 급보를 전했다. 사마의가 장수들을 불러 모아 의논하며 말했다. "제갈량이 이토록 치밀하게 준비한 것을 보니 분명 속셈이 있다. 북원을 공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물길을 따라 부교를 불태움으로써 우리의 후방을 어지럽히고, 실제로는 전방을 공격하려는 속셈이다."

사마의는 즉시 하후패와 하후위에게 명령을 내렸다. "만약 북원에서 함성이 들리면, 즉시 군사를 이끌고 위수 남쪽 산속으로 들어가 축한 군사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격퇴하라."

또한 장호와 낙렴에게는 이천 명의 궁수와 노수를 거느리고 위수 부교의 북쪽 기슭에 매복하게 하며 명령했다. "만약 축한 군사가 뗏목을 타고 물길을 따라 내려온다면, 한꺼번에 화살을 퍼부어라. 절대로 다리 가까이 접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어 곽회와 손례에게도 명령을 내렸다. "제갈량이 복원을 공격하는 척하며 위수를 몰래 건너려 할 것이다. 너희가 새로 세운 진영은 병력과 군마가 많지 않으니, 모두 길목에 매복하고 있어라. 만약 축한 군사가 오후에 물을 건너 황혼 무렵에 너희를 공격해 온다면, 거짓으로 패하는 척하며 달아나라. 그러면 축한 군사는 반드시 추격해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모두 활과 노를 쏘아라. 나는 수로와 육로로 동시에 진격하겠다. 만약 축한 군사가 대규모로 몰려오면, 오직 나의 지휘에 따라 움직여라."

각지에 명령을 모두 마친 사마의는 두 아들인 사마사와 사마소에게 군사를 이끌고 앞 진영을 구원하러 가라고 일렀다. 그리고 사마의 자신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복원을 구원하러 나섰다.

한편, 제갈량은 위연과 마대를 보내 위수를 건너 복원을 공격하게 하고, 오반과 오의에게는 뗏목 부대를 이끌고 가서 부교를 불태우게 했다. 또한 왕평과 장익을 전대로, 강유와 마충을 중대로, 요화와 장익을 후대로 삼아 세 갈래로 군사를 나누어 위수의 육상 진영을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그날 정오 무렵, 군사와 말들이 큰 진영을 떠나 위수를 모두 건너 진을 치고 천천히 진격하기 시작했다.

한편, 위연과 마대가 복원에 가까워졌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이때 손례가 보초를 서다 적을 발견하고는 즉시 진영을 버리고 달아났다. 위연은 적이 이미 대비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급히 군사를 물리려 했으나, 사방에서 큰 함성이 울려 퍼지며 좌측에는 사마의가, 우측에는 곽회가 두 갈래로 몰려온다는 외침이 들려왔다. 위연과 마대가 힘껏 싸우며 돌파하려 했으나, 축한 군사들은 대부분 강물에 빠

졌고 남은 병사들은 도망칠 길조차 찾지 못했다. 다행히 오의의 부대가 달려와 패퇴하는 병사들을 구해 강을 건너게 하고 적을 막아냈다. 오반은 병사 절반을 나누어 뗏목을 타고 물길을 따라 내려가 부교를 태우려 했으나, 강가에 있던 장호와 낙림이 쏜 화살 세례에 가로막혔다. 결국 오반은 화살을 맞고 물에 빠져 죽고 말았으며, 남은 군사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물로 뛰어들었으나 뗏목은 모두 위나라 군사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이때 왕평과 장억은 북원의 군대가 패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곧장 위나라 진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 이경(二更)쯤 되었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다. 왕평이 장억에게 말했다.

“우리 군이 북원을 공격하고 있으니 승패를 알 수 없겠군. 그런데 눈앞에 위남의 진영이 뻗어 보이는데, 어째서 위나라 병사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지? 혹시 사마의가 미리 눈치를 채고 대비를 해둔 것 아닐까? 일단 부교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 나서 진격하자.”

두 사람이 군마를 멈춰 세우고 상황을 살피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기병 한 명이 달려와 급히 보고했다.

“승상께서 군사들에게 급히 회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북원의 군대와 부교의 군대 모두 패했습니다!”

왕평과 장억이 크게 놀라 급히 군대를 돌리려 했으나, 이미 위나라 군사들이 그들의 뒤를 포위한 상태였다. 곧이어 포성 한 발이 울려 퍼지더니 위나라 군사들이 일제히 들이닥쳤고, 불길이 하늘을 찔렀다.

왕평과 장억이 병사들을 이끌고 맞서 싸우며 양측 군대는 한바탕 뒤섞여 난전을 벌였다. 왕평과 장억이 온 힘을 다해 싸운 끝에 겨우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으나, 촉한의 병사들은 태반이 쓰러지거나 다치고 말았다. 제갈량이 기산의 대영으로 돌아와 남은 병사들을 수습해 보니, 줄어든 병력이 만여 명에 달했다. 제갈량은 마음속에 깊은 근심이 쌓였다.

한편, 비의가 성도에서 승상에게 전할 말이 있다며 급히 찾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제갈량이 그를 안으로 들였다. 비의가 예를 갖추자 제갈량이 말했다.

“오나라에 전할 서신이 하나 있는데, 그대가 직접 가서 전달해 주었으면 하네. 혹 관찮겠는가?”

비의가 대답했다.

“승상의 명을 어찌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제갈량은 즉시 서신을 써서 비의에게 건네주었다. 비의는 서신을 들고 곧장 건업으로 달려가 오나라 황제 손권 앞에 나아가 제갈량의 편지를 올렸다. 손권이 서신을 뜯어보니 그 내용은 이러했다.

“한나라 왕실이 불행히도 기강을 잃고, 조씨 도적들이 찬탈을 일삼으며 지금까지 그 화가 미치고 있습니다. 저 제갈량은 선황이신 유비 황제로부터 중한 책임을 부여받았으니, 어찌 온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대군이 이미 기산에 집결하였으니, 저 광포한 도적들은 머지않아 위수에서 패망할 것입니다. 부디 폐하께서 동맹의 의리

를 생각하시어 북벌을 명하시고, 함께 중원을 되찾아 천하를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글로는 다 전하지 못하는 마음이 많으니, 부디 살펴 들어주십시오!”

손권은 서신을 다 읽고 크게 기뻐하며 비의에게 말했다. “짐은 오래 전부터 군사를 일으키고 싶었으나, 아직 공명과 힘을 합칠 기회가 없었소. 이제 서신이 도착했으니 오늘 즉시 군사를 일으키겠소. 짐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거소(居巢)로 진입하여 위나라의 신성(新城)을 취할 것이며, 육손과 제갈근 등에게는 강하와 면구에 주둔하여 양양을 점령하게 하고, 손소와 장승 등에게는 광릉에서 출병하여 회양 등을 차지하게 하겠소. 이 세 갈래 길로 동시에 진군하여 총 30만 대군을 이끌고 정해진 날에 군사를 일으킬 것이요.”

비의가 절하며 감사 인사를 올렸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중원은 머지않아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손권은 비의를 위해 연회를 베풀어 정성껏 대접했다. 연회가 이어지는 동안 손권이 물었다. “승상의 군대 앞에서는 누가 적을 먼저 격파하는 선봉을 맡고 있소?” 비의가 대답했다. “위연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손권이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은 용맹함은 남다르나 마음이 바르지 못하오. 만약 어느 날 공명이 없게 된다면, 그가 반드시 화를 일으킬 것이요. 공명이 어찌 이 사실을 모르겠소?” 비의가 말했다. “폐하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제가 돌아가는 대로 이 말씀을 공명에게 꼭 전하겠습니다.”

비의는 손권에게 작별을 고하고 기산으로 돌아가 제갈량을 만났다. 그리고 오나라의 손권이 30만 대군을 일으켜 직접 출정하며, 세 갈래 길로 나누어 진군한다는 소식을 상세히 보고했다. 제갈량이 다시 물었

다. “오나라 황제가 다른 말은 하지 않더냐?” 비의가 위연에 대해 손권이 했던 말을 전했다. 제갈량이 탄식하며 말했다. “참으로 총명한 군주로다! 나라고 어찌 그 사람을 모르겠는가. 다만 그 용맹함이 아까워 쓰고 있을 뿐이다.” 비의가 말했다. “승상께서 미리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나에게도 다 생각이 있다.” 비의는 제갈량과 작별한 뒤 성도로 돌아갔다.

제갈량이 장수들과 정벌 계획을 상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나라 장수가 항복하러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제갈량이 그를 불러 물으니, 정문이 대답했다.

"저는 위나라의 편장군 정문이라고 합니다. 근래에 진량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며 사마의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으나, 사마의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진량을 전장군으로 승진시키고 저를 잡초처럼 하찮게 대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승상님께 투항하러 왔으니, 부디 저를 받아주십시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진량이 군사를 이끌고 진영 밖에서 정문을 단독으로 상대하며 싸움을 걸어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제갈량이 물었다.

"그자의 무예가 그대와 비교하면 어떠한가?"

정문이 답했다.

"제가 반드시 그를 베어버리겠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그대가 먼저 진량을 죽인다면 나는 의심하지 않겠네."

정문은 기쁘게 말을 타고 진영 밖으로 나가 진량과 맞붙었다. 제갈량도 직접 진영 밖으로 나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진량이 창을 치켜 들고 크게 꾸짖는 것이 보였다.

"반역자 놈아! 내 전마를 훔쳐 달아나다니, 어서 내놓지 못할까!"

말을 마친 진량이 곧장 정문을 공격했다. 정문도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맞섰는데, 단 한 합 만에 진량을 말 아래로 베어 넘겼다. 그러자 위나라 군사들은 저마다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정문은 진량의 머리를 들고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

제갈량이 막사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마자 정문을 불러들였다. 제갈량은 크게 노하여 좌우 장수들에게 명령해 정문을 끌어내어 즉시 처형하려 했다. 정문이 울부짖으며 말했다. "장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제갈량이 꾸짖었다. "나는 예전부터 진량을 알고 있었다. 지금 네가 벤 자는 결코 진량이 아니다. 어찌 감히 나를 속이려 드느냐!" 정문이 절을 하며 고했다. "이 자는 사실 진량의 동생인 진명입니다." 제갈량이 비웃으며 말했다. "사마의가 너를 보내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 하며 뒤에서 일을 꾸미려 하는데, 어찌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너를 베겠다!" 정문은 결국 사마의의 명령으로 거짓 항복을 하러 온 것이라고 실토하며, 눈물을 흘리며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네가 살기를 원한다면, 사마의에게 편지를 써서 직접 우리 진영을 습격하라고 지시해

라. 그렇게 한다면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만약 사마의를 생포한다면 그것은 네 공이 될 것이니, 너를 중용할 것이다.” 정문은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써서 제갈량에게 바쳤다. 제갈량은 정문을 감옥에 가두도록 명령했다. 이 광경을 본 범건이 물었다.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이 자가 거짓 항복을 하러 온 것임을 아셨습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사마의는 사람을 가볍게 쓰지 않는 인물이다. 만약 진량을 전장군으로 임명했다면 분명 무예가 매우 뛰어난 자였을 것이다. 그런데 정문과 무기를 맞대자마자 단 한 합 만에 죽임을 당했으니, 결코 진량일 리가 없다. 그래서 그가 속임수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두가 제갈량의 명철함에 감탄하며 머리를 숙였다.

제갈량은 군사들 중 언변이 좋은 자 한 명을 골라 껌속말로 세세하게 지시를 내렸다. 명령을 받은 군사는 서신을 품에 안고 곧장 위나라 진영으로 달려가 사마의를 알현했다. 사마의가 그를 불러 서신을 뜯어 읽고는 물었다.

“너는 누구냐?”

군사가 대답했다.

“저는 중원에서 온 사람으로, 지금은 축한 땅을 떠돌고 있습니다. 정문은 저와 고향 동무입니다. 지금 제갈량이 정문에게 공을 세워 선봉으로 삼았는데, 정문이 특별히 저를 통해 서신을 전하며 부탁했습니다. 내일 밤에 불을 피워 신호를 보낼 테니, 부디 도둑께서 직접 대군을 이끌고 와서 진영을 습격해 주십시오. 정문이 안에서 응답하겠습니다.”

사마의는 거듭 질문을 던지며 서신을 꼼꼼히 살폈는데, 과연 내용이 사실이였다. 사마의는 즉시 군사에게 술과 음식을 하사하며 명령했다.

“오늘 밤 두 경(二更)을 기한으로 삼아 내가 직접 진영을 습격하겠다. 이 큰일을 성공시킨다면 반드시 너를 중용하마.”

군사는 절을 하고 물러나 본진으로 돌아가 제갈량에게 보고했다. 제갈량은 칼을 차고 별의 운행에 맞춰 제사를 지내며 기도를 마친 뒤, 왕평과 장익을 불러 세세한 지시를 내렸다. 이어 마충과 마대를 불러 지시를 내리고, 다시 위연을 불러 또한 세세히 일러두었다. 그러고는 제갈량이 직접 수십 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 군사들을 지휘했다.

한편, 사마의는 정문의 서신을 보고 두 아들을 이끌고 대군을 몰아 촉한의 진영을 습격하려 했다. 장남 사마사가 간언했다. "아버님, 어찌하여 종이 한 장에 속아 위험한 적진으로 직접 들어가려 하십니까? 만약 실수라도 생긴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차라리 다른 장수를 먼저 보내고 아버님께서는 후방에서 지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마의는 그 말을 따랐다. 이에 진량에게 만 명의 병사를 주어 촉한의 진영을 습격하게 하고, 사마의 자신은 뒤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그날 밤 초경에는 바람이 맑고 달빛이 밝았다. 그러다 이경에 이르자 갑자기 먹구름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검은 기운이 하늘을 뒤덮어 맞은편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다. 사마의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하늘이 나를 도와 성공하게 하시는구나!" 사마의는 즉시 병사들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에게도 재갈을 물리게 한 뒤 거침없이 진격했다.

진랑이 앞장서서 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축한의 진영으로 곧장 쳐들어갔으나, 적군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진랑은 계략에 빠진 것을 알고 급히 퇴각 명령을 내렸다. 그 순간 사방에서 횃불이 일제히 밝아지며 함성이 땅을 흔들었다. 왼쪽에서는 왕평과 장익이, 오른쪽에서는 마대와 마충이 두 갈래로 몰려와 공격해 왔다. 진랑은 죽기 살기로 싸웠으나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뒤에서 지켜보던 사마의는 축한 진영의 불길이 하늘을 찌르고 함성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 위나라 군사의 승패는 알지 못한 채 오직 지원할 생각만 하며 불길 속을 향해 군사를 몰아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함성이 터져 나오더니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화포 소리가 땅을 뒤흔들었다. 왼쪽에서는 위연이, 오른쪽에서는 강유가 나타나 돌격해 왔다. 위나라 군사는 대패하여 열 명 중 여덟아홉 명이 쓰러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이때 진랑이 이끌던 만 명의 병사는 축한 군사에게 완전히 포위되었고, 화살은 마치 날아다니는 메뚜기 떼처럼 쏟아졌다. 결국 진랑은 혼란스러운 전장 속에서 전사했다. 사마의는 패잔병을 이끌고 본진으로 급히 도망쳤다.

삼경이 지나자 하늘은 다시 맑고 투명해졌다. 제갈량이 산등성이에서 징을 울리며 군사를 물렸다. 알고 보니 이경 무렵에 먹구름이 사방에서 몰려왔던 것은 제갈량이 둔갑술을 부린 것이었고, 군사를 거두고 나서 하늘이 다시 맑아진 것은 제갈량이 육정육갑의 신통력으로 떠다니는 구름을 끌어버린 것이었다.

제갈량은 승전하여 진영으로 돌아와, 장수 정문을 처형하고 위남을 취할 방책을 다시 논의했다. 제갈량이 매일 군사를 보내 싸움을 걸었으

나, 위나라 군대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제갈량은 스스로 작은 수레를 타고 기산 앞 위수 동서쪽의 지형을 살피러 다녔다.

그러다 문득 어느 골짜기 입구에 이르렀는데, 그 모양이 마치 조롱박처럼 생겨서 안에는 천여 명은 족히 수용할 수 있을 듯했다. 양쪽 산이 만나 이루어진 또 다른 골짜기는 사오백 명 정도를 담을 수 있었고, 뒤쪽의 두 산은 서로를 감싸 안듯 둘러싸고 있어 겨우 말 한 필과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았다. 제갈량은 이를 보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길을 안내하는 관리에게 물었다.

“이 골짜기의 이름이 무엇인가?”

관리가 대답했다.

“이곳은 상방곡이라 부르며, 또 호로곡이라고도 합니다.”

제갈량은 진영으로 돌아와 부장인 두예와 호충을 불러 귓속말로 비밀스러운 계책을 일러주었다. 그리고 군사들을 따라온 장인 천여 명을 불러 호로곡 안으로 들어가 ‘목우유마’를 만들게 했으며, 마대를 불러 오백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골짜기 입구를 지키게 했다.

제갈량이 마대에게 당부했다.

“장인들은 절대로 밖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되며, 외부 사람 또한 안으로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내가 때맞춰 직접 와서 점검할 것이니, 사마의를 잡을 계책은 바로 이 일에 달려 있다. 절대로 소문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대는 명을 받고 물러갔다. 두예와 호충은 골짜기 안에서 장인들을 감독하며 법도에 따라 물건을 만들게 했고, 제갈량은 매일 직접 찾아와 지시를 내렸다.

어느 날, 장사 양의가 들어와 보고했다. “지금 군량이 모두 검각에 있는데, 인부와 소, 말이 물자를 나르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이를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책을 세워 두었소. 예전에 쌓아둔 목재와 서천에서 사들인 큰 나무들을 이용해 ‘목우유마’를 만들도록 시켰으니, 이를 쓰면 군량을 나르는 일이 매우 편리할 것이오. 소나 말처럼 먹이를 먹지 않아도 되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운반할 수 있을 것이오.”

장수들이 모두 깜짝 놀라 물었다. “예부터 지금까지 ‘목우유마’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승상께서는 어떤 묘책으로 이런 신기한 물건을 만드셨습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이미 사람을 시켜 법도에 따라 만들게 했으나 아직 다 완성되지는 않았소. 우선 목우유마를 만드는 법을 적어 내려가려 하니, 크기와 모양, 길고 짧음과 넓고 좁음 등을 명확히 기록해 둘 테니 너희가 직접 살펴보시오.”

모두가 크게 기뻐했다. 제갈량은 즉시 종이에 글을 써서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장수들이 등글게 에워싸고 살펴보니, 목우를 만드는 법은 다음과 같았다.

배는 네모지고 다리는 굽어 있으며, 배 아래에는 네 개의 다리가 달려 있다. 머리는 멍에 속에 들어가 있고, 혀는 배에 닿아 있다. 짐을 많이 실으면 가는 거리가 짧아지는데, 혼자 가면 수십 리를 가지만 여럿이 함께 가면 삼십 리밖에 가지 못한다. 굽은 부분은 소의 머리가 되고, 쌍을 이룬 부분은 소의 다리가 된다. 가로로 놓인 것은 소의 멍에가 되고, 돌아가는 것은 소의 발이 된다. 뒤집힌 곳은 소의 등이며, 네모진 곳은 소의 배다. 늘어진 곳은 소의 혀이고, 굽은 곳은 소의 갈비뼈다. 새겨진 부분은 소의 이빨이며, 서 있는 부분은 소의 뿔이다. 가는 부분은 소의 굴레가 되고, 잡아주는 부분은 소의 가슴줄이 된다. 소를 몰 때는 두 개의 멍에를 사용한다. 사람은 여섯 자를 걸을 때 소는 네 걸음을 간다. 사람은 크게 힘을 들일 필요가 없고, 소도 먹거나 마실 필요가 없다.

목우유마를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다.

옆대(肋)는 길이는 3척 5촌, 너비는 3촌, 두께는 2촌 5푼이며, 좌우가 모두 같다. 앞축 구멍은 앞끝에서 4촌 떨어진 곳에 있으며, 구멍의 지름은 2촌이다. 앞다리 구멍은 앞끝에서 4촌 5푼 떨어진 곳에 있고, 길이는 1촌 5푼, 너비는 1촌이다. 앞가로대 구멍은 앞다리 구멍에서 3촌 7푼 떨어진 곳에 있으며, 구멍의 길이는 2촌, 너비는 1촌이다. 뒷축 구멍은 앞가로대에서 1척 5촌 떨어진 곳에 있고, 크기는 앞쪽과 같다. 뒷다리 구멍은 뒷축 구멍에서 3촌 5푼 떨어진 곳에 있으며, 크기는 앞쪽과 같다. 뒷가로대 구멍은 뒷다리 구멍에서 2촌 7푼 떨어진 곳에 있고, 뒷가로대 끝에서 뒷가로대 구멍까지의 거리는 4촌 5푼이다. 앞가로대의 길이는 1척 8촌, 너비는 2촌, 두께는 1촌 5푼이다. 뒷가로대도

이와 같다. 쌀을 담은 사각형 판은 두 개인데, 두께는 8푼, 길이는 2척 7촌, 높이는 1척 6촌 5푼, 너비는 1척 6촌이다. 판 하나당 쌀 2곡 3두를 담을 수 있다. 위쪽 가로대 구멍에서 옆대 아래까지의 거리는 7촌이며, 앞뒤가 같다. 위쪽 가로대 구멍에서 아래쪽 가로대 구멍까지의 거리는 1척 3촌이고, 구멍의 길이는 1촌 5푼, 너비는 7푼이다. 여덟 개의 구멍이 모두 이와 같다. 앞뒤 네 다리의 너비는 2촌, 두께는 1촌 5푼이다. 전체적인 모양은 코끼리를 닮았는데, 코의 길이는 4촌, 지름은 4촌 3푼이다. 세 개의 다리 가로대는 구멍의 지름과 같으며, 길이는 2척 1촌, 너비는 1촌 5푼, 두께는 1촌 4푼이다.

장수들이 이를 한 번씩 살펴보니 모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승상께서는 참으로 신령스러운 분이십니다!" 며칠이 지나자 목우유마가 모두 완성되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정교하여 산을 오르고 고개를 내려가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군사들은 이를 보고 모두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제갈량은 우장군 고상을 명하여, 병사 천 명과 함께 목우유마를 몰고 검각에서 기산 대채까지 직행하게 하여, 군량을 실어 나르며 촉나라 군사들의 보급을 책임지게 했다. 후대의 시인이 이를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검각의 험준한 길도 유마를 몰아 지나고, 사곡의 험한 고개도 목우를 타고 넘네. 후세에 만약 이 방법을 쓸 수 있다면, 군량 운반 걱정은 어찌 하겠는가?"

한편, 사마의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전령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촉나라 군사가 목우유마를 이용해 군량을 운반하고 있

습니다. 사람의 힘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되고, 소나 말처럼 먹이를 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사마의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성을 굳게 지키며 나가지 않은 이유는 저들의 군량 보급이 끊겨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제 저런 방법을 쓰니 분명 오랫동안 버티며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겠구나. 이를 어찌하면 종단 말이나?"

사마의는 급히 장호와 낙렴 두 사람을 불러 명령을 내렸다. "너희 둘은 각각 오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곡의 좁은 길로 몰래 돌아가거라. 촉나라 군사가 목우유마를 몰고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다 지나갈 때 쯤 일제히 습격하여 들이쳐라. 단, 물건을 너무 많이 빼앗지는 말고 서너 마리 정도만 챙겨서 즉시 돌아와야 한다."

두 사람은 명령을 받들어 각각 오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촉나라 군사로 변장한 채 밤을 틈타 좁은 길을 넘어 골짜기에 매복했다. 과연 고상이 군사를 이끌고 목우유마를 몰고 오는 것이 보였다. 목우유마가 거의 다 지나가려 할 때, 양쪽에서 일제히 북을 치며 들이쳐 공격했다. 촉나라 군사들은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당황했고, 그 과정에서 목우유마 몇 마리를 버려두고 달아났다. 장호와 낙렴은 기뻐하며 목우유마를 끌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사마의가 이를 살펴보니, 목우유마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너희가 이 방법을 쓸 줄 안다면, 설마 내가 못 쓸 줄 알았더냐!"

사마의는 즉시 백여 명의 숙련된 기술자를 불러 모아 목우유마를 직접 분해하게 했다. 그리고 그 크기와 길이는 물론 두께까지 똑같이 맞추어 만들라고 명령했다.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제갈량이 만든 것과 똑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목우유마 이천여 대가 완성되었다. 사마의는 곧 장 진원장군 잠위를 보내 천 명의 군사와 함께 목우유마를 몰아 농서로 군량을 실어 나르게 하니, 그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 위나라 진영의 장수들은 이를 보고 모두 기뻐하며 환호했다.

한편, 고상이 제갈량에게 돌아가 보고하기를, "위나라 군사들이 목우유마를 각각 대여섯 마리씩 약탈해 갔습니다"라고 했다.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그들이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목우유마 몇 마리를 희생시키는 대신, 머지않아 군량 지원을 훨씬 많이 얻게 될 것이다."

장수들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승상, 어찌 그런 데까지 내다보십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사마의가 목우유마를 보았으니, 반드시 나의 방식을 본떠 똑같이 만들어낼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 나는 이미 계책을 세워두었다."

며칠 뒤, 위나라 군사들도 목우유마를 만들어 롱시로 군량을 운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제갈량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구나." 그러고는 곧바로 왕평을 불러 명령했다.

"너는 병사 천 명을 이끌고 위나라 군사로 변장하여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북원을 몰래 가로질러 간 뒤, 단순히 군량을 순찰하는 부대라고 속여 그들의 운량 부대에 섞여 들어가라. 그다음 호송병들을 모조리

흘어놓거나 죽이고, 목우유마를 몰아 복원을 거쳐 곧장 돌아오너라.
이때 분명 위나라 군사가 뒤쫓아올 터인데, 그때 목우유마 입안의 혀를
돌려버리면 소와 말이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즉시 그것
들을 버려두고 달아나라. 뒤쫓아온 위나라 군사들이 도착해도 소와 말
은 끌 수도, 들 수도 없을 것이다. 뒤이어 내 군사가 도착하면, 그때 다
시 돌아와 소와 말의 혀를 돌려놓고 거침없이 진격하라. 그러면 위나라
군사들은 분명 괴이한 일이라 여기며 의심할 것이다."

왕평은 계책을 받아들여 군사를 이끌고 떠났다. 제갈량은 다시 장억
을 불러 명령했다. "그대는 병사 500명을 거느리고 모두 육정육갑의
신병으로 변장하라. 귀신 같은 머리에 짐승의 몸을 하고, 오색 빛깔로
얼굴을 칠해 온갖 괴이한 모습으로 꾸며라. 한 손에는 수놓은 깃발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보검을 쥐며, 허리에는 호리병을 차되 그 안에 불
꽃놀이용 화약을 숨겨 산 근처에 매복해 있어야 한다. 그러다 목우유마
가 도착하면 일제히 불꽃을 터뜨리며 쏘아져 나와 소와 말을 몰고 가
라. 위나라 병사들이 이를 보면 분명 신령이나 귀신인 줄 알고 감히 뒤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장억은 이 명령을 받고 병사들을 이끌고 떠났
다.

제갈량은 다시 강유와 위연을 불러 명령했다. "그대들 두 사람은 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복원 채구로 가서 목우유마를 호위하며 전투에 대
비하라." 이어 요화와 장익을 불러 말했다. "그대들 두 사람은 5천 명
의 병사를 이끌고 사마의가 오는 길을 끊어라." 또 마충과 마대를 불러
명령했다. "그대들 두 사람은 2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위남으로 가서
싸움을 걸어라." 여섯 장수는 각자 명을 받들어 떠났다.

한편, 위나라 장수 잠위가 군사를 이끌고 목우유마에 군량을 가득 실은 채 행군하고 있었다. 한창 나아가던 중, 갑자기 앞쪽에서 군량을 살피는 병사들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잠위가 사람을 보내 정찰하게 하니 과연 위나라 병사들이었다. 이에 잠위는 안심하고 계속 전진했다.

두 군대가 한곳에서 맞닥뜨린 순간, 갑자기 엄청난 함성이 울려 퍼지더니 촉나라 군사들이 위나라 본진 한복판에서 들이닥치며 크게 외쳤다. "촉나라 대장 왕평이 여기 있다!"

위나라 군사들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촉나라 군사들에게 절반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 잠위가 패잔병을 이끌고 적을 막아보려 했으나, 왕평의 칼에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병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왕평은 군사들을 이끌고 목우유마를 모조리 챙겨 돌아갔다. 패배한 병사들은 복원 진영으로 급히 달려가 이 소식을 알렸다.

군량이 탈취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곽희가 급히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왔다. 왕평은 부하들에게 목우유마의 혀를 돌려 작동을 멈추게 한 뒤, 길가에 내버려 둔 채 싸우면서 후퇴했다. 곽희는 군사들에게 너무 쫓지 말고 목우유마만 챙겨서 돌아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수많은 군사가 한꺼번에 몰려든 목우유마를 어찌 다 챙길 수 있겠는가? 곽희는 의아해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갑자기 하늘을 찌를 듯한 북소리와 함성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위연과 강유가 이끄는 두 갈래 군사가 몰려온 것이었다. 왕평이 다시 군사를 몰아 공격해 오자, 세 갈래로 협공을 당한 곽희는 크게 패하

여 도망쳤다. 왕평은 군사들에게 목우유마의 혀를 다시 돌려 작동시킨 뒤 물고 가라고 명령했다.

곽회가 뒤를 돌아보며 다시 병사를 돌려 추격하려는데, 갑자기 산 뒤편에서 구름과 안개가 치솟더니 신비로운 모습의 군사 한 부대가 나타났다. 그들은 하나같이 깃발과 칼을 들고 기이한 차림을 한 채, 목우유마를 마치 바람처럼 물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곽회가 크게 놀라 외쳤다. "이것은 필시 신령의 도움임이 분명하다!"

이를 본 위나라 군사들도 모두 겁에 질려 감히 뒤를 쫓지 못했다.

한편, 사마의는 북원의 군대가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나섰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 갑자기 포성 한 발이 울려 퍼지더니, 험준한 지형 사이에서 두 갈래의 군사가 들이닥치며 땅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들의 깃발에는 '한나라 장수 장익과 요화'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사마의는 이를 보고 크게 놀랐고, 위나라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각자 도망치기에 바빴다.

길에서 신비한 장수를 만나고 군량마저 탈취당하니, 기습을 당한 몸은 그야말로 위태롭기 그지없었다. 과연 사마의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3회 — 상방곡에서 사마의가 곤경에 처하고, 오장원에서 제갈량이 별을 달래다

上方谷司馬受困 五丈原諸葛禳星

한편, 사마의는 장익과 요화의 공격에 크게 패해 말 한 필과 창 하나만을 의지한 채 밀림 사이로 도망쳤다. 장익이 후군을 수습해 멈춰 서자, 요화가 앞장서서 추격했다. 요화가 어느 정도 따라잡자 사마의는 당황하여 나무를 돌아가며 길을 틀었다. 요화가 칼을 휘둘러 내리쳤으나 나무에 맞았고, 그가 칼을 뽑았을 때는 이미 사마의가 숲 밖으로 벗어난 뒤였다. 요화가 뒤따라 숲을 빠져나왔으나 사마의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다. 다만 숲 동쪽에서 금빛 투구 하나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요화는 투구를 챙겨 말에 싣고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추격했다. 사실 사마의는 숲 동쪽에 금투구를 버려두고 오히려 서쪽으로 도망친 것이었다. 요화가 한참을 쫓았으나 종적을 찾지 못하고 곡구로 달려나오니, 마침 강유를 만났다. 두 사람은 함께 진영으로 돌아가 제갈량을 뵈었다. 한편, 장의(張疑)는 일찍이 목우유마를 몰고 진영에 도착해

있었다. 물자를 넘겨받는 절차를 마치니 얻은 군량이 만 석이 넘었다. 요화가 금투구를 바치자 이를 첫 번째 공으로 기록했다. 위연은 마음속으로 불쾌해하며 불만을 늘어놓았으나, 제갈량은 모르는 척 넘겼다.

한편, 사마의는 진영으로 도망쳐 돌아온 뒤 마음이 몹시 답답하고 괴로웠다. 이때 갑자기 조서를 든 사신이 당도했는데, 그 내용은 동오가 세 갈래 길로 침입해 왔으므로 조정에서 장수들을 보내 막을 일을 한창 의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사마의 등에게는 굳게 지키기만 할 뿐 함부로 싸우지 말라고 명했다. 사마의는 명령을 받은 뒤, 깊은 구덩이를 파고 높은 성벽을 쌓아 굳게 버티며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한편, 조예는 손권이 세 갈래로 군사를 나누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세 갈래로 군사를 일으켜 맞서 나갔다. 조예는 유소에게 군사를 이끌고 강하를 구하러 가게 했고, 전예에게는 양양을 구하러 가게 했으며, 자신은 직접 만총과 함께 대군을 이끌고 합비를 구하러 떠났다.

만총이 먼저 군사 일부를 이끌고 소호 입구에 이르니, 저편 동쪽 기슭에 수많은 전함이 늘어서 있고 깃발들이 질서 정연하게 꽂혀 있는 것이 보였다. 만총이 군중에서 위나라 황제에게 말했다. "오나라 군사들은 우리가 멀리서 오는 것을 가볍게 여겨 아직 대비를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밤 허점을 찔러 저들의 수채를 습격한다면 반드시 완승할 수 있습니다."

조예가 대답했다. "그대의 말이 딱 내 생각과 같구려."

조예는 즉시 용맹한 장수 장구에게 군사 5천 명을 주어 불을 붙일 도구들을 챙겨 호수 입구로 공격하게 했고, 만총에게도 군사 5천 명을 주어 동쪽 기슭을 공격하게 했다.

그날 밤 2경 무렵, 장구와 만총이 각각 군사를 이끌고 호수 입구를 향해 조용히 진격했다. 그러다 수채에 가까워지자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들이닥쳤다. 오나라 군사들은 당황하여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쳤고, 위나라 군사들이 사방에서 불을 지르는 바람에 전함과 군량, 각종 도구들이 셀 수도 없이 타버렸다. 제갈근은 패잔병을 이끌고 먼구로 도망쳤다. 위나라 군대는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다.

다음 날, 정찰병이 육손에게 보고를 올렸다. 육손이 장수들을 모아 놓고 의논하며 말했다.

"내가 주상께 상소를 올려 신성의 포위를 풀 것을 청해야겠소. 군사를 움직여 위나라 군대의 퇴로를 끊고, 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그들의 전방을 공격한다면, 적은 앞뒤로 대응하지 못해 단번에 격파할 수 있을 것ियो."

장수들은 모두 육손의 말에 동의했다. 육손은 즉시 상소를 작성하여 한 명의 하급 관리를 통해 신성으로 비밀리에 보냈다. 관리는 명을 받들어 상소를 품고 나아갔으나, 나루터에 이르렀을 때 뜻밖에 길목에 매복해 있던 위나라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위나라 진영으로 끌려가 위나라 황제 조예를 대면하게 되었다. 조예가 육손의 상소를 찾아내어 다 읽어본 뒤 탄식하며 말했다.

"동오의 육손, 정말이지 묘책을 내놓았구나!"

조예는 즉시 오나라 군사들을 포로로 잡아 가두게 하고, 유소에게 명하여 손권의 후방 군사들을 엄중히 경계하게 했다.

한편, 제갈근은 큰 패배를 겪은 데다 한창 무더운 여름철이라 병든 병사와 말이 속출하자, 육손에게 편지를 보내 군사를 거두고 본국으로 돌아가자는 뜻을 전했다. 육손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사자에게 말했다. "장군께 전해주시오. 나에게는 이미 생각이 있소."

사자가 돌아와 제갈근에게 보고하자, 제갈근이 물었다. "육 장군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던가?" 사자가 대답했다. "육 장군은 그저 장수들에게 명하여 진영 밖에서 콩과 팥을 심게 하고, 본인은 다른 장수들과 함께 막사 앞에서 활쏘기 놀이를 하며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제갈근은 깜짝 놀라 직접 육손의 진영으로 가서 그를 만났다. 제갈근이 물었다. "지금 조예가 직접 군사를 몰고 와 기세가 매우 드높은데, 도둑께서는 이를 어떻게 막아낼 생각이십니까?"

육손이 말했다. "전에 사람을 보내 주상께 상소문을 올렸으나, 뜻하지 않게 적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계책이 이미 탄로 났으니 적들도 분명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싸워봐야 이득이 없으니 차라리 물러나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사람을 보내 주상께 서서히 퇴각하겠다는 뜻을 전해두었습니다."

제갈근이 말했다. "도둑께서 이미 그럴 뜻이 있으시다면 즉시 물러나야지, 어찌하여 지체하고 계십니까?"

육손이 말했다. "우리 군이 물러나려면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물러나면 위나라 군사들이 그 기세를 몰아 추격해 올 것이니, 이는 패배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장군께서는 먼저 배들을 정비하여 적을 막아낼 것처럼 꾸미십시오. 저는 모든 병력과 말을 이끌고 양양 쪽으로 진격하는 척하여 적을 속인 뒤, 그 후에 천천히 강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위나라 군사들도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제갈근이 이 계책을 따르기로 하자, 육손은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본영으로 돌아가 배들을 정비하며 떠날 준비를 했다. 육손은 군대의 기강을 바로잡고 위세를 드높이며, 양양을 향해 진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미 첩자가 위나라 황제에게 동오의 군대가 움직였으니 반드시 방해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위나라 장수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출전하려 했다. 하지만 위나라 황제 조예는 평소 육손의 재능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장수들에게 일렀다. "육손은 지략이 뛰어난 자이니, 적을 유인하려는 계책이 아닐 리 없다. 가볍게 움직이지 마라." 그제야 장수들은 움직임을 멈추었다. 며칠 뒤, 초병이 달려와 "동오의 세 갈래 군마가 모두 퇴각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조예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다시 사람을 보내 살피게 했는데, 돌아온 보고를 보니 과연 군대가 모두 물러간 것이 맞았다. 조예는 탄식하며 말했다. "육손의 용병술이 손무(孫武)와 오기(吳起)에 뒤지지 않으니, 동남쪽 땅은 아직 평정하기 어렵겠구나." 그러고는 장수들에게 명하여 각자 요충지를 지키게 하고, 본대는 합비로 대군을 이끌고 가 진을 치고 상황 변화를 살피게 했다.

한편, 제갈량은 기산에 머물며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 촉나라 군사들이 위나라 백성들과 섞여 농사를 짓도록 하는 둔전제를 실시하였다. 군사 한 명당 백성 두 명의 비율로 섞이게 하되, 결코 백성들을 침범하지 않게 하니 위나라 백성들은 모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였다.

사마사가 아버지 사마의에게 들어가 보고했다. "촉나라 군사들이 우리 군량미를 많이 약탈해 갔는데, 이제는 위빈 지역에서 우리 백성들과 섞여 농사까지 지으며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국가의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차라리 제갈량과 정식으로 날을 잡아 크게 한판 붙어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마의가 대답했다. "나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견수하고 있으니,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두 사람이 의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위연이 지난번 원수(제갈량)가 잃어버린 금빛 투구를 쓰고 나타나 욕설을 퍼부으며 싸움을 걸어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장수들은 모두 분노하며 당장이라도 출전하려 했다.

사마의가 웃으며 말했다.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큰 계획을 망친다'고 하셨다. 그저 굳게 지키는 것이 상책이다."

장수들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위연은 한참 동안 욕설을 퍼붓다가 그제야 돌아갔다.

제갈량은 사마의가 도통 싸우려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마대에게 밀명을 내려 목책을 세우고 진영 곳곳에 깊은 참호를 판 뒤 그 안에 마른

떨나무와 불을 붙이기 좋은 물건들을 가득 쌓아 두게 했다. 또한 주변 산에는 떨나무와 풀을 이용해 가짜 막사를 지어 놓고, 안팎으로 지뢰를 곳곳에 매설하게 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제갈량이 마대의 귀에 대고 속삭이며 말했다.

"호로곡의 뒷길을 막아버리고, 곡구 안에는 몰래 병사들을 매복시켜라. 만약 사마의가 추격해 오거든 그가 곡 안으로 들어오게 내버려 두었다가, 일제히 지뢰와 마른 떨나무에 불을 붙여라."

이어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낮에는 곡구 입구에 일곱 개의 별이 그려진 깃발을 높이 들게 하고, 밤에는 산 위에 일곱 개의 밝은 등불을 켜두어 암호로 삼게 했다. 마대는 이 계책을 받들어 군사를 이끌고 떠났다.

제갈량은 다시 위연을 불러 분부했다.

"그대는 병사 오백 명을 거느리고 위나라 진영을 공격하여, 반드시 사마의를 끌어내도록 하라. 승리해서는 안 되며 오직 거짓으로 패하는 척해야 한다. 그러면 사마의가 반드시 뒤쫓아올 터인데, 그때 그대는 일곱 개의 별이 그려진 깃발이 있는 곳을 향해 들어가라. 만약 밤이라면 일곱 개의 등불이 있는 곳을 향해 도망쳐야 한다. 사마의를 반드시 호로곡 안으로 유인하기만 하면, 내게 그를 사로잡을 계책이 있다."

위연은 이 계책을 받들어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제갈량은 또 고상을 불러 일렀다.

"그대는 목우유마를 이십서른 대, 혹은 사십에서 오십 대씩 때를 지어 식량을 가득 실은 채 산길을 오가며 움직여라. 만약 위나라 군사가 그것을 빼앗으러 온다면 그것이 바로 그대의 공이 될 것이다."

고상은 명령을 받들어 목우유마를 몰고 떠났다. 제갈량은 기산의 병사들을 하나하나 배치하며 둔전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한 뒤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만약 다른 병사들이 공격해 오면 오직 거짓으로 패하는 척만 하라. 그러나 사마의가 직접 온다면 힘을 합쳐 위남을 공격함으로써 그의 퇴로를 끊어야 한다."

제갈량은 모든 군사 배치를 마친 뒤, 직접 군대를 이끌고 상방곡 아래에 진을 쳤다.

한편, 하후혜와 하후화 두 사람이 진영으로 들어가 사마의에게 보고했다. "지금 촉나라 군사들이 흩어져 진을 치고 곳곳에서 둔전제를 실시하며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기회를 틈타 저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저들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깊이 내린 뒤에는 흔들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마의가 말했다. "이것은 분명 제갈량이 꾸민 계책일 것이다." 두 사람이 말했다. "도둑께서 이토록 의심하고 계시니, 적을 언제 멸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형제 두 사람이 힘을 다해 결사적으로 싸워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사마의가 말했다. "정 그렇다면, 너희 둘이 각자 나누어 출전하라." 사마의는 즉시 하후혜와 하후화에게 각각 5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나가도록 명령했다. 사마의는 자리에 앉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한편, 하후혜와 하후화 두 사람이 군사를 나누어 두 갈래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촉나라 병사들이 목우유마를 몰고 오는 것이 보였다. 두 사람이 일제히 달려들어 공격하자 촉나라 병사들은 크게 패하여 달아났고, 목우유마는 모두 위나라 병사들에게 붙잡혀 사마의의 진영으로 보내졌다. 다음 날에는 사람과 말 백여 명을 더 사로잡아 대영채로 압송했다.

사마의는 압송해 온 촉나라 병사들을 모아놓고 적의 형편을 심문했다. 촉나라 병사들이 대답했다. "제갈량은 도독이 성을 굳게 지키며 나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흠어져서 농사를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렇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마의는 즉시 촉나라 병사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하후화가 의아해 하며 물었다. "어찌하여 저들을 죽이지 않으십니까?"

사마의가 말했다. "이런 졸병들을 죽여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다. 저들을 본진으로 돌려보내어, 위나라 장수들이 너그럽고 인자하여 적을 놓아주었다는 말을 퍼뜨리게 하라. 그래야 저들의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꺾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몽이 형주를 취할 때 썼던 계책이다."

그러고는 명령을 내려, 앞으로 촉나라 병사를 사로잡으면 모두 잘 대접하여 돌려보내고, 공을 세운 장수와 관리에게는 큰 상을 내리게 했다. 여러 장수가 모두 명령을 듣고 물러갔다.

한편, 제갈량은 고상에게 군량을 운반하는 척하며 목우유마를 몰아 상방곡 안팎을 오가게 했다. 하후혜 등이 수시로 이들을 가로막아 공격

했는데, 보름 사이에 연달아 몇 차례나 승리를 거두었다. 사마의는 촉나라 군대가 번번이 패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기뻐했다. 어느 날, 촉나라 군사 수십 명을 다시 생포하게 되었다. 사마의가 그들을 장막 앞으로 불러 물었다. "제갈량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부하들이 대답했다. "제갈 승상은 기산에 있지 않고, 상방곡 서쪽 십 리 지점에 진을 치고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상방곡으로 군량을 운반하며 둔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의는 자세한 내용을 다 물어본 뒤 사람들을 풀어주었다. 그리고는 장수들을 불러 명령했다. "제갈량이 지금 기산에 있지 않고 상방곡에 진을 치고 있다. 너희는 내일 힘을 합쳐 기산의 큰 진영을 공격하라. 나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지원하겠다." 장수들이 명을 받들어 각자 출전 준비를 했다. 이때 사마사가 물었다. "아버지, 어찌하여 도리어 적의 뒤를 공격하려 하십니까?" 사마의가 말했다. "기산은 촉나라 군대의 근본이다. 우리 군사가 그곳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촉나라의 각 진영에서 반드시 구원하러 올 것이다. 그때 내가 상방곡을 쳐서 그들의 군량과 마초를 태워버린다면, 적은 앞뒤가 끊겨 반드시 크게 패할 것이다." 사마사가 감탄하며 절을 올렸다. 사마의는 즉시 군사를 일으켜 출발하면서, 장호와 악침(樂綝)에게 각각 오천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뒤에서 지원하라고 명했다.

한편, 제갈량은 기산에서 위나라 군사들이 삼오천 명씩, 혹은 일이천 명씩 줄을 지어 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대열이 어수선하게 움직이며 앞뒤를 살피는 기세로 보아, 필시 기산의 대영채를 공격하러 오는 것이 분명했다. 제갈량은 장수들에게 밀지를 내려 명령했다. "만약 사마의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온다면, 너희는 즉시 위나라 진영을 습격하여 위남을 점령하라." 장수들은 각자 명을 받들었다.

한편, 위나라 군사들이 모두 기산채로 달려가자, 촉나라 군사들도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달려 나가 마치 구원병이 오는 것처럼 위세를 떨쳤다. 사마의는 촉나라 군사들이 모두 기산채를 구하러 간 것을 보고, 두 아들과 중군 호위 병력을 이끌고 상방곡을 향해 거세게 돌진했다. 위연은 곡구에서 사마의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위나라 군사 한 무리가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 말 위에서 앞을 살펴보니, 바로 사마의였다. 위연이 크게 외쳤다. "사마의, 거기 서라!" 그러고는 칼을 휘두르며 맞서 싸웠다. 사마의도 창을 내질러 맞대응했다. 세 합을 채 겨루기도 전에 위연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고, 사마의가 그 뒤를 쫓았다. 위연은 칠성기가 있는 곳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사마의는 위연이 단 한 명뿐이고 군사도 적은 것을 보고 안심하며 추격했다. 그는 사마사가 왼쪽을, 사마소가 오른쪽을 맡게 하고 자신은 중앙에 서서 달려드는 적을 함께 공격하도록 명령했다. 위연은 5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모두 골짜기 안으로 퇴각했다. 사마의가 골짜기 입구까지 쫓아간 뒤, 먼저 사람을 보내 골짜기 안을 정찰하게 했다. 정찰병이 돌아와 골짜기 안에 매복한 병사는 없고 산 위에는 초가집들뿐이라고 보고했다. 사마의가 말했다. "이곳은 분명 군량을 쌓아둔 곳으로구나." 그는 곧 군사와 말을 크게 몰아 골짜기 안으로 모두 진입했다. 사마의는 문득 초가집 위에 마른 장작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앞서가던 위연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의심이 생긴 사마의가 두 아들에게 물었다. "만약 누군가 병사를 보내 골짜기 입구를 끊어버리면 어찌하겠느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엄청난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산 위에서 일제히 횃불을 던져 골짜기 입구를 불태워 막

아버렸다. 위나라 군사들은 도망칠 길이 막혀버렸다. 산 위에서 불화살이 쏟아지고 지뢰가 일제히 터지자, 초가집 안의 마른 장작들이 모두 타오르며 타닥타닥 소리를 냈고 불길은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았다. 사마의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는 말에서 내려 두 아들을 껴안고 크게 울며 말했다. "우리 부자 세 사람이 모두 이곳에서 죽게 생겼구나!" 한창 울고 있을 때,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고 검은 기운이 하늘을 뒤덮더니, 벼락 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졌다. 골짜기 가득했던 불길이 모두 꺼져버렸고, 지뢰는 터지지 않았으며 화기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 사마의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또 언제 하겠느냐!" 그는 즉시 병사들을 이끌고 힘껏 돌파하며 공격했다. 장호와 악침 역시 각자 병사를 이끌고 달려와 지원했다. 마대는 병사가 적어 감히 추격하지 못했다. 사마의 부자는 장호, 악침과 합류하여 함께 위남의 대진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진영의 울타리는 이미 촉나라 군사들에게 점령당한 상태였다. 광희와 손례가 부교 위에서 촉나라 군사와 교전하고 있었다. 사마의 일행이 병사를 이끌고 달려오자 촉나라 군사들이 물러났다. 사마의는 부교를 불태워 끊어버리고 북쪽 기슭을 점령했다.

한편, 위나라 군사들은 기산에서 촉나라 진영을 공격하던 중 사마의가 대패하여 위남의 진영까지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심이 크게 흔들렸다. 급히 퇴각하려는데 사방에서 촉나라 군사들이 몰려와 공격해오니, 위나라 군사들은 열에 여덟아홉은 다칠 정도로 대패하였고 죽은 자가 셀 수 없이 많았다. 남은 병사들은 위북을 가로질러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제갈량은 산 위에서 위연이 사마의를 골짜기로 유인하는 것을 지켜 보고 있었다. 그러다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이 치솟아 오르자, 제갈량은 사마의가 이번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그런데 뜻밖에 하늘에서 갑자기 큰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불길이 옮겨붙지 못했다. 뒤이어 전령이 달려와 사마의와 그 아들들이 모두 도망쳤다고 보고했다.

제갈량이 탄식하며 말했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렸구나.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후대의 시인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노래하며 탄식했다.

"골짜기 입구에 거센 바람과 불길이 휘날리더니, 어찌하여 갑작스런 운 소나기가 하늘에서 쏟아졌던가. 무후의 묘책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어찌 산하가 진나라의 것이 되었겠는가?"

한편, 사마의가 위북의 진영 안에서 명령을 내렸다. "위남의 영채가 이미 함락되었다. 만약 장수들 중에 다시 출전하겠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참형에 처할 것이다." 장수들은 명령을 듣고는 굳게 지키며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때 곽회가 들어와 보고했다. "요즘 제갈량이 군사를 이끌고 정찰을 다니고 있으니, 분명 적당한 곳을 골라 진을 칠 것입니다." 사마의가 말했다. "만약 제갈량이 무공(武功) 쪽으로 나와 산을 끼고 동쪽으로 진출한다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것이다. 하지만 만약 위남으로 나와 서쪽의 오장원에 머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사마의는 사람을 보내 살피게 했고, 돌아온 보고에 따르면 제갈량의 군대는 과연 오장원에 주둔하고 있었다. 사마의는 손으로 이마를 짚

으며 감탄했다. "위나라 황제 폐하의 크나큰 복이로다!" 그러고는 장수들에게 명하여 굳게 지키며 절대 나가지 말라고 이르며, 상대가 오래 버티다 보면 반드시 스스로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야기는 이러하다. 제갈량은 군사를 이끌고 오장원에 진을 친 뒤, 여러 차례 싸움을 걸어 보았으나 위나라 군대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제갈량은 여인들이 쓰는 수건과 흰 옷가지들을 큰 상자에 가득 담고 편지 한 통을 써서 위나라 진영으로 보냈다. 촉나라 장수들은 이를 숨기지 않고 사절을 데려가 사마의를 알현했다. 사마의가 장수들과 함께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여인들의 옷가지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사마의가 편지를 펼쳐 읽어보니 대략 이러했다.

"사마의, 그대는 이미 대장군이 되어 중원의 군대를 통솔하고 있으면서도, 무기를 들고 전장에 나가 승부를 겨룰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구석에 처박혀 자기 땅이나 지키며 칼과 화살을 피하기에만 급급하니, 이 어찌 여인과 다르겠는가! 이에 여인들의 옷을 보내노니, 만약 싸우러 나오지 못하겠다면 두 손 모아 공손히 받아라. 만약 아직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내로서의 기개가 남아 있다면, 즉시 답장을 보내 약속한 날짜에 적군을 맞으러 나오도록 하라."

사마의는 편지를 다 읽고는 속으로 크게 분노했으나,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다. "공명이 나를 부녀자로 보는 것인가?" 그러고는 곧바로 편지를 거두어들이고 사절을 정중히 대접하게 했다. 사마의가 사절에게 물었다. "공명의 잠자리와 음식, 그리고 업무의 번잡함은 어떠한가?" 사절이 대답했다. "승상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시며, 별이 스무 대 이상인 죄도 직접 살피십니다. 드시는 음식 또

한 하루에 몇 되를 넘기지 못합니다." 사마의가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공명은 먹는 것도 적고 업무는 번잡하니, 어찌 오래 버틸 수 있겠는가!"

사절이 물러가 오장원으로 돌아와 제갈량을 만나 그간의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사마의가 여인의 옷과 편지를 받았음에도 화를 내기는 커녕, 오히려 승상의 잠자리와 음식, 업무의 번잡함이 어떠한지를 물었습니다. 군사적인 일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그는 '먹는 것이 적고 일이 번잡하니 어찌 오래갈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제갈량이 탄식하며 말했다. "그가 나를 깊이 꿰뚫어 보고 있구나!"

주부 양옹이 말했다. "제가 보니 승상께서는 늘 직접 장부를 살피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체계가 있어야 하니, 위와 아래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비유하자면 집안을 다스리는 도리도 좋은 밭을 갈게 하고 몸종은 음식을 만들게 하여, 개인적인 일에 소홀함이 없고 구하는 것이 모두 충족되어야 집주인이 여유롭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법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모든 일을 직접 챙기려 든다면 몸과 마음이 지쳐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종이나 몸종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니, 이는 집주인으로서 도리를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앉아서 도를 논하는 이를 삼공이라 일컬었고, 직접 움직여 실행하는 이를 사대부라 불렀습니다. 옛날 병길은 소가 혈떡이는 것을 걱정하느라 길가에서 사람이 죽은 것은 묻지도 않았고, 진평은 돈과 곡식의 수를 몰랐으나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상께서는 세세한 일까지 직접 처리하시느라 온종일 땀을 흘리고 계시니, 어찌 고단하지 않겠습니까? 사마의의 말이 참으로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라고 어찌 모르겠는가. 다만 선제께서 나에게 고아를 맡기신 무거운 책임을 받았기에, 다른 이들이 나만큼 정성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울 뿐이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이때부터 제갈량은 스스로 정신이 혼미해짐을 느꼈고, 장수들도 이를 보고 감히 군사를 움직이지 못했다.

한편, 위나라 장수들은 모두 제갈량이 여인의 옷과 수건을 보내 사마의를 모욕했음에도 사마의가 이를 받고도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장수들은 모두 분노하여 사마의의 막사로 들어가 고했다. "우리 모두 대국의 이름난 장수들인데, 어찌 촉나라 사람에게 이런 수모를 참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출전하여 승부를 결정지어야 합니다." 사마의가 말했다. "내가 싸우기가 두려워 수모를 달게 받는 것이 아니다. 천자께서 명백히 조서를 내려 굳게 지키며 움직이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가볍게 움직였다가는 황제의 명을 어기게 된다." 장수들은 모두 분통을 터뜨리며 불만을 나타냈다. 사마의가 다시 말했다. "그대들이 정녕 출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천자께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뒤 함께 힘을 합쳐 적을 맞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장수들이 이에 동의하자, 사마의는 즉시 상소문을 써서 사자를 보냈다. 사자는 합비에 있는 군대 앞까지 가서 위나라 황제 조예에게 상소문을 올렸다. 조예가 상소문을 펼쳐 읽어보니 내용은 이러했다.

"신은 재능이 부족함에도 무거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황제 폐하의 명백한 뜻을 받들어, 지금 신은 촉나라 군사가 스스로 지칠 때까지 굳게 지키며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갈량이 여인의 옷과 수건을 보내 신을 부인 취급하며 모욕하니, 그 치욕이 지극합니다. 신은 삼가 폐하께 먼저 아뢰나니, 조만간 목숨을 바쳐 한 판 싸움으로써 조정의 은혜에 보답하고 삼군 장병의 치욕을 씻고자 합니다. 신의 격분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절실합니다!"

조예가 보고를 다 읽은 뒤, 여러 관리에게 물었다. "사마의가 굳게 성을 지키며 나오지 않더니, 이제는 어찌하여 다시 상소를 올려 싸움을 청하는가?"

위나라의 위위 신비가 대답했다. "사마의는 본래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제갈량이 보낸 모욕 때문에 장수들이 분노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명확한 명령을 내려 장수들의 마음을 다스리고자 특별히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조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곧 신비에게 신표를 들려 위북채로 보내, 싸우지 말라는 명령을 전하라 이르고는 그를 보냈다. 사마의가 조서를 받고 막사에 들어서자, 신비가 명령을 선포했다. "만약 다시 싸움을 청하는 자가 있다면, 명령을 어긴 죄로 다스릴 것이다." 장수들은 어쩔 수 없이 조서를 받들 수밖에 없었다. 사마의는 신비에게 속으로 '그대가 참으로 내 마음을 잘 아는구려'라고 말하며 고마워했다. 그러고는 군중에 사마의에게 싸우지 말라는 위나라 황제의 명령이 내려왔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

촉나라 장수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제갈량에게 보고하자,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사마의가 군사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방법일 뿐이다."

강유가 물었다. "승상께서는 어찌 그것을 아십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그는 본래 싸울 마음이 없다. 싸움을 청하는 것은 장수들에게 무용을 과시하려는 것일 뿐이다. '장수가 밖에 있으면 임금의 명령이라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어찌 천 리나 떨어져 있으면서 싸움을 청한단 말인가? 이는 사마의가 장병들의 분노를 이용해 조예의 뜻을 빌려 사람들을 제압하려는 것이다. 이제 다시 이런 소문을 퍼뜨려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려 하는 것이니라."

한창 논의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비의가 도착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제갈량이 그를 안으로 불러 상황을 물으니, 비의가 말했다. "위나라 황제 조예가 동오의 군사가 세 갈래로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대군을 이끌고 합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만총, 전예, 유소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어 세 방향에서 적을 맞서게 했습니다. 만총이 계책을 세워 동오군의 군량과 전투 도구를 모조리 태워버린 데다 오나라 병사들 사이에도 병이 돌았습니다. 육손이 손권에게 상소를 올려 앞뒤로 협공하기로 약속했으나, 뜻밖에도 상소를 전달하던 사람이 도중에 위나라 군사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작전이 탄로 나는 바람에 오나라 군사는 아무런 성과 없이 퇴각했습니다." 제갈량은 이 소식을 듣고 길게 탄식하더니, 자신도 모르게 땅에 쓰러졌다. 장수들이 급히 구호하자 한참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제갈량이 탄식하며 말

했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옛 병이 도졌으니, 아마 살지 못할 것 같구나!" 그날 밤, 제갈량은 병든 몸을 이끌고 막사 밖으로 나와 하늘의 별을 살피다가 몹시 당황하며 막사로 돌아와 강유에게 말했다. "내 수명이 이제 풍전등화와 같구나!" 강유가 물었다. "승상,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내가 보니 삼태성 가운데 객성이 유난히 밝고 주성은 어둡게 숨어 있으며, 보조하는 별들의 빛도 흐릿하고 어둡구나. 천문이 이와 같으니 내 운명을 알 수 있겠느냐!" 강유가 말했다. "천문이 비록 그러하다 하나, 승상께서 어찌 기도를 드리는 방법으로 운명을 되돌려 보려 하지 않으십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나도 본래 기도를 올리는 법을 잘 알고 있으나, 하늘의 뜻이 어떠할지 알 수가 없구나. 너는 갑옷을 입은 병사 마흔아홉 명을 거느리고, 각자 검은 깃발을 들고 검은 옷을 입게 하여 내 막사 주위를 에워싸게 하라. 나는 막사 안에서 북두칠성에 기도를 올리겠다. 만약 칠 일 동안 주등이 꺼지지 않는다면 내 수명이 일기(一紀), 곧 십이 년이 더 늘어날 것이요, 만약 등불이 꺼진다면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잡다한 사람들은 절대 들여보내지 말고, 필요한 물건은 어린 아이 둘에게만 옮기도록 시켜라." 강유가 명을 받들고 나가 준비를 시작했다.

때는 마침 8월 중추절이었다. 그날 밤 은하수는 찬란하게 빛나고 이슬은 송골송골 맺혀 있었으며, 군기에는 바람 한 점 일지 않고 북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강유는 장막 밖에서 마흔아홉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호위했다. 제갈량은 장막 안에서 향과 꽃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바닥에는 커다란 등 일곱 개를 배치하고, 그 주위에 작은 등 마흔아홉 개를 둘렀으며, 중심에는 자신의 운명을 비는 본명등 하나를 놓았다.

제갈량이 절을 올리며 빌었다. "저 제갈량은 난세에 태어나 숲과 샘 사이에서 늙어가는 것을 달게 여겼으나, 소열제께서 세 번이나 찾아와 주신 은혜를 입고 외로운 황제를 보필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찌 개와 말처럼 온 힘을 다해 나라의 역적을 토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 장수의 별이 떨어지려 하고 천수가 다해가려 합니다. 삼가 글을 써서 하늘에 고하오니, 부디 자애로운 하늘이시여 굽어 살피어 신의 수명을 늘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고 백성을 구제하며, 옛 땅을 되찾아 한나라의 사직을 영원히 이어가게 하소서. 감히 망령되게 비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간절한 마음에서 우려 나온 것입니다."

제갈량은 빌기를 마치고 장막 안에 엎드려 동이 트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부터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정사를 돌보았는데, 피를 토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낮에는 군사 기밀을 논의하고, 밤에는 별의 운행을 살피며 기도를 올렸다.

한편, 사마의는 진영에서 굳게 버티며 수비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의 별자리를 살피던 사마의는 크게 기뻐하며 하후패에게 말했다.

"내가 보니 장성(將星)이 제 자리를 잃었으니, 제갈량은 필시 병이 들어 머지않아 죽을 것이네. 그대는 군사 천 명을 이끌고 오장원으로 가서 정찰을 하거나. 만약 촉나라 군사들이 혼란에 빠져 나와 맞서 싸우지 못한다면, 제갈량은 반드시 병이 깊어질 것이니 그때 내가 기세를 몰아 공격하겠네."

하후패가 군사를 이끌고 떠났다. 한편, 제갈량은 장막 안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기도를 올린 지 벌써 엿새째가 되었다. 주등(主燈)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고 제갈량은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그때 강유가 장막 안으로 들어오니, 마침 제갈량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칼을 잡고 별의 움직임에 맞춰 발걸음을 옮기며 장성을 누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진영 밖에서 함성이 들려왔다. 제갈량이 막 사람을 보내 상황을 물으려는데, 위연이 급히 달려 들어와 고했다.

"위나라 군사가 도착했습니다!"

위연이 너무 서둘러 달려온 나머지, 그만 제갈량이 정성을 들여 커둔 주등을 쳐서 꺼뜨리고 말았다. 제갈량은 칼을 내려놓으며 탄식했다.

"삶과 죽음은 하늘의 명에 달린 것이니, 기도로도 어찌할 수 없구나!"

위연은 황망하여 땅에 엎드려 죄를 청했다. 강유는 크게 분노하여 칼을 뽑아 위연을 죽이려 했다.

모든 일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한 사람의 정성으로도 천명과 다룰 수는 없는 법이다.

과연 위연의 목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4회 — 한나라 승상이 하늘로 돌아가고, 목상을 보고 위 도독이 간담이 서늘해지다

隕大星漢丞相歸天 見木像魏都督喪膽

한편, 강유는 위연이 등불을 밝아 꺼뜨리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크게 분노하여, 칼을 뽑아 위연을 죽이려 했다. 그러자 제갈량이 그를 말리며 말했다. "이것은 내 운명이 다한 것이지, 위연의 잘못이 아니다." 그제야 강유는 칼을 거두었다. 제갈량은 피를 몇 입 토해내더니 침상에 쓰러지며 위연에게 말했다. "사마의가 내가 병들었음을 눈치채고 사람을 보내 허실을 떠보려 하는 것이니, 너는 어서 나가 적을 맞이 하거라." 위연은 명령을 받들어 장막 밖으로 나가 말에 올라탄 뒤, 군사를 이끌고 진영을 돌파해 나갔다. 하후패는 위연을 보자마자 황급히 군사를 이끌고 퇴각했다. 위연이 스무 리 넘게 추격한 뒤에야 돌아왔다. 제갈량은 위연에게 다시 본진으로 돌아가 수비에 힘쓰라고 명했다.

강유가 막사 안으로 들어와 제갈량의 침상 곁에서 문안을 올렸다. 제갈량이 말했다. "나는 본래 충성을 다하고 힘을 쏟아 중원을 되찾고 한나라의 부흥을 이루려 했으나, 하늘의 뜻이 이와 같으니 내가 머지않아 죽게 되었구나. 내가 평생 배운 것을 정리하여 스물네 편의 책을 썼는데, 글자 수는 모두 십만 사천백열두 자이다. 그 안에는 여덟 가지 업무, 일곱 가지 경계, 여섯 가지 공포, 다섯 가지 두려움에 관한 법이 담겨 있다. 내가 여러 장수를 살펴보았으나 가르침을 전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오직 너에게만 이 책을 전하노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거라!" 강유는 울며 절을 하고 책을 받았다.

제갈량이 다시 말했다. "내게 '연노'를 만드는 법이 있으나 아직 써보지 못했다. 화살 길이는 여덟 치이며, 노 하나로 열 발의 화살을 쏠 수 있다. 모두 도면으로 그려 두었으니, 너는 이 법에 따라 만들어 사용하거라." 강유 역시 절을 하며 받았다. 제갈량이 또 말했다. "촉나라의 여러 길은 크게 걱정할 것 없으나, 오직 음평 지역만은 반드시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그곳은 비록 험준하지만, 머지않아 반드시 변고가 생길 것이다." 그러고는 마대를 불러 막사로 들여보낸 뒤, 귓속말로 밀계를 전하며 당부했다. "내가 죽은 뒤에 너는 이 계획대로 행하라." 마대는 계획을 듣고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양의가 들어왔다. 제갈량은 그를 침상 앞으로 불러 비단 주머니를 건네며 은밀히 당부했다. "내가 죽으면 위연이 반드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가 반란을 일으켜 너와 진을 마주하여 맞서게 되거든 그때 이 주머니를 열어라. 그때가 되면 위연을 처단할 사람이 절로 있을 것이다." 제갈량이 이처럼 모든 일을 차근차근 정리한 뒤 혼절하듯

쓰러졌는데,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깨어나 밤을 새워 후주에게 올릴 표문을 작성했다.

후주는 이 보고를 받고 크게 놀라, 상서 이복에게 급히 명을 내려 밤을 도와 군중으로 가서 문안을 드리고 사후의 일을 물으라고 했다. 이복은 명을 받들고 서둘러 오장원으로 달려가 제갈량을 만나 후주의 명을 전하고 문안을 마쳤다.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불행히도 도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 국가의 대사를 허비하고 천하의 죄인이 되었구나. 내가 죽은 뒤에는 그대들이 마땅히 충성을 다해 주군을 보필해야 한다. 국가의 옛 제도는 바꾸어서는 안 되며, 내가 쓰던 사람들을 함부로 폐해서도 안 된다. 나의 병법은 모두 강유에게 전수했으니, 그가 스스로 나의 뜻을 이어받아 국가를 위해 힘쓸 것이다. 내 명은 이제 하루하루가 위태로우니, 즉시 후주에게 올릴 표문을 작성해야겠다." 이복은 이 말을 듣고 서둘러 물러갔다.

제갈량은 억지로 병든 몸을 일으켜 좌우의 부축을 받으며 작은 수레에 올라탔다. 그리고 진영을 돌며 각 부대를 살폈다.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뺨속까지 시린 한기가 느껴졌다. 제갈량은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다시는 전장에서 적을 토벌할 수 없겠구나! 아아, 끝없는 저 푸른 하늘이여, 어찌 이리도 가혹하단 말인가!"

한참을 탄식하다 막사로 돌아온 제갈량은 병세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양의를 불러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마대, 왕평, 요화, 장익, 장억 등은 모두 충의로운 장수들로, 오랜 시간 전장을 누비며 공을 세웠으니 믿고 맡길 만하다. 내가 죽은 뒤에는 모든 일을 예전 방식 그대로 시행하라. 퇴각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너는 모략에 밝으니 내가 따로 길게 당부할 필요는 없겠구나. 강유는 지혜와 용기를 모두 갖추었으니 후방을 맡아 지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양익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리고 명을 받들었다. 제갈량은 문방사우를 가져오게 하여 침상 위에서 후주에게 올릴 유표를 써 내려갔다. 유표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살고 죽는 일은 늘 있는 법이며 정해진 운명을 피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 신 제갈량은 남은 힘을 다해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신은 본래 어리석고 졸렬한 데다 시대적 난국까지 맞이하였습니다. 부절을 나누어 갖고 군권을 장악하여 군사를 일으켜 북벌에 나섰으나, 끝내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병세가 깊어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폐하를 모시고 대업을 완수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한스러움이 끝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맑게 하시며 스스로를 절제하고 백성을 사랑하소서. 선험제께는 효도를 다하고, 온 세상에는 인자함을 베푸소서. 숨겨진 인재를 발탁하여 어진 이들을 등용하시고, 간사하고 사악한 무리를 물리쳐 풍속을 두텁게 하소서."

"신에게는 성도에 뽕나무 팔백 그루와 작은 밭 열다섯 경이 있어, 자식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신이 밖에서 임무

를 수행할 때도 별도로 재산을 모은 적이 없으며, 몸에 쓰는 모든 의식주는 오로지 나라의 지원에 의지했을 뿐, 사사로이 재산을 불리려 애쓴 적도 없습니다. 신이 죽는 날에는 집안에 남은 비단이 과하지 않게 하고, 밖으로 흘러나간 재물이 남지 않게 하여, 폐하께 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갈량이 글을 다 쓴 뒤, 양의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내가 죽은 뒤에는 상을 알리지 말게. 커다란 관을 준비해 내 시신을 얹혀 두고, 입안에는 쌀 일곱 알을 넣어 주게나. 발치에는 밝은 등불 하나를 켜 두고, 군중은 평소처럼 고요하게 유지하며 절대로 슬퍼하는 기색을 내지 말아야 하네. 그래야만 나의 장성(將星)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 혼령이 다시 일어나 군대를 지킬 수 있네. 사마의가 장성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본다면 반드시 의심하며 놀랄 것이야. 우리 군대는 후방 진영이 먼저 움직이게 한 뒤, 각 영이 차례대로 천천히 퇴각하도록 하게나. 만약 사마의가 추격해 온다면, 자네는 진형을 갖추고 깃발과 북을 돌려 신호를 보내게. 그가 도착했을 때 미리 만들어 둔 내 목상을 수레에 실어 군대 앞으로 내보내고, 장졸들이 좌우로 늘어서게 하게나. 사마의가 그것을 본다면 분명 겁을 먹고 달아날 것이네." 양의는 이 모든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명심하며 대답했다.

그날 밤, 제갈량은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가 북두칠성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멀리 별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것이 바로 나의 장성이로구나." 사람들이 살펴보니 그 별빛이 어둑어둑하며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흔들리고 있었다. 제갈량이 칼로 그 별을 가리키며 주문을 외우더니, 주문을 마치자마자 급히 장막 안으로 돌아왔으나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장수들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상서 이복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제갈량이 혼절하여 말도 못 하는 것을 보고 크게 울며 말했다. "내가 국가의 큰일을 그르쳤구나!"

잠시 후 제갈량이 다시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니 이복이 침상 앞에 서 있었다. 제갈량이 말했다. "그대가 다시 찾아온 뜻을 이미 알고 있네." 이복이 절하며 말했다.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 승상께서 돌아가신 뒤에 누가 큰일을 맡을 수 있을지 여쭙러 왔습니다. 급히 오느라 제대로 여쭙지 못해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내가 죽은 뒤에 큰일을 맡기에 적당한 사람은 장완이 될 것이네." 이복이 물었다. "장완의 뒤를 이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비의가 그 뒤를 이을 수 있을 것이네." 이복이 다시 물었다. "비의의 뒤에는 누가 이어받아야 합니까?" 제갈량은 대답하지 않았다. 장수들이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때는 건흥 12년 가을 8월 23일이었으며, 향년 54세였다. 훗날 두보가 시를 지어 그를 탄식하며 이렇게 읊었다.

"어젯밤 전영에 떨어진 밝은 별, 오늘 선생의 소식에 무너지는구나. 호랑이 장막에 명령 소리 들리지 않고, 기린의 자리에 공적만이 빛나네. 문하의 삼천 객은 허공에 남았는데, 가슴 속 십만 병사들을 저버렸구나. 푸른 그늘 우거진 맑은 낮에, 이제 다시는 고아한 노래 소리 들리지 않으리!"

백락천도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선생은 자취를 감추고 산림에 누워 계셨으나, 세 번이나 찾아온 성주를 어찌 만날 수 있었겠는가. 물고기가 남양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물을 만났고, 용이 한나라 하늘로 날아올라 곧 단비가 되었도다. 외로운 후주를 부탁하며 정성을 다해 예우를 갖추었으니, 나라에 보답하고자 충의의 마음을 다 쏟았구나. 앞뒤로 남긴 출사표가 여전히 남아 있으니, 한 번 읽는 이마다 눈물로 옷깃을 적시네."

일찍이 축한의 장수교위 요립은 스스로 재주와 명성이 제갈량의 부관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직위가 한가롭고 소홀한 것에 불만을 품고 끊임없이 원망하며 험담을 일삼았다. 이에 제갈량이 그를 평민으로 강등시키고 문산으로 유배 보냈다. 요립은 제갈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이제 끝내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오랑캐의 지배를 받게 되겠구나!" 이엄도 이 소식을 듣고 크게 통곡하다가 병을 얻어 죽었다. 이엄은 일찍이 제갈량이 자신을 다시 받아주어 지난 잘못을 만회할 수 있기를 바랐는데, 제갈량이 죽고 나면 아무도 자신을 쓰지 못할 것이라 짐작했기 때문이다. 훗날 원미지가 제갈량을 찬양하며 지은 시는 이러하다.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리고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며, 정성스런 마음으로 유지를 받드셨네. 그 영특한 재주는 관중과 악의를 능가하고, 기묘한 계책은 손무와 오기를 압도하였네. 서슬 퍼런 출사표와 당당한 팔진도는, 공의 온전한 덕을 생각하면 고금을 통틀어 탄식할 만하도다!"

그날 밤, 하늘은 슬픔에 잠기고 땅은 참담하여 달빛조차 빛을 잃었으니, 제갈량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강유와 양의는 제갈량의 유명을 받들어 감히 슬픔을 드러내지 못하고, 법도에 따라 시신을 수습하여

관에 안치한 뒤 심복 장졸 삼백 명에게 지키게 했다. 이어 비밀 명령을 내려 위연에게 후방을 맡기고, 각 진영의 군사들을 하나둘씩 퇴각시켰다.

한편, 사마의가 밤에 하늘의 별자리를 살피는데, 붉은 빛을 띠고 빛 줄기에 뿔이 달린 커다란 별 하나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흘러가더니 촉나라 진영 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별은 세 번 떨어졌다가 다시 솟아오르며 은은한 소리까지 났다. 사마의가 깜짝 놀라 기뻐하며 말했다.

"제갈량이 죽었구나!"

사마의는 즉시 명령을 내려 대군을 일으켜 추격하려 했다. 그런데 막 진영 문을 나서려던 찰나, 문득 의구심이 생겨 혼잣말을 했다.

"제갈량은 도술에 능한 자다. 지금 내가 오랫동안 싸우지 않는 것을 보고, 저런 술수로 죽음을 가장하여 나를 유인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 추격했다가는 반드시 그 계략에 빠지고 말 것이다."

결국 사마의는 다시 말머리를 돌려 진영으로 돌아가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하후패에게만 몰래 기병 수십 명을 이끌고 오장원 구석진 곳으로 가서 소식을 정탐해 오라고 명했다.

한편, 위연은 자신의 진영에서 밤중에 꿈을 하나 꾸었다. 꿈속에서 갑자기 머리에 두 개의 뿔이 돋아났는데, 잠에서 깨어난 위연은 무척 의아하고 이상하게 여겼다. 다음 날, 행군사마 조직이 찾아오자 위연은 그를 안으로 불러 들여 물었다.

"그대가 평소 주역의 원리에 밝다고 들었네. 내가 어젯밤 꿈에 머리에 뿔이 돋았는데, 이것이 길조인지 흉조인지 모르겠으니 부디 나를 위해 판단해 주게."

조직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이것은 아주 큰 길조입니다. 기린이나 창룡의 머리에도 뿔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변화하여 하늘로 날아오를 상징입니다."

위연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대의 말대로 된다면 반드시 크게 사례하겠네!"

조직이 물러가서 몇 리쯤 갔을 때, 마침 상서 비의를 만났다. 비의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조직이 대답했다.

"방금 위연의 진영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위연이 꿈에 머리에 뿔이 돋았다고 하여 길흉을 물어보기에 답해 주었습니다. 사실 길조가 아닌 듯싶었으나, 사실대로 말했다가 미움을 살까 두려워 기린과 창룡을 들어 좋게 풀이해 주었습니다."

비의가 물었다.

"그대는 어째서 그것이 길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가?"

조직이 말했다.

"뿔 각(角) 자의 모양을 보면 칼 도(刀) 자 아래에 쓸 용(用) 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머리 위에 칼을 쓰고 있으니 그 흉함이 매우 심할 것입니다!"

비의가 말했다.

"그대는 이 사실을 함부로 발설하지 말게나."

조직과 헤어진 비의가 위연의 진영에 도착하자, 좌우의 부하들을 물리고 위연에게 고했다.

"어젯밤 삼경에 승상께서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종 시에 몇 번이고 당부하시기를, 장군께서는 후방을 맡아 사마의를 막아내며 천천히 퇴각하되, 승상의 부고를 미리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병부가 있으니 이제 군사를 일으키셔도 됩니다."

위연이 물었다.

"그럼 누가 승상의 대사를 대리하는가?"

비의가 답했다.

"승상께서 모든 대사를 양의에게 맡기셨고, 군사를 부리는 비밀스러운 법은 모두 강유에게 전수하셨습니다. 이 병부는 양의의 명령입니다."

위연이 말했다.

"승상께서 비록 돌아가셨으나 나는 아직 살아있네. 양의는 일개 장사일 뿐인데 어찌 이런 중책을 맡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그저 관을 받들어 축한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르는 일에만 전념해야 하네. 나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사마의를 공격하여 반드시 공을 세울 것이니, 어찌 승상 한 사람 때문에 국가의 대사를 그르칠 수 있겠는가?"

비의가 말했다.

"승상의 유언은 잠시 퇴각하라는 것이니 이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위연이 화를 내며 말했다.

"승상께서 당시에 내 계책을 따랐더라면 진작에 장안을 차지했을 것이네! 나는 지금 전장군이자 정서대장군 남정후인데, 어찌 일개 장사 따위와 함께 후방을 지키며 물러난단 말인가!"

비의가 말했다.

"장군의 말씀도 일리가 있으나, 경거망동하여 적들에게 비웃음을 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양의를 찾아가 이해득실을 잘 설명하여, 그가 병권을 장군께 넘겨주도록 설득해 볼 테니 어떻습니까?"

위연은 그 말에 따르기로 했다.

비의가 진영 밖으로 나와 급히 대진으로 달려가 양의를 만난 뒤, 위연이 했던 말을 상세히 전했다. 양의가 말했다.

"승상께서 임종하시기 전, 내게 '위연이 반드시 탄마음을 품을 것이다'라며 비밀리에 당부하신 적이 있소. 그래서 내가 병부를 들고 간 것도 사실 그의 속마음을 떠보려 함이었는데, 과연 승상의 말씀이 맞았구려. 이제 내가 강유에게 후방을 맡아 퇴각하라 명하면 될 것이오."

이에 양의는 군사를 거느리고 관을 모셔 앞장서 나갔고, 강유에게 후방을 지키며 퇴각하라고 명했다. 이들은 제갈량이 남긴 유언에 따라 천천히 군을 물렸다.

한편, 진영에 있던 위연은 비의가 돌아와 소식을 전해주지 않자 마음속으로 의구심이 생겼다. 이에 마대에게 기병 십여 명을 이끌고 가서 소식을 알아오라고 시켰다. 마대가 돌아와 보고했다.

"후군은 강유가 총괄하고 있으며, 전군의 대부분은 이미 골짜기 안으로 퇴각했습니다."

위연이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그 유학자 놈들이 감히 나를 속이다니! 내가 반드시 그놈들을 죽여 버리겠다!"

그러고는 마대를 돌아보며 물었다.

"자네, 나를 도와주겠는가?"

마대가 대답했다.

"저 또한 평소 양의를 원망하고 있었으니, 지금 장군을 도와 그를 치고 싶습니다."

위연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진영을 걷어내고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남쪽을 향해 진격했다.

한편, 하후패가 군사를 이끌고 오장원에 도착해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는 급히 사마의에게 돌아가 보고했다. "촉나라 군사들이 이미 모두 퇴각했습니다." 사마의가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제갈량이 정말 죽었던 말인가! 어서 추격하라!" 하후패가 만류했다. "도독님, 가볍게 추격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편장들을 보내 살펴야 합니다." 사마의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야겠다." 사마의는 곧장 두 아들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오장원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함성을 지르고 깃발을 흔들며 촉나라 진영으로 들이닥쳤으나, 과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마의가 두 아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서둘러 병사들을 독촉해 따라오너라. 나는 먼저 군사를 이끌고 전진하겠다." 사마사, 사마소는 뒤에서 군사를 재촉했고, 사마의는 직접 앞장서서 추격했다. 산기슭에 이르러 촉나라 군사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을 본 사마의는 힘을 다해 뒤쫓았다.

그런데 갑자기 산 너머에서 포성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촉나라 군사들이 일제히 깃발을 돌리고 북을 치며 물러나는 듯하더니, 나무 그림자 사이로 중군 대기가 나타났다. 그 깃발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나라 승상 무향후 제갈량' 사마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깜짝 놀랐다.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니, 중군의 장수 수십 명이 사륜거 한 대를 호위하며 나오고 있었다. 수레

위에는 제갈량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비단 모자를 쓰고 깃털 부채를 든 채, 흰 도포를 입고 검은 띠를 매고 있었다. 사마의가 경악하며 외쳤다. "제갈량이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경솔하게 적진 깊숙이 들어와 저들의 계략에 빠졌도다!" 그는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때 뒤에서 강유가 크게 소리쳤다. "적장아, 거기 서라! 너는 우리 승상님의 계략에 빠졌다!" 위나라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갑옷과 투구를 내팽개치고 창과 칼을 버린 채 제각기 목숨을 구하려 도망쳤다. 서로 밟고 밟히며 죽는 자가 부지기수였다.

사마의가 50여 리를 달아나고 있을 때, 뒤따라오던 위나라 장수 두 명이 말 고삐를 붙잡으며 말했다. "도독님, 놀라지 마십시오." 사마의가 손으로 머리를 더듬으며 물었다. "내 머리가 붙어 있느냐?" 두 장수가 대답했다. "도독님, 무서워 마십시오. 촉나라 군사들은 이미 멀리 떠났습니다." 사마의는 한참을 헐떡이며 숨을 고른 뒤에야 겨우 안색을 가다듬었다. 눈을 떠 살펴보니 하후패와 하후혜였다. 그는 천천히 고삐를 당겨 두 장수와 함께 셋길로 돌아 본진으로 향했고, 다른 장수들에게는 군사를 나누어 사방을 정찰하게 했다.

이틀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고했다. "촉나라 군사가 골짜기로 퇴각할 때 통곡 소리가 땅을 울렸고, 군대에서는 백기를 흔들었습니다. 제갈량이 정말로 죽었나 봅니다. 강유가 겨우 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후방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엇그제 수레에 타고 있던 제갈량은 사실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사마의가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그의 생사는 짐작할 수 있었으나, 그의 죽음까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구나!"

이 일로 인해 촉나라 사람들은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의를 쫓아낸다"라는 속담을 남겼다. 후대의 시인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읊으며 탄식했다.

"한밤중에 큰 별이 하늘의 중심을 지나 떨어지니, 급히 달려가 보아도 제갈량이 아직 죽지 않았을까 의심되네. 국경 너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비웃고 있으니, 그 머리가 아직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리오!"

사마의는 제갈량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다시 군사를 이끌고 추격했다. 적안파까지 이르렀으나 촉한의 군사들이 이미 멀리 떠난 것을 보고는 군대를 돌리며 장수들에게 말했다.

"제갈량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 모두 근심 없이 발을 뻗고 잘 수 있게 되었다!"

말을 마친 사마의는 군대를 이끌고 회군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갈량이 진을 치고 머물던 곳들을 살펴보니, 앞뒤 좌우의 배치가 매우 정연하고 질서가 잡혀 있었다. 사마의는 탄식하며 말했다.

"과연 천하의 기재로구나!"

그는 군사를 이끌고 장안으로 돌아가 장수들을 나누어 배치하여 각자 요충지를 지키게 했다. 그리고 나서 사마의는 스스로 낙양으로 돌아가 황제를 알현했다.

한편, 양의와 강유는 진형을 갖추어 천천히 참각도로 퇴각했다. 그 후 의복을 갈아입고 상을 치르는 예식을 올리며 깃발을 세워 슬픔을 알

렸다. 축한의 군사들은 모두 땅을 치며 통곡했는데, 심지어 울다 지쳐 죽는 자까지 나올 정도였다. 축군 전위 부대가 막 참각도 입구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앞쪽에서 불길이 하늘을 찌를 듯 솟구치고 함성이 땅을 흔드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무리의 군사가 길을 가로막고 나타났다. 장수들이 크게 놀라 급히 양의에게 보고했다.

위나라 장수들이 떠난 줄로만 알았더니, 축나라 땅에 또 다른 군사가 들이닥쳤으니.

과연 찾아온 군사가 어느 나라 군대인지,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5회 — 무후가 금남계로 미리 매복 을 준비하고, 위나라 주군이 승로반을 뜯 어내다

武侯預伏錦囊計 魏主拆取承露盤

한편, 양의는 앞길이 군사들에게 가로막혔다는 보고를 듣고 급히 사람을 보내 정찰하게 했다. 곧 돌아온 보고에 따르면, 위연이 잔도(절벽에 낸 사다리길)를 불태워 끊어버리고 군사를 이끌어 길을 막고 있다고 했다. 양의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승상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이 자가 머지않아 반드시 반란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설마 오늘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이제 돌아가는 길마저 끊겼으니 앞으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비의가 말했다. "저 자는 분명 먼저 황제께 상소를 올려 우리가 반역을 꾀한다고 모함할 것입니다. 그래서 잔도를 태워 우리의 귀로를 막은 것이지요. 우리도 즉시 황제께 상소를 올려 위연의 반역 사실을 알린 뒤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자 강유가 말했다. "이 근처에 차산(槎山)이라는 작은 셋길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험하고 가파르긴 하지만, 그 길을 이용하면 잔도 뒤편으로 몰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황제께 상소를 올리는 일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와 말을 이끌고 차산의 셋길로 이동합시다."

한편, 성도에 있던 후주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할 만큼 근심에 싸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성도의 금병산이 무너져 내리는 꿈이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후주는 밤이 밝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다가, 문무백관을 불러 모아 조정에서 꿈의 의미를 풀이하게 했다.

그러자 초주가 말했다. "신이 어젯밤 천문을 살피니, 붉은 빛을 띠고 광채에 뿔이 달린 별 하나가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승상에게 큰 재앙이 닥칠 징조입니다. 이제 폐하께서 산이 무너지는 꿈을 꾸셨으니, 바로 이 징조와 일치합니다."

후주는 더욱 겁에 질려 떨었다. 이때 갑자기 이복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후주는 급히 그를 불러 물었다. 이복은 머리를 조아리며 울면서 승상이 이미 세상을 떠났음을 고했다. 그리고 승상이 임종 직전에 남긴 말을 하나하나 상세히 전했다.

그 말을 들은 후주는 크게 통곡하며 외쳤다.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후주는 용상 위로 쓰러졌고, 신하들이 그를 부축해 후궁으로 옮겼다. 오테후 또한 이 소식을 듣고 목놓아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수많은

은 관리들이 슬픔을 금치 못했고, 백성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후주는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겨 조정을 열지 못했다.

그러던 중, 위연이 양의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상소를 올렸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신하들은 크게 놀라 궁으로 달려가 후주에게 보고했다. 마침 오테후도 궁 안에 있었다. 보고를 받은 후주는 크게 놀라며 측근에게 위연의 상소문을 읽게 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정서대장군 남정후 위연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상소했다.

"양의가 병권을 장악하더니 무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승상의 영구까지 탈취하여 적군을 불러들여 나라를 위태롭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신은 우선 산도를 불태워 길을 끊고 군사를 배치해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삼가 보고를 올립니다."

보고를 다 들은 후주가 말했다. "위연은 용맹한 장수라 양의 일행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산도를 불태워 없었던 말인가?"

그러자 오테후가 말했다. "일찍이 선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갈량이 위연의 뒷머리에 반골의 기운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매번 그를 베려했으나, 그 용맹함이 아까워 잠시 살려두어 쓴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위연이 양의 등이 반역을 꾀한다고 상소하였으니, 그 말을 가볍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양의는 문관으로서 승상이 장사의 직책을 맡기셨으니, 분명 쓸 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한쪽의 말만 듣는다면, 양의 일행은 반드시 위나라에 투항할 것입니다. 이 일은 마땅히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아야 하며,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관리가 한창 의논을 나누던 중, 갑자기 장사 양의에게 긴급한 상소문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곁에 있던 신하가 상소문을 뜯어 읽기를,

장사 양의가 군을 거느리는 장군으로서 황송하고 두려운 마음을 담아 머리를 조아리며 상소를 올렸습니다.

"승상께서 임종하시며 큰일을 저에게 맡기셨기에, 저는 예전의 제도에 따라 감히 바꾸지 않고 위연이 뒤를 지키고 강유가 그 다음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연이 승상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자기 부대의 군사들을 이끌고 먼저 한중으로 들어가 산길을 불태워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승상의 영구를 탈취하여 반역을 꾀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갑작스럽게 벌어져 급히 글을 올려 보고하나이다."

태후가 말을 다 듣고는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장완이 아뢰었다. "신이 미천한 소견으로 보건대, 양의는 성격이 다소 급하고 너그러운 면이 부족할지 모르나, 오랫동안 군량과 군사를 계획하고 제갈량의 업무를 도왔습니다. 이제 제갈량이 임종하며 큰일을 맡겼으니, 결코 배반할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위연은 평소 공이 높음을 믿고 남들을 업신여겨 왔습니다. 양의만이 그를 따르지 않으니 위연이 마음속에 원한을 품은 것입니다. 지금 양의가 군대를 총괄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불복하여, 산도를 불태워 돌아오는 길을 끊고 거짓 상소를 올려 모함하려 하는 것입니다. 신이 가족과 노비들을 다 걸고 양의는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 보증할 수는 있어도, 위연은 결코 보증할 수 없습니다."

이어 동윤도 아뢰었다. "위연은 스스로 공이 높다고 자부하며 늘 불만을 품고 원망 섞인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예전에 반란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오직 제갈량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갈량이 막 세상을 떠났으니, 기회를 틈타 난을 일으키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만약 양의가 재능이 뛰어나 제갈량의 신임을 받았다면, 결코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주가 물었다. "만약 위연이 정말로 반란을 일으킨다면, 어떤 대책으로 막아야 하겠는가?"

장완이 대답했다. "제갈량께서 평소 위연을 의심하셨으니, 분명 양의에게 남겨둔 계책이 있을 것입니다. 양의가 아무런 믿는 구석이 없는 데 어찌 감히 골짜기 입구로 몰려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위연은 반드시 계책에 빠질 것이니, 폐하께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위연이 다시 상소를 올려 양의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고했다. 마침 상소를 읽고 있는데, 이번에는 양의의 상소가 도착하여 위연이 배반했다고 고해왔다. 두 사람이 연이어 상소를 올리며 서로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비의가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후주가 그를 불러들이자, 비의는 위연이 반란을 꾀하는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다. 후주가 말했다. "상황이 정녕 그러하다면, 동윤에게 명을 내려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부드러운 말로 달래어 상황을 진정시키도록 하라." 동윤은 황제의 명을 받들어 길을 떠났다.

한편, 위연은 산도를 불태우고 남곡에 군사를 주둔시켜 험한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자신의 계책이 성공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양의와 강

유가 밤을 도와 군사를 이끌고 남곡 뒤편으로 우회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양의는 한중을 잃을까 걱정되어 선봉장 하평에게 군사 삼천 명을 이끌고 먼저 나아가게 했다. 이어 양의는 강유 등과 함께 영구를 모시고 한중을 향해 나아갔다.

한편, 이야기는 이러하다. 하평이 군사를 이끌고 곧장 남곡 뒤편으로 가서 북을 치며 크게 소리쳤다. 이 소식은 파수병을 통해 위연에게 급히 전해졌다. 보고에 따르면 양의가 선봉장 하평을 보내 차산의 셋길로 우회하여 공격해 온다고 했다. 위연은 크게 분노하여 급히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 칼을 든 채 맞서 싸우러 나갔다.

두 진영이 마주 대치하자, 하평이 말을 몰아 크게 꾸짖었다. "반역자 위연은 어디 있느냐!" 위연 역시 맞서 소리쳤다. "네놈이 양의를 도와 반란을 꾀하면서 감히 나를 꾸짖느냐!" 하평이 다시 호통을 쳤다. "승상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온기가 가시지도 않았거늘, 네놈이 어찌 감히 반역을 꾀한단 말이냐!" 그러고는 채찍으로 축나라 군사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희 군사들은 모두 서천 사람이다. 서천에는 너희의 부모와 처자식, 형제와 친척들이 살고 있다. 승상께서 살아 계실 때는 너희를 홀대하지 않으셨으니, 지금은 반역자를 돕지 말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상을 기다리도록 하라."

군사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한 번 소리를 지르더니, 절반 이상이 흩어져 버렸다. 위연은 격노하여 칼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 곧장 하평을 덮쳤고, 하평도 창을 세워 맞서 싸웠다. 몇 합을 겨루다 하평이 일부러 패한 척하며 도망치자 위연이 그 뒤를 쫓았다. 그때 흩어졌던 군사들이 일제히 화살을 쏘아 대자 위연은 말머리를 돌려 돌아왔다. 군사들이 속

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본 위연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말을 달려 추격하며 몇 명을 죽였으나,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 오직 마대가 이끄는 삼백 명의 병사만이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위연이 마대에게 말했다. "그대가 진심으로 나를 돕는다면, 일이 성사된 후에 결코 그대를 저버리지 않겠소." 말을 마친 위연은 마대와 함께 하평을 추격했다. 하평은 군사를 이끌고 급히 도망쳐 버렸다. 위연은 남은 군사들을 모아 마대와 상의하며 말했다. "우리가 위나라에 투항하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마대가 대답했다. "장군님의 말씀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대장부가 어찌 스스로 패업을 도모하지 않고 남에게 무릎을 꿇으려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장군님은 지혜와 용기를 모두 갖추셨으니, 양천(동천과 서천)의 장수 중 누가 감히 장군님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저는 장군님과 뜻을 같이하여 먼저 한중을 차지한 뒤, 이어서 양천을 공략할 것을 맹세합니다."

위연은 크게 기뻐하며 마대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곧장 남정으로 진격했다. 강유는 남정 성벽 위에서 위연과 마대가 위세를 떨치며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급히 다리 입구를 막으라고 명령했다. 위연과 마대가 크게 소리쳤다. "어서 항복하라!"

강유는 사람을 시켜 양의를 불러와 의논했다. "위연은 용맹한 데다 마대까지 돕고 있으니, 비록 군사는 적으나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양의가 말했다. "승상께서 임종하시기 전 금강 하나를 남기시며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만약 위연이 반란을 일으켜 성을 마주하고 적과 대치하게 될 때 비로소 열어보라. 그러면 위연을 베는 계책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꺼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익이 금낭을 꺼내 봉인을 뜯어보니, 그 안에는 '위연과 적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열어보라'고 적혀 있었다. 강유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승상께서 미리 경고하며 남기신 것이니, 장사께서 잘 보관하십시오. 내가 먼저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진을 칠 테니, 장사께서는 곧바로 오십시오."

강유는 갑옷을 갖춰 입고 말에 올라 창을 손에 쥐었다. 그는 삼천 군사를 이끌고 성문을 열어 일제히 돌격하니 북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진영을 갖추었다. 강유는 창을 곧게 세우고 말에 올라 성문 깃발 아래 서서 큰 소리로 꾸짖었다. "반역자 위연아! 승상께서 너를 어찌 대우하셨는데, 오늘 어찌하여 배신을 한단 말이냐!"

위연은 칼을 옆에 차고 말 고삐를 당기며 말했다. "백약,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그저 양익을 불러오너라!"

양익은 성문 깃발 뒤에 숨어 금낭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 내용을 읽은 양익은 크게 기뻐하며 가벼운 기병을 이끌고 나가 진영 앞에 섰다. 그는 말을 타고 위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으며 말했다. "승상께서 살아 계실 때,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반란을 일으킬 것을 알고 대비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과연 그 말씀이 맞았구나! 내가 만약 말 위에서 '누가 나를 죽이겠느냐'라고 세 번 연달아 외친다면, 너는 진정한 대장부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한중의 성읍을 네게 바치겠다."

위연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양익, 이 미친한 놈아 잘 들어라! 만약 제갈량이 살아 있었다면 내가 그를 조금은 두려워했겠지만, 그가 이미

죽었으니 천하에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세 번을 외치는 것은 커녕 삼만 번을 외친들 무엇이 어렵겠느냐!"

그러고는 칼을 들고 고삐를 잡은 채 말 위에서 크게 외쳤다. "누가 나를 죽이겠느냐!"

그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쪽에서 한 사람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말과 함께 칼이 떨어지며 위연을 말 아래에서 베어 넘겼다. 구경하던 이들이 모두 깜짝 놀랐는데, 위연을 벤 사람은 바로 마대였다. 알고 보니 제갈량이 임종할 때 마대에게 밀계를 내려, 위연이 외치는 순간 허점을 찔러 베도록 한 것이었다. 당시 양의는 금강의 계책을 읽고 마대가 매복해 있음을 알아차렸기에 계책대로 행동하여 과연 위연을 죽였다. 후세 사람들이 시로 이르기를 다음과 같다.

"제갈량은 미리 짐작하여 위연이 훗날 서천을 배반할 것을 알았네. 금강에 남긴 계책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으니, 결국 승패는 말 앞에서 결정되었구나."

한편, 동윤이 남정에 도착하기도 전에 마대가 이미 위연을 죽이고 강유의 군사와 합쳤다. 양의는 즉시 상소문을 올려 밤을 도와 후주에게 보고했다. 후주는 조서를 내려 말했다. "이미 그 죄를 명백히 밝혀 바로 잡았으나, 그간의 공로를 생각하여 관을 내려줄 테니 장례를 치르게 하라." 양의 등이 제갈량의 영구를 메고 성도로 돌아오자, 후주는 문무 관료들을 이끌고 모두 상복을 입은 채 성 밖 이십 리까지 나가 영구를 맞이했다. 후주는 목을 놓아 크게 울었다. 높은 관리부터 산림의 백성

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슬피 울어 그 애통한 소리가 땅을 흔들 정도였다. 후주는 영구를 성 안으로 들여보내 승상부(제갈량의 저택)에 안치하게 했다. 제갈량의 아들 제갈첨은 상복을 입고 상을 치렀다.

후주가 조정으로 돌아오자, 양의는 스스로 죄를 청하며 벌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후주는 가까운 신하를 보내 양의를 달래며 말했다. "그대가 승상의 유언을 잘 받들어 따랐기에, 영구가 언제쯤 성도로 돌아올 수 있었겠으며 위연이 어찌 처단될 수 있었겠는가. 큰일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대의 힘 덕분이다." 그리하여 후주는 양의를 중군사로 승진시켰다. 마대는 반역을 토벌한 공을 인정받아 위연이 누리던 작위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양의가 제갈량의 유표를 올리자, 후주는 이를 다 읽고는 크게 통곡하며 명을 내려 장지를 정하고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 비의가 아뢰기를, "승상께서 임종하실 때 정군산에 장사 지내되, 담장이나 벽돌을 쌓지 말고 그 어떤 제물도 사용하지 말라고 유언하셨습니다."라고 하자 후주는 그 뜻을 따랐다. 후주는 올해 10월의 길일을 택하여 직접 영구를 정군산까지 운반해 안장했다. 또한 조서를 내려 제사를 지내게 하며 시호를 충무후로 정하고, 면양에 사당을 세워 사계절 내내 제사를 올리게 했다.

훗날 두보(두공부)가 제갈량을 기리며 지은 시는 이러하다.

"승상의 사당을 어디서 찾으려나, 금관성 밖에는 잣나무 푸르는데.
계단에 비친 푸른 풀은 절로 봄빛을 띠고, 앞 사이로 들리는 찹꼬리 소

리만 공허하구나. 세 번이나 찾아가 천하의 계책을 고민하고, 두 임금을 도와 나라를 일으킨 노신의 마음. 출사하여 승리하기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니, 영웅들의 눈물만 끊임없이 흐르게 하는구나!"

또한 두공부가 쓴 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제갈량의 드높은 이름은 온 우주에 길이 드리웠고, 으뜸가는 신하의 남은 초상은 엄숙하고 맑고 고결하구나.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차지하느라 갖은 책략을 다 짜냈으니, 만고의 높은 하늘에 한 가닥 깃털과 같도다. 그 재능은 이윤(伊尹)·여상(呂尚)에 견줄 만하고, 침착하게 군대를 지휘함은 소하(蕭何)·조참(曹參)도 무색케 하였네. 한나라의 국운이 옮겨가 끝내 회복하기 어려웠으나, 뜻을 굳히고 몸을 바쳐 군무에 힘쓰다 스러졌도다."

한편, 후주가 성도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가까운 신하가 아뢰었다. "변방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오나라의 전종이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바구 경계에 진을 쳤는데, 어떤 의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후주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승상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나라가 동맹을 어기고 국경을 침범하다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그러자 장완이 아뢰었다. "신이 왕평과 장익에게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영안에 주둔하게 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까. 폐하께서는 한 사람을 더 오나라에 보내 승상의 부고를 알리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살피게 하소서." 후주가 말했다. "말씀씨가 뛰어나 설득력이 있는 자를 사절로 보내야 한다." 그때 한 사람이 대답하며 앞으로 나서 말했다. "소신이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살펴보니, 그는 남양 안중(安中) 사람으로 성은 종(宗), 이름은 예(預), 자는 덕염이며 참군

우중랑장을 맡고 있었다. 후주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종예에게 오나라에 가서 승상의 부고를 전함과 동시에 그들의 실정을 살피라고 명했다.

종예는 명을 받들고 곧장 금릉으로 가서 오나라의 군주 손권을 알현했다. 예를 마치고 보니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손권이 안색을 바꾸며 말했다. "오나라와 촉나라는 이미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그대가 어찌하여 백제의 수비 병력을 늘리려 하는가?" 종예가 대답했다. "동쪽으로 파구의 수비를 늘리고 서쪽으로 백제의 수비를 늘리는 것은 모두 형세에 따른 마땅한 조치이니, 굳이 서로 따져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손권이 웃으며 말했다. "그대의 말씀씨가 등지에 못지않구나." 그러고는 종예에게 다시 말했다. "짐이 듣기로 제갈승상이 하늘나라로 떠나셨다기에, 매일 눈물을 흘리며 모든 관리에게 상복을 입게 하였다. 다만 위나라 사람들이 상중인 틈을 타 촉나라를 침략할까 두려워, 파구의 수비 병력을 만 명이나 늘려 구원할 준비를 한 것이지 결코 다른 뜻은 없다네." 종예가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다. 손권이 말했다. "짐이 이미 동맹을 맺었는데 어찌 의리를 저버리는 도리를 행하겠는가?" 종예가 말했다. "천자께서 제갈 승상의 부고를 들으시고 특별히 저를 보내 슬픔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손권은 금비전(금축 화살) 한 대를 가져와 꺾어 보이며 맹세했다. "만약 내가 이전의 동맹을 저버린다면, 내 자손은 대가 끊길 것이다!" 또한 향과 비단 등 제사에 쓸 물품을 가져가 촉나라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명했다.

종예는 손권에게 작별 인사를 올린 뒤 오나라 사절들과 함께 성도로 돌아왔다. 그는 후주를 알현하여 이렇게 보고했다. "오나라 군주께서

도 승상께서 막 돌아가신 일로 눈물을 흘리셨으며, 모든 신하에게 상복을 입게 했습니다. 그들이 파구에 군사를 보낸 것은 위나라가 빈틈을 타 침입할까 염려한 것일 뿐, 다른 탄마음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제 화살을 꺾어 맹세하며 결코 동맹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주는 크게 기뻐하며 종예에게 큰 상을 내리고 오나라 사절들도 정중히 대접하여 돌려보냈다.

이어 제갈량의 유언에 따라 장완을 승상, 대장군으로 삼고 상서사 직무를 맡겼다. 비의는 상서령으로 높여 승상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게 했으며, 오의는 차기장군으로 삼아 절을 받아 한중을 감독하게 했다. 강유는 보한장군과 평양후로 임명하여 여러 곳의 인마를 총괄하게 했으며, 오의와 함께 한중에 주둔하여 위나라 군사를 막도록 했다. 그 외의 장수들은 각자 기존의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양의는 자신이 장완보다 먼저 관직에 나갔음에도 직위는 장완보다 낮다고 여겼다. 또한 스스로 공이 높다고 자만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큰 상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비의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승상께서 처음 돌아가셨을 때, 내가 만약 군사들을 데리고 위나라에 투항했다면 어찌 이토록 쓸쓸하게 지내고 있었겠는가!"

비의는 이 말을 그대로 적어 후주에게 비밀리에 보고했다. 후주는 크게 노하여 양의를 옥에 가두고 문초하여 처형하려 했다. 이때 장완이 아뢰기를, "양이가 죄를 지은 것은 맞으나, 얼마 전까지 승상을 따라 세운 공로가 많으니 죽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평민으로 강등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후주가 이 말을 받아들여 양의를 한중 가

군으로 유배 보내 평민으로 삼았다. 양의는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축한 건흥 13년, 위나라 황제 조예 청룡 3년, 오나라 군주 손권 가화 4년, 삼국은 서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한편 위나라 황제는 사마의를 태위로 임명하여 모든 군사를 총괄하고 변방을 안정시키게 했다. 사마의는 명을 받들어 낙양으로 돌아갔다. 위나라 황제 조예는 허창에 머물며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여 관청 건물을 세웠다. 또한 낙양에 조양전, 태극전, 총장관을 지었는데, 모두 높이가 십 장에 달했다. 이어 송화전, 청소각, 봉황루, 구룡지를 세우도록 명하고, 박사 마균에게 감독하여 만들게 하니 그 화려함이 극에 달했다. 대들보에는 조각을 하고 기둥에는 그림을 그렸으며, 푸른 기와와 금빛 벽돌이 햇빛에 눈부시게 빛났다. 천하의 숙련된 장인 3만여 명과 부역꾼 30만여 명을 뽑아 밤낮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백성들의 힘이 다해 원망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조예는 또 방림원에 토목 공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려, 모든 공경들에게 그곳에 흙과 나무를 나르게 했다. 이에 사도 동심이 상소를 올려 간곡히 간언했다.

"건안 연간 이래로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이가 많고, 집안이 몰락하여 살아남은 이라 해도 고아나 노약자뿐입니다. 지금 궁궐이 좁아 넓히고자 하신다면 마땅히 때를 보아 농사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거늘, 하물며 아무런 이득도 없는 물건을 만드는 일은 어찌하시려는 것입니까? 폐하께서 신하들을 존중하여 관복을 입히고 화려한 수로 장식하며 화려한 가마를 태워 주시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대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하들에게 나무와 흙을 지게로 지게 하여 몸과

발을 더럽히게 하니, 이는 나라의 위신을 깎아먹고 무익한 것을 높이는 일이라 참으로 어리석은 처사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예로써 신하를 부리면, 신하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긴다' 하셨습니다. 충성도 없고 예도 없다면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서겠습니까? 신은 직언을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을 알지만, 스스로를 소의 털 한 올처럼 여깁니다. 살아서는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죽는다고 해서 무엇이 손해겠습니까. 붓을 잡은 채 눈물을 흘리며 세상과 작별할 마음을 먹습니다. 신에게 여덟 아들이 있으니, 신이 죽은 뒤에는 폐하께 짐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명을 기다리겠습니다!"

조예가 상소문을 읽고는 화가 나서 외쳤다. "동尋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모양이구나!" 곁에 있던 신하들이 그를 처형해야 한다고 청하자 조예가 말했다. "이 사람은 본래 충의를 지닌 자이니, 일단 평민으로 강등시킨다. 만약 다시 망언을 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죽이겠다!" 이때 태자 사인 장무 또한 상소를 올려 간곡히 간언하자, 조예는 그를 즉시 처형하라고 명했다.

조예는 그날 바로 마균을 불러 물었다. "짐이 높은 대와 웅장한 누각을 세우려는 것은 신선과 왕래하며 불로장생의 방법을 구하기 위함이다." 그러자 마균이 아뢰었다. "한나라의 스물네 명의 황제 중 무제가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수명 또한 매우 길었는데, 이는 하늘의 일월 정기를 복용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장안의 궁궐에 백량대를 세웠을 때, 대 위에 구리로 만든 사람을 세우고 손에 쟁반을 들게 하여 '승로반'이라 불렀습니다. 이 반은 삼경에 북두칠성에서 내려오는 맑은 이슬을 받는데, 그 이름을 '천장' 혹은 '감로'라고 합니다. 이 물을 취해

아름다운 옥가루와 섞어 복용하면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조에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너는 즉시 인부들을 이끌고 밤을 도와 장안으로 가서, 그 구리 인형을 뜯어내어 방림원 안으로 옮겨 놓도록 하라."

마균은 명을 받들어 만 명의 인원을 이끌고 장안으로 갔다. 그는 주변에 나무 틀을 세우게 한 뒤, 백량대에 올라가도록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천 명의 사람이 밧줄을 연결해 끌어올리니, 사람들이 빙글 빙글 돌며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 백량대는 높이가 이십 장에 달했고, 구리 기둥은 둘레가 열 뼘이나 될 정도로 굵었다. 마균은 먼저 구리 인형을 해체하라고 가르쳤다.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 구리 인형을 떼어내는데, 보니 구리 인형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랐다. 그때 갑자기 대 근처에서 광풍이 몰아치더니 모래와 돌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울리더니, 대가 기울고 기둥이 쓰러지면서 천여 명의 사람이 깔려 죽고 말았다. 마균은 구리 인형과 금쟁반을 챙겨 낙양으로 돌아와 위나라 황제를 알현하고 구리 인형과 이슬을 받는 쟁반을 바쳤다. 위나라 황제가 물었다. "구리 기둥은 어디에 있느냐?" 마균이 대답했다. "기둥의 무게가 백만 근이나 되어 운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에는 구리 기둥을 부수어 낙양으로 가져오게 한 뒤, 그것을 녹여 두 개의 구리 인형을 만들게 했다. 이를 '웅중'이라 부르며 사마문 밖에 세워두었다. 또한 구리로 용과 봉황을 각각 만들어 전각 앞에 세웠는데, 용은 높이가 네 장이고 봉황은 세 장 남짓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상림원에도 기이한 꽃과 나무를 심고 희귀한 새와 짐승들을 길러 모았다. 이에 소부 양부가 상소를 올려 간언하였다.

"신이 듣기로, 요임금은 초가지붕을 그대로 두었어도 만국이 평안히 살았고, 우임금은 궁실을 낮게 하였어도 천하가 즐겁게 생업에 종사했습니다. 은나라와 주나라에 이르러서도 전각의 높이는 기껏 석 자요, 그 너비는 아홉 자리(九筵)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옛 성군과 명왕들 중에는 궁궐을 높고 화려하게 지어 백성의 재력을 고갈시킨 이가 없었습니다.

결왕은 옥으로 꾸민 방(璇室)과 상아로 장식한 마구간(象廄)을 만들었고, 주왕은 거대한 경궁(傾宮)과 녹대(鹿臺)를 지어 결국 사직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초나라 영왕 또한 장화대(章華臺)를 쌓았다가 그 화를 몸소 입었습니다. 진시황은 아방궁을 짓다가 그 화가 아들에게까지 미치니, 천하가 등을 돌려 불과 2대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무릇 만백성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눈과 귀의 욕망만을 좇는다면, 망하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요·순·우·탕·문·무왕을 본받으시고, 걸·주·초·진을 경계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스스로 한가함과 안일에 빠져 오로지 궁실을 꾸미는 데만 힘쓰시니, 반드시 위태로워 망하는 화가 닥칠 것입니다. 군주는 머리와 같고 신하는 팔다리와 같으니, 존망을 한 몸으로 하고 득실을 함께합니다. 신이 비록 노둔하고 겁이 많으나, 어찌 간쟁하는 신하의 의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이 간절하고 지극하지 못하여 폐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부족하다면, 삼가 관을 두드리고 목욕재계하여 엎드려 무거운 처벌을 기다리겠습니다."

조예는 상소문을 보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그저 마균에게 재촉하여 높은 대를 세우고 그 위에 구리 인형과 빗물을 받는 그릇을 설

치하게 했다. 또한 천하의 미녀들을 널리 뽑아 향기로운 정원에 들여보내라는 교지를 내렸다. 여러 관리들이 앞다투어 상소를 올려 간언했으나, 조예는 이를 모두 듣지 않았다.

한편, 조예의 모황후는 하내 사람이다. 조예가 평원왕이었을 때부터 두 사람은 매우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였다. 조예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모황후를 황후로 세웠으나, 이후 조예가 곽부인을 총애하면서 모황후는 눈 밖에 나고 말았다. 곽부인은 아름답고 영리하여 조예가 매우 총애했는데, 조예는 매일 그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한 달 넘게 궁궐 문턱을 넘지 않을 정도였다.

그해 봄 삼월, 꽃이 만발한 화림원 정원에 온갖 꽃이 피어날 무렵, 조예는 곽부인과 함께 정원에 나가 꽃을 구경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때 곽부인이 말했다. "어찌하여 황후님도 함께 불러 즐거움을 나누지 않으십니까?" 조예가 대답했다. "만약 그 사람이 여기 있다면, 나는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할 것이오." 조예는 즉시 궁녀들에게 명령을 내려 모황후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엄히 일렀다.

모황후는 조예가 한 달 넘게 정궁에 들르지 않자, 어느 날 열 명 남짓한 궁녀를 데리고 취화루에 올라가 쉬려 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활기찬 음악 소리에 궁금해져 물었다. "어디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냐?" 그러자 한 궁녀가 대답했다. "폐하께서 곽부인과 함께 어화원에서 꽃을 구경하며 술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모황후는 마음이 번뇌스러워 궁으로 돌아가 쉬었다.

다음 날, 모황후가 작은 수레를 타고 궁궐 밖으로 유람을 나갔다가 마침 곡랑 사이에서 조예를 마주치게 되었다. 모황후는 웃으며 말했다. "폐하께서 어제 복원(어화원)에서 노니셨다니, 그 즐거움이 참으로 대단했겠습니다!" 조예는 크게 노하여 즉시 어제 시중을 들었던 사람들을 모두 잡아 오게 한 뒤 꾸짖었다. "어제 복원에서 노닐 때, 짐이 좌우에 명하여 모황후가 알지 못하게 엄히 금하였거늘, 어찌 감히 이를 떠벌린단 말이냐!" 조예는 궁녀들에게 명령하여 시중을 들던 사람들을 모조리 참형에 처하게 했다. 모황후는 크게 놀라 수레를 돌려 궁으로 돌아갔고, 조예는 즉시 조서를 내려 모황후에게 죽음을 명하고 곽부인을 황후로 세웠다. 조정의 신하들 중 누구도 감히 간언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주 자사 관구검이 상소를 올려 요동의 공손연이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연왕이라 칭하고, 연호를 소한 원년으로 고쳤으며, 궁전을 짓고 관직을 세워 군사를 일으켜 침입하니 북방이 요동치고 있다고 보고했다. 조예는 크게 놀라 즉시 문무 관료들을 모아 공손연을 물리칠 방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토목 공사로 나라를 괴롭힌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변방에서 전쟁의 불길이 치솟으니, 과연 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6회 — 공손연이 병패하여 양평에서 죽고, 사마의가 병을 핑계로 조상을 속이 다

公孫淵兵敗死襄平 司馬懿詐病賺曹爽

한편, 공손연은 요동을 다스리던 공손도의 손자이자 공손강의 아들이다. 건안 12년, 조조가 원상을 추격할 때 공손강은 요동에 도착하기도 전에 원상의 머리를 베어 조조에게 바쳤고, 조조는 공손강을 양평후로 봉했다. 이후 공손강이 죽고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은 공손황이고 차남은 공손연이었으나 둘 다 어렸다. 그래서 공손강의 동생인 공손공이 뒤를 이었다. 조비 시절에 공손공은 차기장군이자 양평후로 봉해졌다. 태화 2년, 공손연이 장성하여 문무를 겸비하게 되었는데 성격이 강직하고 싸움을 좋아하여 숙부인 공손공의 자리를 빼앗았다. 이에 조예는 공손연을 양렬장군이자 요동태수로 봉했다. 그 후 손권이 장미와 허연을 보내 금보와 진귀한 옥을 바치며 공손연을 연왕으로 책봉하게 했다. 공손연은 중원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장미와 허연 두 사람을 베어 그 머리를 조예에게 보냈다. 조예는 공손연을 대사마이자 낙랑공으로

봉했다. 그러나 공손연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하들과 상의하여 스스로 연왕이라 칭하고, 연호를 소한(紹漢)으로 바꾸어 소한 원년으로 삼았다. 부장 가범이 간언했다. "중원에서는 주군을 상공(上公)의 작위로 대우하여 비천하게 만들지 않았는데, 지금 반역을 꾀하는 것으로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게다가 사마의는 병법에 능한 인물입니다. 서촉의 제갈무후조차 끝내 이기지 못했는데 하물며 주군이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공손연은 크게 노하여 좌우의 부하들에게 명해 가범을 잡아오게 하고, 즉시 참수하려 했다. 이때 참군 윤직이 직언하며 말했다.

"가범의 말이 옳습니다.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가 망하려 하면 반드시 괴이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나라 안에서 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가 수건을 머리에 쓰고 붉은 옷을 입은 채 지붕 위를 사람처럼 걸어 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성 남쪽 마을 사람이 밥을 짓는데, 밥솥 안에서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가 썩어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양평 북쪽 시장에서는 땅이 갑자기 움푹 꺼지더니, 크기가 몇 자나 되는 고기 한 덩이가 솟아올랐습니다. 그 고기는 머리와 얼굴, 눈, 귀, 입, 코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으나 손과 발만은 없었고, 칼이나 화살로도 상처를 낼 수 없으니 도대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점술가가 이를 보고 점을 치기를 '형체는 있으나 온전하지 못하고, 입은 있으나 소리를 내지 못하니, 나라가 망할 징조로 그 형상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은 모두 불길한 징조이니, 주공께서는 흉함을 피하고 길함을 쫓아야 하며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공손연은 불같이 화를 내며 무사들에게 명령해 윤직과 가범을 묶어 시장터로 끌고 가 함께 처형하게 했다. 그리고는 대장군 비연을 원수로, 양조를 선봉장으로 삼아 요동의 병사 15만 명을 일으켜 중원을 향해 거세게 몰아쳤다.

변방의 관리가 위나라 황제 조예에게 이 소식을 보고했다. 조예는 크게 놀라 즉시 사마의를 조정으로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사마의가 아뢰기를, "신에게 마병과 보병을 합쳐 4만 명의 군사가 있으니, 적을 물리치기에 충분합니다"라고 했다. 조예가 말하기를, "경의 군사는 적고 길은 머니, 땅을 되찾기가 어려울까 두렵소"라고 하자, 사마의가 대답했다. "병사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발한 계책과 지혜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폐하의 큰 복을 믿고, 반드시 공손연을 사로잡아 폐하께 바치겠습니다." 조예가 다시 물었다. "공손연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오?" 사마의가 말했다. "공손연이 성을 버리고 달아난다면 그것은 상책이고, 요동을 지키며 대군을 막아선다면 중책이며, 양평에 앉아 성을 지키고만 있다면 하책입니다. 하책을 택한다면 반드시 저에게 잡힐 것입니다." 조예가 물었다. "가는 데 왕복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소?" 사마의가 답했다. "4천 리 길을 가는데 백 일, 공격하는 데 백 일, 휴식하는 데 예순 날을 잡으면 대략 1년이면 충분합니다." 조예가 다시 물었다. "만약 오나라나 촉나라가 침입하면 어찌 하겠소?" 사마의가 말했다. "신이 이미 방어책을 세워두었으니 폐하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예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사마의에게 군사를 일으켜 공손연을 토벌하라 명했다.

사마의는 조정을 물러나 성 밖으로 나가면서, 호준을 선봉장으로 삼아 앞 부대를 이끌고 먼저 요동으로 가서 진을 치게 했다. 이 소식이 정찰병을 통해 공손연에게 전해졌다. 공손연은 비연과 양조에게 8만 명의 병사를 나누어 주어 요수 지역에 주둔하게 했다. 그들은 20여 리에 달하는 참호를 파고 가시 율타리를 둘러쳐 매우 삼엄하게 방어했다. 호준이 사람을 보내 사마의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사마의가 웃으며 말했다. "적이 나와 싸우지 않고 내 군사를 지치게 하려 하는구나. 내가 짐작건대 적의 병력 태반이 이곳에 있으니 본거지는 비어 있을 것이다. 차라리 이곳을 버려두고 곧장 양평으로 달려가자. 그러면 적은 반드시 구하러 올 것이니, 도중에 그들을 공격하면 반드시 큰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사마의는 군사를 이끌고 좁은 길을 통해 양평을 향해 진격했다.

한편, 비연과 양조가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만약 위나라 군사가 공격해 오더라도 맞서 싸우지 마시오. 저들은 천 리 길을 멀리서 왔으니 군량 보급이 끊겨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고, 식량이 떨어지면 반드시 퇴각할 것이오. 저들이 물러갈 때를 기다렸다가 기습하면 사마의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오. 예전에 사마의가 촉나라 군사와 맞서 위남을 굳게 지켰을 때, 제갈량이 결국 군중에서 죽은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치였소.”

두 사람이 한창 의논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보가 전해졌다. “위나라 군사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비연이 크게 놀라며 외쳤다. “저들이 우리 양평의 군사가 적다는 것을 알고 노영을 습격하려는구나! 만약 양평

을 잃게 되면 우리가 이곳을 지키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는 즉시 진영을 거두고 뒤를 따라 움직였다.

이 소식은 이미 정찰병을 통해 사마의에게 전해졌다. 사마의가 웃으며 말했다. “내 계책에 걸려들었구나!” 사마의는 하후패와 하후위에게 각각 군사를 이끌고 제수 가에 매복하라고 명령했다. “요동 군사가 도착하면 양쪽에서 동시에 출격하라.” 두 장수는 명령을 받고 그곳으로 향했다.

멀리서 비연과 양조가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이 보였다. 그때 대포 소리가 한 번 울려 퍼지더니, 양쪽에서 북소리와 징소리가 울리고 깃발이 휘날렸다. 왼쪽에서는 하후패가, 오른쪽에서는 하후위가 동시에 튀어나왔다. 비연과 양조는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길을 뚫고 도망쳤다. 그들이 수산까지 달려갔을 때 마침 공손연의 군사가 도착해 있었고, 두 군대는 힘을 합쳐 말머리를 돌려 위나라 군사와 다시 맞붙었다.

비연이 말을 타고 나서 옥설을 퍼부었다. “적장들은 비겁한 계책을 쓰지 마라! 감히 나와 맞서 싸울 용기가 있느냐?” 하후패가 말을 달려 칼을 휘두르며 맞섰다. 몇 합을 겨루지 못해 하후패의 칼날에 비연이 말 아래로 떨어져 죽었고, 요동 군사는 큰 혼란에 빠졌다. 하후패가 군사를 몰아 몰아붙이자, 공손연은 패배한 병사들을 이끌고 양평성 안으로 도망쳐 문을 닫고 굳게 지키며 나오지 않았다. 위나라 군사는 성을 사방에서 에워쌌다.

가을비가 한 달 넘게 끊임없이 내리는 바람에 평지에는 물이 석 자나 차올랐다. 양평성까지 식량을 나르는 배들이 요하 입구에서부터 성

아래까지 줄지어 움직였다. 위나라 군사들은 모두 물속에서 지내느라 앉거나 서 있는 것조차 불안할 정도였다.

이때 좌도독 배경이 막사로 들어와 보고했다. "비가 그치지 않아 진영이 온통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군사들이 머물기 어려우니, 진영을 앞쪽 산으로 옮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마의가 화를 내며 말했다. "공손연을 잡는 것은 하루아침에 끝날 일인데, 어찌 진영을 옮긴단 말이나? 만약 다시 진영을 옮기자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즉시 참수하겠다!" 배경은 겁에 질려 머리를 조아리며 물러갔다.

잠시 후, 우도독 구련이 다시 찾아와 보고했다. "군사들이 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 태위께서 진영을 높은 곳으로 옮겨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사마의가 크게 노해 외쳤다. "내 이미 군령을 내렸거늘, 네가 어찌 감히 명령을 어기려 하느냐!" 사마의는 즉시 구련을 끌어내어 처형하게 하고, 그 머리를 남문 밖에 매달아 놓았다. 이 일로 군사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마의는 두 진영의 군마를 잠시 20리 밖으로 물러나게 하고, 성안의 군민들이 성 밖으로 나와 떨감을 줄거나 소와 말을 방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를 본 진군이 물었다.

"지난번 태위께서 상용을 공격하실 때에는 군사를 여덟 갈래로 나누어 8일 만에 성 아래까지 도달함으로써 맹달을 생포하는 큰 공을 세우

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만의 갑주를 갖춘 군사를 이끌고 수천 리를 달려오셨으면서, 성을 공격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흙탕 속에 오래 머물게 하시며 적들이 땀감을 줍고 가축을 기르게 내버려 두시니, 소인은 태워꺼서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마의가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병법을 모르는가? 예전에 맹달은 식량은 많고 병사는 적었으나, 지금 나는 식량은 적고 병사는 많으니 반드시 속전속결해야 한다네. 적이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공격해야만 승리할 수 있지. 지금 요동의 병사는 많고 우리 병사는 적은 데다, 적은 굶주리고 우리는 배가 부른 상태이니 굳이 힘을 들여 성을 공격할 필요가 있겠는가? 적이 스스로 움직이게 내버려 두었다가 그 기회를 틈타 격파해야 하네. 내가 지금 길을 열어주어 적이 땀감을 줍고 가축을 기르게 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네."

진군은 그 말을 듣고 사마의의 지략에 감탄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사마의는 낙양으로 사람을 보내 군량을 재촉했다. 위나라 황제 조예가 조회를 열자, 신하들이 모두 아뢰기를 "최근 가을비가 한 달 넘게 계속 내려 인마가 모두 지쳤으니, 사마의를 불러들이고 일단 군사를 거두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조예가 말했다. "사마의 태위는 병법에 능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변화를 잘 다스리며 좋은 계책이 많으니, 공손연을 잡는 일은 날짜를 세며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경들은 어찌하여 그리 걱정하는가?"라며 결국 신하들의 간언을 듣지 않고 사람을 보내 군량을 사마의의 군영 앞까지 운반하게 했다. 사마의가 진영에

머문 지 며칠이 더 지나자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다. 그날 밤 사마의가 막사 밖으로 나와 하늘의 별자리를 살피는데, 갑자기 별 하나가 나타났다. 그 크기가 뒷박만 하고 빛줄기가 몇 길이나 뻗어 있었는데, 수산의 동북쪽에서 나타나 양평의 동남쪽으로 떨어졌다. 각 진영의 장수와 병사들이 이를 보고 모두 놀랐다. 사마의는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장수들에게 말했다. "닷새 뒤에는 별이 떨어진 곳에서 반드시 공손연을 베게 될 것이다. 내일부터는 힘을 합쳐 성을 공격하자."

장수들이 명령을 받들자,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군사들을 이끌고 사방을 에워쌌다. 그들은 흙으로 산을 쌓고 땅굴을 파는 한편, 대포를 거치하고 구름사다리를 세워 밤낮없이 공격을 퍼부었다. 쏟아지는 화살은 마치 장대비처럼 성 안으로 들어쳤다.

성 안의 공손연은 식량이 바닥나자 소와 말을 잡아먹으며 연명해야 했다. 이에 병사들은 모두 원망이 가득해져 싸울 마음을 잃었고, 공손연의 목을 베어 성을 바쳐 항복하고 싶어 했다. 이 소식을 들은 공손연은 몹시 놀라 두려워하며, 급히 상국 왕건과 어사대부 유보를 보내 위나라 진영에 항복을 청하게 했다.

두 사람이 성벽에 줄을 매달아 내려간 뒤 사마의에게 가서 말했다. "태위께서는 20리쯤 물러나 계십시오. 저희 군신이 직접 나가 항복하겠습니다."

사마의가 크게 화를 내며 외쳤다. "공손연은 어찌하여 직접 오지 않는단 말이나? 참으로 무례하도다!"

그리고는 무사들에게 호통을 쳐 그들을 끌어내어 처형하게 한 뒤, 그 머리를 부하에게 넘겨주었다.

부하가 소식을 전하자 공손연은 크게 놀라, 시종인 위연을 다시 위나라 진영으로 보냈다. 사마의가 장막 위로 올라가자 장수들이 양옆으로 모여 섰다. 위연은 무릎으로 기어 들어가 장막 아래에 엎드려 말했다. "태위께서는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조만간 세자 공손수를 인질로 먼저 보내겠습니다. 그 후에 군신이 스스로 몸을 묶고 항복하러 가겠습니다." 사마의가 말했다. "군사 작전에는 크게 다섯 가지 도리가 있다. 싸울 수 있으면 싸워야 하고, 싸울 수 없으면 지켜야 하며, 지킬 수 없으면 도망쳐야 하고, 도망칠 수 없으면 항복해야 하며, 항복할 수 없으면 죽어야 하는 법이다. 어찌하여 자식을 인질로 보내려 하느냐?" 사마의가 위연을 꾸짖어 공손연에게 돌아가게 했다. 위연은 머리를 조아린 채 허둥지둥 도망치듯 물러가 공손연에게 보고했다.

공손연은 크게 놀라 아들 공손수와 은밀히 의논하여 항복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정예 병사 천 명을 선발하여 그날 밤 이경(대략 밤 9시 ~11시 무렵)이 되자 남문을 열고 동남쪽으로 도망쳤다. 공손연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채 십 리도 가지 못했을 때, 갑자기 산 위에서 포성 소리가 들리더니 북과 나팔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졌다. 한 무리의 병사가 길을 가로막았는데, 그 중앙에 사마의가 서 있었다. 좌우에는 사마사와 사마소가 자리 잡고는 "반역자는 도망치지 마라!"라고 크게 외쳤다. 공손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급히 말을 몰아 길을 찾아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호준의 군사가 도착해 있었고, 왼쪽에는 하후패와 하후위가, 오른쪽에는 장호와 악침

이 버티고 있어 사방이 철통처럼 에워싸였다. 결국 공손연 부자는 말에서 내려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사마의가 말 위에서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지난 병인일 밤에 커다란 별이 이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임신일에 그 일이 일어났구나." 장수들이 축하하며 말했다. "태위께서는 참으로 신기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마의는 즉시 명령을 내려 그들을 처형하게 했다. 공손연 부자는 마주 보고 서서 처형당했다.

사마의는 군사를 몰아 양평을 치러 갔다. 성 아래에 도착하기도 전에 호준이 이미 군사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백성들은 향을 피우며 그들을 맞이했고, 위나라 군사들도 모두 성 안으로 입성했다. 사마의는 관아 위에 앉아 공손연의 일가친척과 모의했던 관리들을 모두 죽였는데, 그 머리가 칠십여 개에 달했다. 그는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사람들이 사마의에게 말하기를, "가범과 윤직은 공손연에게 반역하면 안 된다고 간곡히 간언하다가 모두 공손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라고 했다. 사마의는 그들의 묘를 봉하고 후손들을 영화롭게 해주었다. 이어 창고의 재물을 꺼내 삼군 장병들에게 상으로 내린 뒤,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돌아갔다.

한편, 위나라 황제 조예는 궁궐에 머물던 중 어느 날 밤 삼경쯤 되자 갑자기 불어온 음산한 바람에 등불이 꺼지는 일을 겪었다. 그때 갑자기 모황후가 수십 명의 궁녀를 거느리고 조예의 상좌 앞으로 달려와 목숨을 내놓으라며 울부짖는 환영이 나타났고, 이 일로 조예는 병을 얻고 말았다. 병세는 점점 위중해졌고, 조예는 시중 광록대부 유방과 손자에게 추밀원의 모든 사무를 맡겼다. 또한 문제의 아들인 연왕 조우를

대장군으로 불러 태자 조방을 보좌하며 섭정하게 했다. 그러나 조우는 성품이 공손하고 검소하며 온화하여 이런 중책을 맡으려 하지 않고 완강히 거절했다.

조예가 유방과 손자를 불러 물었다. "우리 종친 중에서 누가 이 일을 맡기에 적당하겠는가?" 두 사람은 그동안 조진에게 받은 은혜가 컸기에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오직 조진의 아들인 조상만이 적임자입니다." 조예는 그 말을 따랐다. 두 사람이 다시 건의했다. "조상을 쓰시려면 연왕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조예가 그 말대로 하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은 곧 조예에게 조서를 내려 달라고 청하여, 연왕에게 보내는 글을 작성했다. 조서에는 "천자의 친필 조서이니 연왕은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되 당일로 출발하라. 만약 조서가 없다면 조정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적혀 있었다. 조우는 눈물을 흘리며 떠나갔다. 그리하여 조상을 대장군으로 봉하고 조정의 모든 정사를 맡기게 되었다.

조예의 병세가 점차 위중해지자, 급히 사절을 보내 절을 받들게 하여 사마의에게 조정으로 돌아오라는 조서를 내렸다. 사마의는 명을 받자마자 곧장 허창으로 달려가 조예를 알현했다.

조예가 말했다. "나는 그대를 보지 못하고 죽을까 두려웠소. 오늘 이렇게 그대를 만났으니 죽어도 한이 없겠소."

사마의가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소신이 오는 길에 폐하의 옥체가 편치 않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날개가 달려 궁궐 앞까지 날아가지

못함을 한탄하였습니다. 오늘 폐하의 용안을 뵈게 된 것은 소신의 큰 영광입니다."

조예는 태자 조방과 대장군 조상, 시중 유방과 손자 등을 모두 침상 앞으로 불러 모았다. 조예는 사마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옛날 유비가 백제성에서 병이 위중할 때, 어린 아들 유선을 부탁하며 제갈량을 고아로 맡겼소. 제갈량은 그 일을 위해 죽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했지. 작은 나라에서도 그토록 하는데, 하물며 대국은 어떠하겠소? 나의 어린 아들 조방은 이제 겨우 여덟 살이라 사직을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오. 부디 태위와 종친들, 그리고 원로 신하들이 힘을 다해 보필하여 나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 주시오!"

이어 조예가 조방을 불러 말했다. "중달은 나와 한 몸이나 다름없으니, 너는 마땅히 그를 공경해야 한다."

그러고는 사마의에게 조방을 가까이 데려오게 했다. 조방은 사마의의 목을 껴안고 놓지 않았다. 조예가 말했다. "태위께서는 오늘 어린 아들이 느끼는 이 애틋한 정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시오!"

말을 마친 조예는 눈물을 흘렸고, 사마의 역시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렸다. 조예는 정신이 혼미해져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손가락으로 태자를 가리키다 잠시 후 숨을 거두었다. 재위 13년, 향년 36세였다. 때는 위나라 경초 3년 정월 하순이었다.

사마의와 조상이 태자 조방을 받들어 황제의 자리에 올렸다. 조방의 자는 난경으로, 조예가 데려다 기른 양자라 몰래 궁중에서 자라 그 출처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조예에게 명제라는 시호를 내려 고평릉

에 장사 지냈고, 곽황후를 황태후로 높였으며, 연호를 정시 원년으로 고쳤다. 사마의와 조상이 함께 정권을 보좌하게 되었다.

조상은 사마의를 매우 공경하여 모든 큰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먼저 그에게 물었다. 조상의 자는 소백으로 어릴 때부터 궁궐을 드나들었는데, 명제가 조상의 신중한 모습을 보고 매우 아끼고 존경했다. 조상의 문하에는 오백 명의 객이 있었는데, 그중 다섯 명은 특히 화려함을 숭상하며 이름을 떨쳤다. 자가 평숙인 하안, 자가 현무이며 등우의 후손인 등양, 자가 공소인 이승, 자가 언정인 정밀, 자가 소선인 필궤가 바로 그들이었다. 또한 대사농 환범은 자가 원칙으로 지략이 뛰어나 사람들이 모두 '지낭'이라 불렀다. 이들은 모두 조상이 깊이 신임하는 인물들이었다.

어느 날 하안이 조상에게 고했다. "주공께서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계시니,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자칫 나중에 큰 화근이 될까 두렵습니다."

조상이 말했다. "사마 공은 나와 함께 선황제로부터 고아를 돌보라는 명을 받은 사람인데, 어찌 그를 배신할 수 있겠는가?"

하안이 다시 말했다. "옛날 선공께서 중달과 함께 촉나라 군대를 격파할 때, 이 사람 때문에 큰 고초를 겪고 결국 죽음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주공께서는 어찌하여 살피지 않으십니까?"

조상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깨달음을 얻고는, 여러 관리와 의논하여 대책을 세운 뒤 위나라 황제 조방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사마의는 공이 높고 덕이 중하니, 태부의 자리에 올려야 합니다."

조방이 그 말을 따르니, 이때부터 모든 병권이 조상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조상의 아우 조희가 중령군이 되고, 조훈은 무위장군, 조언은 산기장시가 되었다. 이들은 각각 삼천 명의 어림군을 거느리며 금궁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또한 하안, 등양, 정밀을 상서로 삼고, 필케를 사례교위로, 이승을 하남윤으로 임명하니, 이 다섯 사람은 밤낮으로 조상과 함께 정사를 논의했다. 이로 인해 조상의 문하에는 손님들이 날로 늘어났다. 사마의는 병을 핑계로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의 두 아들 역시 모두 관직을 물려나 한가롭게 지냈다.

조상은 매일 하안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즐겁게 놀았다. 입는 옷이나 사용하는 그릇은 조정의 것과 다를 바가 없었으며, 각지에서 진상되는 진귀한 보물들은 먼저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 자신의 집으로 들인 뒤에야 궁궐로 올렸다. 아름다운 여인들도 저택에 가득했다. 황문인 장당은 조상에게 아침하며, 돌아가신 선황의 시첩 일고여덟 명을 몰래 뽑아 조상의 집으로 보냈다. 조상은 또한 노래와 춤에 능한 양가댁 자녀 서른에서 마흔 명을 골라 집안의 유흥을 위해 삼았고, 화려한 누각과 정자를 세우며 금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 수백 명의 숙련된 장인을 들여 밤낮으로 일하게 했다.

한편, 하안은 평원의 관로가 수술에 밝다는 말을 듣고 그를 청해 역학을 논했다. 마침 등양도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등양이 관로에게 물었다. "그대는 스스로 역학에 능하다고 하면서, 어찌 말할 때 역경의 깊은 뜻을 담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자 관로가 대답했다. "역학에 진정으로 능한 자는 역학을 말로 내세우지 않는 법입니다." 하안은 웃으

며 관로를 찬탄했다. "핵심을 찌르면서도 굳더더기가 없으니 참으로 훌륭하구려." 이어 하안이 관로에게 말했다. "내게 점을 한 번 쳐 주시오. 내가 삼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소?" 또 물었다. "요즘 계속 푸른 파리 수십 마리가 꿈에 나타나 내 코 위로 몰려드는데, 이것이 무슨 징조겠소?" 관로가 말했다. "팔원(八元)과 팔개(八愷)가 순임금을 보좌하고 주공이 주나라를 보필했는데, 이들은 모두 화합과 은혜, 겸손과 공손함을 갖추었기에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지금 귀하께서는 지위가 높고 권세가 막강하지만, 귀하를 진심으로 따르는 이는 적고 귀하의 위엄을 두려워하는 이만 많으니, 이는 조심스럽게 복을 구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또한 코는 산을 상징하는데, 산이 높으면서도 험하지 않아야 귀한 자리를 오래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에 악취 나는 푸른 파리가 몰려드니, 지위가 높은 이는 추락하기 마련인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귀하께서는 과한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예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삼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고, 푸른 파리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등양이 화를 내며 말했다. "그저 늙은이들이나 할 법한 뻔한 소리군!" 관로가 대답했다. "늙은이라 함은 생동감이 없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고, 뻔한 소리라 함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말을 마친 관로는 소매를 뿌리치며 자리를 떠났다. 두 사람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미친 선비로구나!" 관로가 집에 돌아와 외삼촌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자, 외삼촌은 크게 놀라며 말했다. "하안과 등양, 그 두 사람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데 어찌 그들을 거스른단 말이나?" 관로가 말했다.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외삼촌이 그 이유를 묻자 관로가 설명했다. "등양은 걸음걸이를 보니 근육이 뼈를 붙잡지 못하고 맥박이 살을 다스리지 못하며, 일어설 때나 기댈 때나 마치 손

발이 없는 듯하니 이는 '귀조'의 상입니다. 하안을 살펴보니 혼은 집에 머물지 못하고 혈색은 창백하며 정신은 안개처럼 떠돌아 마치 마른 나무 같으니 이는 '귀유'의 상입니다. 두 사람은 조만간 반드시 목숨을 잃는 화를 당할 터이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외삼촌은 관로를 미친 사람이라고 꾸짖지도 않고 그저 떠나갔다.

한편, 조상이 하안, 등양 등과 함께 사냥을 나갔다. 그의 동생 조희가 간언했다. "형님의 권세가 너무 지나친 데다 밖으로 유람 다니는 것까지 좋아하시니, 만약 누군가에게 빌미를 잡히기라도 하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자 조상이 꾸짖으며 말했다. "군사권이 내 손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이냐?" 사농인 환범 또한 간언했으나 조상은 듣지 않았다. 당시 위나라 황제는 조방이었는데, 정시 10년을 가평 원년으로 연호를 고쳤다. 조상은 줄곧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으나, 사마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했다. 마침 위나라 황제가 이승을 형주 자사로 임명하며, 이승에게 사마의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는 척하면서 그의 상태를 살펴보고 오라고 명했다. 이승이 곧장 사마의의 저택으로 가자, 문지기가 이를 미리 보고했다. 사마의가 두 아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조상이 내 병세가 어떤지 살피려고 보낸 것이로구나." 사마의는 즉시 관을 벗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침상에 올라 이불을 덮고 앉았다. 그리고는 두 시녀에게 자신을 부축하게 한 뒤에야 비로소 이승을 들여보내라고 했다. 이승이 침상 앞에 이르러 절하며 말했다. "그동안 태부를 뵈지 못했는데, 이토록 병세가 위중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천자께서 저를 형주 자사로 임명하셨기에 특별히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사마의는 짐짓 대답했다. "병주가 북방과 가까우니, 부디 잘 대비하게나." 이승이 말했다. "형주 자사로 임명된 것이지, 병

주가 아닙니다." 사마의가 웃으며 말했다. "방금 병주에서 오는 길인가?" 이승이 말했다. "산동의 청주에서 왔을 뿐입니다." 사마의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청주에서 왔구먼." 이승이 다시 물었다. "태부께서는 어찌 이토록 병이 깊으십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말했다. "태부께서는 귀가 들리지 않으십니다." 이승이 말했다. "종이와 붓을 좀 빌려주십시오." 곁에 있던 이들이 종이와 붓을 가져다주자, 이승은 글을 다 쓴 뒤 사마의에게 바쳤다. 사마의가 그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내 병 때문에 귀가 먹었네. 조심히 돌아가게나." 말을 마친 사마의는 손가락으로 자기 입을 가리켰다. 시녀가 탕을 가져오자 사마의가 입을 갖다 댔는데, 탕이 옷깃에 가득 쏟아지자 그는 목이 메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내가 이제 늙고 병이 깊어 죽음이 머지않았네. 두 아들이 못났으니 부디 자네가 가르쳐 주게나. 혹시 대장군을 만나거든, 부디 내 두 아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전해주게!" 말을 마친 그는 침상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승이 사마의에게 인사를 드리고 돌아와 조상에게 가서 그간의 일을 자세히 보고했다. 조상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저 노인네가 죽기만 한다면, 이제 내 걱정은 끝이로다!"

사마의는 이승이 다녀간 것을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들에게 말했다. "이승이 저렇게 다녀왔으니, 소식을 듣고 나면 조상이 필시 나를 경계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성 밖으로 사냥을 나갈 때만을 기다리면 된다. 그때를 노려야 한다."

며칠 지나지 않아, 조상이 위나라 황제 조방을 모시고 선허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고평릉으로 향했다. 크고 작은 관리들도 모두 황제의

행차를 따라 성 밖으로 나섰다. 조상은 세 동생과 심복인 하안 등을 거느리고, 황제를 호위하는 어림군과 함께 길을 떠났다.

이때 사농 환범이 말머리를 돌려 조상에게 간언했다. “주공께서 금군을 총괄하고 계시니, 형제들이 모두 성을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 성안에 변고가 생기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러자 조상이 채찍으로 그를 가리키며 꾸짖었다. “누가 감히 변을 일으킨단 말이냐! 다시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날 사마의는 조상이 성을 나가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는 즉시 예전부터 함께하며 적을 물리쳤던 부하들과 가문의 장수 수십 명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두 아자를 말에 태워 곧장 조상을 죽일 계책을 실행에 옮겼다.

과연 문을 걸어 잠그고 때를 기다리니 반드시 큰 뜻을 이룰 것이요, 군사를 몰아 일으키니 이때부터 영웅의 기세를 떨치리라. 조상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진다.

제107회 — 위왕이 정권을 사마씨에게 돌려주고, 강유는 우두산에서 군사를 잃 다

魏主歸政司馬氏 姜維兵敗牛頭山

한편, 사마의는 조상이 동생들인 조희, 조훈, 조연과 심복인 하안, 등양, 정밀, 필범, 이승, 그리고 어림군을 거느리고 위나라 황제 조방을 모시고 명제(조예)의 묘를 참배하러 성 밖으로 나갔다가 사냥을 하러 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사마의는 즉시 조정으로 달려가 사도 고유에게 절월(節鉞)을 빌려주어 대장군의 일을 대행하게 하여 먼저 조상의 진영을 점거하게 했고, 또 태복 왕관에게 중령군사직을 맡겨 조희의 진영을 점거하게 했다. 사마의는 옛 동료들을 이끌고 후궁으로 들어가 곽태후를 알현하며, 조상이 선헌제의 유탁을 저버리고 간사하게 나라를 어지럽혔으니 그 죄는 폐위당해 마땅하다고 고했다. 곽태후가 크게 놀라 "천자가 성 밖에 계시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자, 사마의가 "신에게 천자께 올릴 표문과 간신을 처단할 계책이 있으니 태후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답했다. 태후는 겁에 질려

결국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사마의는 급히 태위 장제와 상서령 사마부에게 함께 표문을 작성하게 한 뒤, 황문관을 시켜 성 밖으로 보내 황제에게 직접 올리도록 했다. 그리고는 스스로 대군을 이끌고 무고를 접거했다.

이때 이미 조상의 집에 이 소식이 전해졌다. 조상의 아내 유씨는 급히 대청 앞으로 나가 수문장에게 물었다. "지금 주공께서 성 밖에 계시는데, 중달이 군사를 일으킨 의도가 무엇인가?" 수문장 판거가 "부인,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활과 노를 든 병사 수십 명을 데리고 누각에 올라가 살폈다. 마침 사마의가 군사를 이끌고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이 보이자, 판거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화살을 마구 쏘게 하니 사마의가 지나갈 수 없게 되었다. 뒤따르던 편장 손검이 "태부께서는 국가의 대사를 행하고 계시니 화살을 쏘지 마시오"라며 만류했다. 손검이 세 번이나 말린 끝에야 판거는 화살을 쏘지 않았다. 그사이 사마소가 아버지를 호위하며 지나갔고, 사마의는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낙하에 주둔하며 부교를 지켰다.

한편, 조상의 부하인 사마(司馬) 노지가 성안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보고 참군 신창에게 달려와 말했다. "지금 사마의가 이렇게 난을 일으켰으니,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신창이 대답했다. "우리 부대의 병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천자를 뵈어야 하오." 노지가 그 말에 동의하자, 신창은 급히 후당으로 들어갔다. 이를 본 신창의 누이 신현영이 무슨 일이냐며 다급히 묻자, 신창이 말했다. "천자께서는 성 밖에 계시는데, 태부 사마의가 성문을 닫아걸었으니 필시 반역을 꾀하려는 것이오." 신현영이 말했다. "사마의가 반드시 반역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

단지 조상 장군을 죽이려는 것일 뿐이오." 신창이 놀라며 말했다. "그 일이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지 않소?" 신현영이 다시 말했다. "조상 장군은 사마의의 상대가 되지 못하니 반드시 패할 것이오." 신창이 말했다. "지난번에 사마(司馬, 노지)가 나에게 함께 성을 나가자고 하였는데, 가도 될지 모르겠소." 신현영이 말했다. "맡은 직무를 다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큰 도리요. 무릇 남이 어려움에 처하면 오히려 가없이 여겨 돕는 법인데, 남을 섬기는 처지에서 제 할 일을 저버리는 것은 이보다 더 불길한 일이 없소." 신창은 누이의 말을 따랐다. 그는 사마 노지와 함께 수십 명의 기병을 이끌고 성문을 부수고 나갔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사마의에게 알렸다. 사마의는 환범마저 도망칠까 두려워져 급히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오게 했다. 환범이 아들과 상의하니, 아들이 말했다. "황제 폐하께서 밖에 계시니, 차라리 남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범은 아들의 말을 따라 말에 올라 평창문에 이르렀으나, 이미 성문이 닫혀 있었다. 문을 지키던 장수는 환범의 옛 부하인 사변이었다. 환범이 소매 안에서 대나무 판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태후께서 내리신 조서이니 즉시 문을 열라." 사변이 말했다. "조서를 내보여 확인해야겠습니다." 환범이 호통을 쳤다. "네놈은 나의 옛 부하인데 어찌 감히 이리 구느냐!" 사변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그를 들여보냈다. 환범은 성 밖으로 나가 사변을 불러 말했다. "태부께서 반역을 일으켰으니, 너도 어서 나를 따르라." 사변은 크게 놀라 뒤쫓았으나 미처 따라잡지 못했다.

이 소식이 사마의에게 전해졌다. 사마의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책사가 빠져나갔구나!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러자 장제가 말했다.

"늙은 말이 묵은 콩을 아까워하듯 미련을 떨고 있으니, 결코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사마의는 곧 허윤과 진태를 불러 말했다. "너희는 조상을 만나 태부께서 다른 뜻은 없으시고, 그저 조상 형제의 병권을 뺏으려는 것뿐이라고 말하라." 허윤과 진태 두 사람이 떠났다. 이어 전중교 위 윤대목을 불렀으며, 장제에게 글을 쓰게 하여 윤대목에게 들려 조상을 찾아가게 했다. 사마의가 윤대목에게 당부했다. "너는 조상과 사이가 두터우니 이 임무를 맡을 만하다. 조상을 만나 내가 장제와 함께 낙수에서 맹세하기를, 오직 병권 문제일 뿐 다른 뜻은 전혀 없다고 말하라." 윤대목은 명을 받들어 떠났다.

한편, 조상이 기세등등하게 권세를 휘두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성안에 변고가 생겨 태부 사마의가 표문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상은 크게 놀라 하마사할 뻔했다. 황문관이 표문을 받들어 천자 앞에 무릎을 꿇고 바쳤다. 조상이 표문을 받아 봉인을 뜯고 측근에게 읽게 하니, 표문의 내용은 대략 이러하였다.

"서쪽을 정벌하는 대도독이자 태부인 신 사마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려 삼가 표문을 올립니다. 신이 예전에 요동에서 돌아왔을 때, 선황제께서 폐하와 진왕, 그리고 신 등에게 조서를 내려 어상(御床) 곁에 오르게 하시고 신의 팔을 붙잡으며 뒷날의 일을 깊이 염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군 조상은 선황제의 유명을 저버리고 나라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분수에 넘치는 일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권세를 독점하고 있으며, 황문관 장당을 도감으로 삼아 사사로이 결탁하며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황제를 엿살피며 제위(帝位)를 노리고, 두 궁실(천자와 태후) 사이를 이간질하여 혈

육의 정을 해치고 있으니, 천하가 술렁이고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선황제께서 폐하께 내리신 조서와 신에게 당부하신 본래의 뜻이 아닙니다."

"신이 비록 늙고 기력이 다하였으나, 어찌 지난번의 말씀을 잊겠습니까? 태위인 저 장제와 상서인 사마부 등은 모두 조상이 임금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역심(無君之心)을 품고 있어, 그 형제들이 군권을 쥐고 궁궐을 호위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영녕궁의 황태후께 아뢰어, 조상·조희·조훈의 관속과 병력을 해산하고 그들을 후(侯)의 신분으로 사저로 돌아가게 하여 더 이상 어가(御駕)를 가로막거나 지체시키지 못하게 하라는 명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감히 머뭇거리며 어가를 지체시킨다면 즉시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며, 저 또한 병을 무릅쓰고 병사를 거느리고 낙수 부교에 진을 친 채 이상한 움직임이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삼가 이 글을 올리오니, 부디 성심으로 살피주시옵소서."

위나라 황제 조방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조상을 불러 물었다. "태부의 말이 이러하니, 경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조상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며 두 동생을 돌아보고 물었다.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하느냐?"

조희가 대답했다. "동생인 저도 형님께 간언한 적이 있었으나, 형님께서 고집을 부리며 듣지 않으시더니 결국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마의는 속임수가 비할 데 없이 교활하여 제갈량조차 이기

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 형제가 어찌 당해내겠습니까? 차라리 스스로 몸을 묶어 그에게 나아간다면 죽음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참군 신창과 사마로지가 도착했다. 조상이 그들에게 상황을 물으니, 두 사람이 말했다. "성 안은 마치 쇠통에 갇힌 것처럼 짝 막혀 있습니다. 태부가 군사를 이끌고 낙하 부교에 진을 쳤으니 형세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서 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농사관 환범이 말을 타고 급히 달려와 조상에게 말했다. "태부가 이미 변심했습니다!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황제 폐하를 모시고 허도로 피신하여, 외부의 군사를 불러 사마의를 토벌하지 않으십니까?"

조상이 말했다. "우리 일가족이 모두 이 성 안에 있는데, 어찌 다른 곳으로 도망쳐 구원을 요청할 수 있겠는가?"

환범이 외쳤다. "평범한 사람도 난관에 부딪히면 살고 싶은 법입니다! 지금 주군께서 천자를 모시고 천하에 명을 내리신다면 누가 감히 응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스스로 죽을 곳으로 뛰어드려 하십니까?"

조상은 그 말을 듣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환범이 다시 말했다. "허도까지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습니다. 성안의 군량은 몇 년은 거뜬히 버틸 만큼 충분합니다. 지금 주공께서 따로 거느린 군마들이 궁궐 남쪽에 있으니, 부르기만 하면 즉시 달려올 것입니다. 대사마의 인장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공께서는 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늦으면 정말 끝장입니다!"

조상이 말했다. "여러 관리들이 너무 재촉하지 말게. 내가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게나."

잠시 후, 시중 허윤과 상서령 진태가 도착했다. 두 사람이 말했다. "태부는 그저 장군님의 권세가 너무 커서 병권을 깎으려는 것일 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장군께서는 어서 성으로 돌아가십시오." 조상은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

이때 전종교위 윤대목이 나타났다. 윤대목이 말했다. "태부는 낙수를 두고 맹세까지 하셨으니 다른 꿈꿉이는 없습니다. 여기 장 태위가 보낸 서신도 있습니다. 장군께서는 병권을 내려놓으시고 어서 상부로 돌아가십시오." 조상은 이 말을 진심 어린 충고로 믿었다.

그러자 환범이 다시 호소했다. "상황이 급박합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어서 살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날 밤 조상은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칼을 뽑아 손에 쥐고 탄식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황혼 무렵부터 새벽까지 줄곧 눈물을 흘리며 망설이기만 하니, 의심과 불안이 가시질 않았다. 환범이 장막 안으로 들어와 재촉하며 말했다. "주공께서 온종일 밤새도록 생각에 잠겨 계시는데, 어찌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십니까?" 조상이 칼을 내던지며 탄식했다. "내가 군사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니, 차라리 관직을 버리고 그저 부유한 노인으로 살고 싶구나!" 환범은 크게 울며 장막 밖으로 나와 외쳤다. "조자단은 제 지략을 믿고 자만하더니, 이제 그 형제 세명은 정말이지 어린 송아지만도 못하구나!" 환범은 통곡을 멈추지 못했다.

한편 허윤과 진태가 조상에게 먼저 인장과 관인을 사마의에게 바치고 권했다. 조상은 장수에게 명령하여 인장을 보내게 했다. 이때 주부 양종이 인장을 붙잡고 울며 말했다. "주공께서 오늘 병권을 버리고 스스로 묶여 항복하러 가신다면, 동시(東市)에서 처형당하는 운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조상이 말했다. "태부께서 반드시 나와의 약속을 어기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조상은 인장과 관인을 허윤, 진태 두 사람에게 맡겨 먼저 사마의에게 전달하게 했다. 군사들은 장수가 인장을 잃은 것을 보고 모두 흠어져 달아났다. 조상의 곁에는 오직 몇 명의 기병과 관리들뿐이었다.

조상 일행이 부교에 다다르자, 사마의가 명령을 내려 조상 형제 세 사람에게는 일단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구금하여 칙령을 기다리게 했다. 조상 등이 성안으로 들어갈 때는 곁을 지키는 시종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환범이 부교 근처에 이르자, 말 위에 있던 사마의가 채찍으로 그를 가리키며 물었다. "환 대부, 어찌하여 이 모양인가?" 환범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성안으로 들어갔다.

사마의는 황제의 수레를 모시고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입성했다. 조상 형제 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자, 사마의는 커다란 쇠사슬로 문을 채우고 주민 팔백 명을 시켜 그들의 저택을 겹겹이 에워싸게 했다. 조상은 마음속으로 근심과 답답함이 가득했다. 이때 동생 조희가 조상에게 말했다. "지금 집에 식량이 부족하니, 형님께서 태부께 글을 써서 식량을 빌려달라고 하십시오. 만약 그가 기꺼이 식량을 빌려준다면, 분명 우리를 해치려는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조상이 곧 글을 써서 사

람을 보내 전달했다. 사마의가 그 글을 읽어보고는 곧바로 사람을 보내 식량 백 곡을 조상의 저택 안으로 운반해 주었다. 조상은 크게 기뻐하며 "사마공은 본래 나를 해칠 마음이 없었구나!"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

원래 사마의는 먼저 황문관 장당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죄를 물었다. 장당이 "저 혼자만이 아니라 하안, 등양, 이승, 필범, 정밀 등 다섯 사람도 함께 반역을 꾀했습니다"라고 자백했다. 사마의는 장당의 자백을 토대로 하안 일행을 잡아다 심문하여, 모두 3월 중에 반역을 일으키려 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냈다. 사마의는 이들에게 긴 형틀(장가)을 씌워 못 박아 가두었다.

성문을 지키던 수문장 사변이 달려와 "환범이 조서를 위조해 성 밖으로 나가면서, 태부가 반역을 꾀한다고 말했습니다"라고 고했다. 사마의가 "남을 모함하여 반역으로 무고하면, 그 죄는 도리어 무고한 자에게 돌아가는 법이다(反坐)"라고 말하며 환범 일행도 모두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나서 조상의 형제 세 사람과 그 일당을 모두 압송하여 저잣거리에서 처형하고 그 삼족을 멸하였다. 또한 그 집안의 재산과 물건도 모두 몰수하여 창고에 넣었다.

당시 조상의 사촌 동생인 조문숙(曹文叔)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하후령녀(夏侯令女)였다. 일찍 과부가 되어 자식이 없자 그녀의 아버지가 재혼을 시키려 하니, 그녀는 자신의 귀를 잘라 절개를 맹세했다. 그런데 조상이 처형당하자 아버지가 다시 재혼을 시키려 하니, 그녀는 이번에는 코를 잘라버렸다.

집안 사람들이 경악하며 그녀에게 말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가벼운 먼지나 약한 풀에 붙어 사는 것과 같은데, 어찌 이토록 스스로를 괴롭히는가? 게다가 시댁(夫家)마저 이미 사마씨에게 모조리 죽임을 당했는데, 절개를 지킨들 누구를 위함인가?"

그러자 그녀가 울며 말했다. "저는 '어진 사람은 성하고 쇠함에 따라 절개를 바꾸지 않고, 의로운 사람은 살고 죽음에 따라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씨 집안이 번성했을 때도 끝까지 지키려 했는데, 하물며 지금 멸망한 마당에 어찌 차마 절개를 버리겠습니까? 그것은 짐승 같은 것이니 제가 어찌 하겠습니까!"

사마의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어질게 여겨, 양자를 들여 스스로 기르며 조씨 집안의 후사로 삼도록 허락하였다. 훗날 사람들이 그녀를 기리며 시를 지었다.

"가벼운 먼지와 약한 풀 같은 삶을 달관하였으니, 하후씨 집안의 여인은 그 의리가 산과 같구나. 대장부도 여인의 절개에 미치지 못하니, 스스로의 수염과 눈썹을 돌아보며 부끄러워하리라."

한편, 사마의가 조상을 처단하자 태위 장제가 말했다. "아직 노지와 신창처럼 관문을 열고 탈출한 자들과, 양종처럼 인장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은 자들이 남아 있으니, 이들을 모두 놓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사마의가 말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주군을 위해 행동한 것이니,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사마의는 결국 그들을 모두 원래의 직책으로 복귀시켰다. 신창은 탄식하며 말했다. "만약 내가 누이에게 묻지 않

있더라면, 큰 의리를 저버릴 뻔하였구나!" 훗날 사람들이 신현영을 찬양하며 지은 시는 이러하다.

"신하로서 녹봉을 받으면 보답할 길을 생각해야 하니, 주군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마땅히 충성을 다해야 한다. 신씨 성을 가진 현영은 동생을 권했으니, 예나 지금이나 천 년 동안 그 높은 절개가 칭송받으리라."

사마의는 신창을 비롯한 사람들의 목숨은 살려주되, 방을 붙여 다음과 같이 널리 알렸다. "조상의 문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면할 것이며, 관직에 있던 자들은 예전대로 복직시킨다. 군사와 백성들은 각자 가업을 지키도록 하라." 이로써 안팎의 민심이 안정을 되찾았다. 하안과 등양 두 사람은 결국 비참하게 죽었으니, 과연 관로의 말대로 된 셈이다. 후대의 사람이 관로를 찬양하며 지은 시가 다음과 같다.

"성현의 오묘한 비결을 전하니, 평원의 관로는 신과 통하도다. 귀신 같이 앞날을 내다보아 하안과 등양의 죽음을 맞혔으니, 죽기도 전에 이미 죽은 목숨을 알았구나."

한편, 위나라 황제 조방은 사마의를 승상으로 삼고 구석(九錫)을 내렸다. 사마의는 완강히 거절하며 받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조방이 허락하지 않자, 결국 사마의 부자 세 사람이 함께 국사를 돌보게 되었다.

그때 사마의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조상의 일가는 모두 처단했다고는 하나, 아직 옹주 등지를 지키고 있는 하후패가 남아 있다. 그는 조상의 친족이니 만약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겠다.'

사마의는 즉시 조서를 내려 정서장군 하후패를 낙양으로 불러들여 정사를 논의하게 하라는 명을 내렸다. 하후패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즉시 자신이 거느린 부대 병사 삼천 명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

당시 옹주를 지키던 자사 곽회가 하후패의 반란 소식을 듣고 즉시 자기 부대를 이끌고 와서 하후패와 맞붙었다. 곽회가 말을 몰아 크게 꾸짖었다. "그대는 대위의 황족으로서 천자께서 그대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거늘, 어찌하여 반역을 꾀하는가!"

하후패도 맞서 소리쳤다. "내 조상께서는 국가를 위해 많은 공을 세우셨거늘, 지금 사마의라는 자는 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우리 조씨 종족을 멸하고 이제는 나까지 잡아가려 하는가! 그는 머지않아 반드시 황제의 자리를 찬탈할 자다. 나는 의를 위해 도적을 치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반역이란 말인가!"

곽회는 크게 노하여 창을 앞세워 말을 몰아 하후패를 향해 돌진했다. 하후패 역시 칼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 맞서 싸웠다. 열 합을 채 싸우기도 전에 곽회가 패하여 달아나자, 하후패가 그 뒤를 쫓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후방에서 함성이 들려오더니, 하후패가 급히 말을 돌리는 찰나 진태가 군사를 이끌고 습격해 왔다.

곽회도 다시 돌아와 합류했다.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자 하후패는 크게 패하여 달아났고, 병력의 절반 이상을 잃었다. 더는 방도가 없음을 깨달은 하후패는 결국 한중으로 가서 후주 유선에게 투항하기로 했다.

강유에게 누군가 소식을 전했으나, 강유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직접 사실을 확인하게 한 뒤에야 비로소 하후패를 성안으로 들여보냈다. 하후패는 강유를 뵈고 나서 지난 일을 이야기하며 통곡했다. 강유가 말했다.

"옛날 미자가 주나라를 떠났을 때 만고에 이름을 남겼듯이, 그대가 한나라 왕실을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면 고대인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오."

그리고는 잔치를 베풀어 하후패를 대접했다. 강유가 자리에 앉아 물었다.

"지금 사마의 부자가 권력을 장악했는데, 혹시 우리 나라를 엿보려는 뜻이 있소?"

하후패가 대답했다.

"늙은 도적 사마의는 이제 막 반역을 꾀하고 있어 아직 외부까지 손을 뻗을 겨를은 없습니다. 다만 위나라에 새로이 두 인물이 떠오르고 있는데, 마침 한창 혈기 왕성한 나이입니다. 만약 그들이 군사를 거느리게 된다면 참으로 오나라와 촉나라에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강유가 물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요?"

하후패가 말했다.

"한 명은 비서랑을 맡고 있는데, 영천 장사 출신입니다. 성은 종, 이름은 회, 자는 사계이며 태부 종요의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담력과 지혜가 남달랐습니다. 종요가 두 아들을 데리고 조비(문제)를 뵈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종회가 일곱 살, 그 형인 종육이 여덟 살이었는데, 형 종육은 황제를 뵈고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얼굴에 땀이 비 오듯 흘렸습니다. 황제가 종육에게 '너는 어찌하여 땀을 흘리느냐?'라고 묻자, 종육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땀이 쏟아집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황제가 다시 종회에게 '너는 어찌하여 땀을 흘리지 않느냐?'라고 묻자, 종회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감히 땀조차 흘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황제가 이를 매우 신기하게 여겼지요. 그가 조금 자란 뒤에는 병서를 즐겨 읽어 병법의 요체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마의와 장제도 모두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연리를 맡고 있는데, 의양 출신입니다. 성은 등, 이름은 애, 자는 사재입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평소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산이나 넓은 못을 볼 때마다 손가락으로 가늠하며 어디에 군사를 주둔시킬지, 어디에 식량을 쌓을지, 어디에 매복할지를 살피곤 했습니다. 남들은 모두 그를 비웃었으나 오직 사마의만이 그의 재능을 기특하게 여겨 군사 기밀을 참모로 맡겼습니다. 등애는 말을 더듬는 습관이 있어 일을 보고할 때마다 늘 '애, 애'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마의가 농담 삼아 '그대는 늘 애애(艾艾)라고 하는데, 대체 얼마나 많은 애(艾)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자, 등애가 즉시 대답하기를 '봉황이요, 봉황이라서 오직 한 마리의 봉황일 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재능과 기민함이 대략 이와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참으로 두려운 인물들입니다."

강유가 웃으며 말했다.

"그저 어린아이들에 불과한데, 무엇을 그리 걱정하시오!"

이후 강유는 하후패를 데리고 성도로 가서 유선을 알현했다. 강유가 아뢰기를, "사마의가 조상을 모함하여 죽이려 꾀하더니, 이제는 하후패까지 속여 넘기려 하기에 하후패가 투항했습니다. 지금 사마의 부자가 권력을 독점하고 조방은 나약하니, 위나라는 위태로운 처지입니다. 신이 한중에 머문 지 여러 해가 되어 군사는 정예하고 군량은 충분합니다. 신이 왕의 군대를 이끌고 하후패를 길잡이로 삼아 중원을 탈환하고 한나라를 다시 일으킴으로써,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고 승상의 뜻을 끝까지 받들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상서령 비의가 간언하기를, "최근 장완과 동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 안살림을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백약(강유의 자)께서는 때를 기다려야지, 경솔하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다. 강유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마치 달리는 말의 발굽 사이로 비치는 햇살 처럼 덧없으니, 이렇게 세월을 지체하다가 어느 날에야 중원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비의가 다시 말했다. "손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 백 번 이긴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승상보다 훨씬 못 미치는데, 승상조차 아직 중원을 되찾지 못하셨거늘 하물며 저희가 어찌 하겠습니까?" 강유가 말했다. "제가 오랫동안 농상 지역에 머물며 강족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강족과 동맹을 맺어 원군으로 삼는다면,

비록 중원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하더라도 농상에서 서쪽 지역만큼은 확실히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선이 말했다. "경이 위나라를 치고자 한다면 충성을 다하고 힘을 쏟으시오. 기세를 꺾어 짐의 명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이에 강유는 어명을 받들어 조례를 마친 뒤, 하후패와 함께 곧장 한중으로 가서 거병할 계획을 세웠다.

강유가 말했다. "먼저 사절을 보내 강족과 동맹을 맺은 뒤, 서평으로 나가 옹주와 가까운 곳에 이르러야 합니다. 먼저 곡산 아래에 성 두 개를 쌓고 병사들을 배치하여 서로 돕는 형세를 만듭시다. 우리는 천구에서 군량을 모두 끌어모아 승상이 세우신 옛 제도에 따라 차례로 진군합시다."

그해 가을 8월, 먼저 촉나라 장수 구안과 이흠에게 만 오천 명의 병사를 주어 곡산 앞으로 보내 성 두 개를 연달아 쌓게 했다. 구안은 동성을 지키게 하고, 이흠은 서성을 지키게 했다.

이미 첩자가 옹주 자사 광회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광회는 즉시 낙양에 보고를 올리는 한편, 부장 진태에게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곡산으로 가서 촉나라 군사와 싸우게 했다. 구안과 이흠이 각각 군사를 이끌고 맞서 나갔으나, 병력이 적어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성 안으로 퇴각했다. 진태는 군사들에게 사방에서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게 하는 동시에, 한중으로 이어지는 보급로까지 끊어버렸다. 구안과 이흠은 성안의 식량이 떨어져 곤경에 처했다. 광회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도착하여 지세를 살펴보더니 매우 기뻐하며 진태와 함께 계책을 논의했다.

"이 성은 지세가 높고 험해서 반드시 물이 부족할 것이니, 반드시 성 밖으로 나가 물을 길어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류를 막아버린다면 축나라 군사들은 모두 목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곽회는 즉시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흙을 파내어 상류의 물길을 막아버렸다. 그러자 성 안에는 정말로 물이 끊기고 말았다. 이흠이 물을 구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갔으나, 웅주 군사들이 워낙 촘촘하게 에워싸고 공격하는 바람에 이흠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음에도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다시 성 안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구안 역시 성 안에 물이 없자 이흠과 합의하여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함께 나갔다. 그러나 한참 동안 격렬한 전투를 벌인 끝에 다시 성 안으로 패퇴하고 말았고, 군사들은 갈증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구안과 이흠이 말했다. "강유 도독의 군사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흠이 말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싸워 길을 뚫고 구원을 요청해 오겠습니다."

이흠은 곧 수십 명의 기병을 이끌고 성문을 열어 돌파하며 싸우며 나왔다. 웅주 군사가 사방에서 압박해 오자 이흠은 필사적으로 부딪치며 싸운 끝에 겨우 탈출할 수 있었으나, 혼자 몸에 중상을 입은 채 겨우 살아남았을 뿐 나머지 부하들은 모두 난전 중에 몰살당했다. 그날 밤 북풍이 거세게 불고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덕분에 성 안의 축나라 군사들은 식량을 나누어 눈을 녹여 먹으며 간신히 버텼다.

한편, 이흠은 포위망을 뚫고 서산의 셋길을 통해 이틀 동안 달려가다 강유의 군대와 마주쳤다. 이흠은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고했다. "곡산의 두 성이 모두 위나라 군사에게 포위되어 물길마저 끊겼습니다. 다행히 하늘에서 큰 눈이 내려 눈을 녹여가며 겨우 버티고 있으나,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강유가 말했다. "내가 구하러 가는 것이 늦은 게 아니라, 강족 병사들을 모으느라 도착이 늦어졌다." 그러고는 사람을 보내 이흠을 성도로 데려가 병을 치료하게 했다.

강유가 하후패에게 물었다. "강족 병사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위나라 군사가 곡산을 매우 급하게 포위하고 있으니 장군께서는 어찌하면 좋겠소?"

하후패가 대답했다. "강족 병사들이 곡산에 도착할 때쯤이면 두 성은 이미 함락될 것입니다. 제가 짐작건대 옹주의 병사들이 모두 곡산으로 몰려와 공격할 것이니, 옹주 성은 분명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군사를 이끌고 곧장 우두산으로 가서 옹주의 뒤쪽을 기습하십시오. 그러면 광회와 진태가 반드시 옹주를 구하기 위해 회군할 것이니, 곡산을 에워싼 포위망도 자연히 풀릴 것입니다."

강유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 계책이 가장 좋구려!" 하고는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우두산을 향해 나아갔다.

한편, 진태는 이흠이 성 밖으로 달려 나가는 것을 보고 광회에게 말했다. "이흠이 만약 강유에게 급히 구원을 요청한다면, 강유는 우리 대군이 모두 곡산에 있는 줄 알고 반드시 우두산을 통해 우리의 후방을

기습하려 할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군사를 이끌고 조수(洮水)로 가서 축나라 군사의 식량 보급로를 끊으십시오. 저는 나머지 병력의 절반을 이끌고 곧장 우두산으로 가서 그들을 치겠습니다. 만약 저들이 보급로가 끊긴 것을 알게 된다면, 분명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곽희가 이 말을 따랐기에, 곧 한쪽 군사를 이끌고 몰래 조수를 점령하러 나갔고, 진태는 다른 한쪽 군사를 이끌고 곧장 우두산으로 향했다.

한편, 강유의 군대가 우두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전군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위나라 군사가 길을 가로막았다는 보고였다. 강유가 급히 군대 앞으로 나가 상황을 살피니, 진태가 크게 호통을 쳤다.

"네놈이 감히 우리 옹주를 습격하려 하느냐!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강유는 화가 나 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진태를 직접 공격했다. 진태도 칼을 휘두르며 맞섰으나, 채 세 합을 겨루기도 전에 패하여 달아났다. 강유가 군사를 몰아 추격하자 옹주 군사들은 퇴각하여 산머리를 점거했다. 강유는 군대를 거두어 우두산 아래에 진을 쳤다. 강유는 매일 군사를 보내 싸움을 걸었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하후패가 강유에게 말했다.

"이곳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닙니다. 연일 싸우면서도 승부를 내지 못하는 것은 적이 우리를 유인하려는 계책이니,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잠시 물러나 다시 좋은 대책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하후패가 말을 하는 도중, 갑자기 곽회가 군사를 이끌고 조수(洮水)로 와서 보급로를 끊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강유는 크게 놀라 급히 하후패에게 먼저 퇴각하라 명하고, 자신은 뒤를 맡아 버티기로 했다. 이때 진태가 다섯 갈래로 군사를 나누어 몰려왔다. 강유는 홀로 다섯 길의 합류 지점을 막아서며 위나라 군사와 맞서 싸웠다. 진태가 군사를 이끌고 산 위로 올라오자 화살과 돌이 비 오듯 쏟아졌다.

강유가 급히 조수로 퇴각할 때, 곽회가 이끄는 군사가 들이닥쳤다. 강유는 군사를 이끌고 이리저리 부딪치며 싸웠으나, 위나라 군사가 철통같이 길을 막아섰다. 강유가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며 길을 뚫었으나 병력의 태반을 잃고 양평관을 향해 급히 달려갔다.

그런데 앞쪽에서 또 다른 군사가 들이닥쳤다. 그 선두에는 한 명의 대장이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며 나타났다. 그는 얼굴이 둥글고 귀가 크며, 입은 네모지고 입술은 두꺼웠다. 왼쪽 눈 아래에는 검은 혹이 나 있는데, 그 혹 위에는 검은 털이 수십 가닥 나 있었다. 그는 바로 사마의의 장남인 표기장군 사마사였다.

강유가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네놈이 감히 나의 귀환로를 막느냐!"

강유는 말을 박차고 창을 내질러 사마사를 찔렀다. 사마사도 칼을 휘두르며 맞섰다. 그러나 단 세 합 만에 사마사를 패퇴시킨 강유는 몸을 빼내어 곧장 양평관으로 달려갔다. 성 안의 사람들이 문을 열어 강유를 들여보냈다. 사마사가 뒤따라 관을 빼앗으려 하자, 양쪽에서 복

병의 노가 일제히 발사되었다. 한 번 쏘면 화살이 열 발씩 나가는 이 무기는 과거 무후(제갈량)가 임종 전에 남긴 '연노(連弩)'의 비법이었다.

이야말로, 이날 삼군이 패하는 것은 버티기 어려웠으나, 오직 그해에 전한 열 발의 화살에 의지하였도다.

사마사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8회 — 정봉이 눈 속에서 짧은 병기를 휘두르고, 손준이 자리에서 비밀스러운 계책을 펼치다

丁奉雪中奮短兵 孫峻席間施密計

한편, 강유가 퇴각하던 중 사마사의 군대를 만나 가로막혔다. 원래 강유가 웅주를 점령할 당시, 곽회가 급히 소식을 전해 조정에 보고했다. 위나라 황제는 사마의와 상의하여 대책을 세웠고, 사마의는 장남 사마사에게 5만 병력을 주어 웅주로 출정하게 했다. 사마사는 곽회로부터 촉나라 군대가 물러갔다는 보고를 듣고, 촉나라 군대의 기세가 약해졌을 것이라 판단하여 중간에서 습격하기로 했다. 사마사가 양평관까지 급히 달려왔을 때, 강유는 제갈량이 전수한 연노법을 사용해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 양쪽 길목에 백여 장의 연노를 매복시켜 두었는데, 연노 한 번에 화살 열 발이 나가도록 설계된 데다 그 화살들은 모두 독 화살이었다. 양쪽에서 연노가 일제히 쏟아지자, 앞장서던 군사들은 말과 함께 수없이 맞아 죽었다. 사마사는 혼란에 빠진 군사들 사이를 뚫고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쳐 돌아왔다.

한편, 곡산성에서는 축나라 장수 구안이 구원병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성문을 열어 위나라에 항복했다. 강유는 수만 명의 군사를 잃고 패잔병을 이끌고 한중으로 돌아와 진을 쳤다. 사마사는 낙양으로 돌아갔다.

가평 3년 가을 8월, 사마의가 병에 걸려 차츰 병세가 위중해지자 두 아들을 침상 앞으로 불러 다음과 같이 유언했다.

"나는 오랫동안 위나라를 위해 일하며 태부의 자리에 올랐으니, 신하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탄마음이 있다고 의심하니, 나 또한 한때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다. 내가 죽은 뒤에는 너희 둘이 국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부디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말을 마친 사마의는 숨을 거두었다. 장남 사마사와 차남 사마소는 위나라 황제 조방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조방은 사마의의 제사와 장례를 정중히 치러주고, 관직과 시호를 높여 내려주었다. 사마사를 대장군으로 봉하여 상서의 모든 기밀한 대사를 총괄하게 했고, 사마소는 표기상장군으로 삼았다.

한편, 오나라 황제 손권에게는 먼저 태자 손등이 있었는데, 서부인 소생으로 오나라 적오 4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에 손권은 낭야왕부인 소생인 차자 손화를 태자로 세웠다. 그러나 손화가 전공주와 사이가 좋지 않아 공주의 모함을 받는 바람에 손권이 그를 폐위시켰고, 손화는 이를 한스러워하다 죽고 말았다. 그 후 다시 판부인 소생인 삼자 손량

을 태자로 세웠다. 이때는 이미 육손과 제갈근이 모두 세상을 떠난 뒤라,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업무는 제갈恪이 도맡아 처리하고 있었다.

태화 원년 가을 8월 초하루,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더니 강과 바다에 큰 파도가 일고 평지에도 물이 8척이나 차올랐다. 손권이 예전에 심어놓은 소나무와 잣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건업성 남문 밖 길가에 거꾸로 박힐 정도였다. 손권은 이 일로 크게 놀라 병을 얻었다. 그해 8월이 되자 병세가 위중해지자, 손권은 태부 제갈恪과 대사마 여대를 침상 앞으로 불러 후일을 부탁하고는 숨을 거두었다. 재위 24년, 향년 71세였으니 때는 축한 연희 15년이였다. 후대에 어떤 이가 시를 지어 그를 기렸다.

"자줏빛 수염에 푸른 눈을 가진 영웅이라 불리며, 신하들이 충성을 다하게 하였네. 24년 동안 대업을 일으켜, 강동 땅에 용과 호랑이가 웅거하게 하였도다."

손권이 세상을 떠나자, 제갈恪은 손량을 황제로 세우고 천하에 대사를 실시하며 연호를 대흥 원년으로 고쳤다. 손권의 시호는 대황제로 정하고 장릉에 장사 지냈다. 일찍이 첩자가 이 소식을 알아내어 낙양에 보고했다. 사마사는 손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오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기로 의논했다. 상서 부가가 말했다. "오나라는 장강이라는 천험의 요새를 끼고 있습니다. 선제께서도 여러 차례 정벌을 시도하셨으나 모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각자 변방을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자 사마사가 말했다. "천도란 30년마다 변하는 법인데, 어찌 영원히 세 나라가 대치하며 버틸 수 있겠는가? 나는 오나라를 치고자 한다." 사마소도 거들었다. "지금 손권이 막 죽고 손

량은 어리고 유약하니, 이 틈을 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사마사는 정남대장군 왕창에게 10만 병력을 주어 남군을 공격하게 하고, 정동장군 호준에게 10만 병력을 주어 동흥을 공격하게 했으며, 진남도독 관구검에게 10만 병력을 주어 무창을 공격하게 하여 세 갈래로 진격시켰다. 또한 동생 사마소를 대도독으로 삼아 세 갈래 군마를 총괄하게 했다.

그해 겨울 10월, 사마소의 군대가 오나라 국경에 이르러 병력과 말들을 주둔시켰다. 사마소는 왕창, 호준, 관구검을 장막 안으로 불러 모아 계획을 논의하며 말했다. "오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동흥군이다. 지금 그곳은 소호 뒷방향에서 공격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커다란 제방을 쌓고 좌우에 성 두 개를 더 구축해 놓았으니, 여러분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고는 왕창과 관구검에게 각각 1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좌우에 배치하여 대기하되, 함부로 진격하지 말고 동흥군을 완전히 점령한 뒤에 일제히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왕창과 관구검이 명령을 받고 물러가자, 사마소는 다시 호준에게 선봉이 되어 세 갈래의 군사를 총괄하여 전진하라고 명했다. 먼저 부교를 놓아 동흥의 제방을 차지해야 하며, 만약 좌우의 성 두 곳까지 점령한다면 큰 공을 세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호준이 병사들을 이끌고 부교를 놓기 위해 나아갔다.

한편, 오나라의 태부 제갈각은 위나라 군대가 세 갈래로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평북장군 정봉이 말했다. "동흥은 우리 오나라의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만약 이곳을 잃게 되면 남군과 무창도 위험해질 것입니다." 제갈각이 말했다. "그 말

이 내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오. 그대는 즉시 수군 3천 명을 거느리고 강을 따라 동흥으로 가시오. 나는 뒤이어 여거, 당자, 유찬에게 각각 보병 1만 명씩을 이끌고 세 갈래 길로 나누어 지원하러 오라고 명령하겠소. 그러니 신호포가 연달아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 일제히 진격하십시오. 나는 대군을 직접 이끌고 나중에 도착하겠소." 정봉은 명령을 받들자마자 수군 3천 명을 서른 척의 배로 나누어 태우고 동흥을 향해 나아갔다.

한편, 호준은 부교를 건너 제방 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환가와 한 종을 보내 두 성을 공격하게 했다. 왼쪽 성은 오나라 장수 전역이 지키고 있었고, 오른쪽 성은 오나라 장수 유락이 지키고 있었다. 이 두 성은 지형이 높고 견고하여 급히 공격해도 함락되지 않았다. 전역과 유락 두 사람은 위나라 군대의 기세가 막강한 것을 보고 감히 나가 싸우지 못하채 성을 죽기 살기로 지켰다. 호준이 서주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다. 마침 날씨가 매우 추워 눈이 펄펄 쏟아지고 있었는데, 호준이 장수들과 잔치를 벌이던 중 갑자기 물 위로 전선 서른 척이 다가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호준이 진영 밖으로 나가 살펴보니, 배들이 차례로 강가에 붙어 오고 있었고 배 한 척당 병력은 약 백 명 정도 되어 보였다. 그는 다시 막사로 돌아와 장수들에게 말했다. "겨우 삼천 명일 뿐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호준은 부하 장수들에게 정찰만 시키고는 다시 술을 마셨다. 이때 정봉이 배들을 일렬로 물 위에 띄워 놓고 부하들에게 말했다. "대장부가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고 부귀를 누리는 것은 바로 오늘에 달려 있다!" 그러고는 모든 군사에게 갑옷을 벗고 투구를 벗게 한 뒤, 긴 창이나 큰 칼은 쓰지 말고 오직 짧은 칼만 차게 했다. 위나라 병사들은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비웃으며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

갑자기 연달아 세 번의 포성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정봉이 칼을 뽑아 들고 앞장서서 물 위를 뛰어올라 땅으로 상륙했다. 모든 군사가 단도를 뽑아 들고 정봉을 따라 상륙하여 위나라 진영으로 들이닥쳤다. 위나라 병사들이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이 한종이 막사 앞에 있던 커다란 창을 뽑아 맞서려 했으나, 이미 정봉이 품 안으로 파고들어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환가가 왼쪽에서 나타나 급히 창을 찔러 정봉을 공격했으나, 정봉이 창대를 낚아채 막아냈다. 환가가 창을 버리고 달아나려 하자 정봉이 칼을 날려 그의 왼쪽 어깨를 정확히 맞혔고, 환가는 뒤를 돌아보며 그대로 쓰러졌다. 정봉이 뒤쫓아가 창으로 그를 찔러 마무리했다. 삼천 명의 오나라 군사는 위나라 진영 안에서 좌우로 휘저으며 거침없이 돌격했다. 호준은 급히 말을 타고 길을 열어 도망쳤다. 위나라 병사들이 일제히 부교 위로 달려갔으나, 이미 부교가 끊어진 상태라 대부분 물에 빠져 죽었고, 눈발 위에서 죽어 나간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수레와 말, 군기들은 모두 오나라 군사의 전리품이 되었다. 동흥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마소, 왕창, 관구검 역시 군사를 거두어 퇴각했다.

한편, 제갈각은 군사를 이끌고 동흥에 이르러 군사들을 격려하고 포상하는 일을 마친 뒤, 장수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사마소의 군대가 패하여 돌아갔으니, 지금이야말로 기세를 몰아 중원을 차지할 적기다." 제갈각은 즉시 사람을 보내 촉한에 서신을 전하며, 강유에게 북쪽을 공격해 오라고 요청했다. 천하를 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면서 말이다. 그러고는 곧바로 20만 대군을 일으켜 중원을 치러 나섰다. 그런데 출정하려던 찰나, 갑자기 땅에서 흰 기운이 솟구쳐 올라 삼군을 가로막는 바람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장연이 말했다. "이 기운은

백흥(흰 무지개)이니, 군사들이 죽을 징조입니다. 태부는 조정으로 돌아가셔야지, 위나라를 치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갈각이 크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네가 어찌 감히 불길한 말을 내뱉어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느냐!" 그는 무사에게 명령하여 장연을 베게 하려 했으나, 사람들이 모두 간청하여 겨우 목숨만 건졌고, 제갈각은 장연을 평민으로 강등시켰다. 그러고는 다시 군사를 재촉하여 전진했다. 정봉이 말했다. "위나라는 신성을 핵심 요충지로 삼고 있으니, 만약 우리가 먼저 이 성을 차지한다면 사마소도 간담이 서늘해질 것입니다." 제갈각은 크게 기뻐하며 곧장 신성까지 군사를 몰아붙였다. 성을 지키던 아문장군 장득은 오나라 군사가 대거 몰려오는 것을 보고 성문을 굳게 닫고 수비에 전념했다. 제갈각은 군사들에게 성을 사방에서 포위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파발마가 낙양에 이 소식을 급히 전했다. 주부 우송이 사마사에게 보고했다. "지금 제갈각이 신성에 갇혀 있으니 아직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오나라 군사는 멀리서 왔기에 인원은 많으나 식량이 부족하니, 식량이 떨어지면 스스로 몰려날 것입니다. 그들이 몰려갈 때를 기다렸다가 공격하면 반드시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촉나라 군사가 국경을 침범할까 두려우니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사마사는 그 말이 옳다고 여겨, 사마소에게 군사를 이끌고 광회를 도와 강유를 막게 했으며, 관구검과 호준에게는 오나라 군사를 저지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제갈각은 몇 달 동안이나 신성을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자, 모든 장수에게 힘을 합쳐 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하며 게으름을 피우는 자는 즉시 처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장수들은 힘을 다해 공격했고, 성의 동북쪽 모퉁이가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때 성

안에 있던 장특이 한 가지 계책을 세우고, 말숨씨가 뛰어난 사람에게 책자를 들려 보내 오나라 진영의 제갈恪을 찾아가게 했다. 그가 제갈恪을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나라의 법에 따르면, 적이 성을 포위했을 때 수비 측 장수가 백일을 굳게 버텼음에도 구원병이 오지 않아 결국 성 밖으로 나가 적에게 항복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장군께서 성을 포위하신 지 이미 구십여 일이 지났으니,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면 저희 주장이 군사와 백성을 모두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항복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자를 먼저 바칩니다."

제갈恪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군마를 거두어들였으니, 결국 성을 공격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장특이 시간을 끄는 계책을 써서 오나라 군대를 속여 물러나게 한 것이었다. 장특은 성 안의 집들을 헐어 성벽이 허물어진 곳을 완벽하게 보수하더니, 성 위에 올라가 크게 소리쳤다. "우리 성에는 아직 반년 치의 식량이 남아 있다! 어찌 오나라 개들에게 항복하겠느냐! 마음껏 싸워보자!" 제갈恪은 크게 노하여 병사들에게 성을 공격하라고 재촉했다. 그러자 성 아래에서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제갈恪은 이마에 화살을 정통으로 맞고 말에서 떨어졌고, 장수들이 그를 구해 진영으로 돌아오자 상처가 덧나고 말았다. 병사들은 모두 싸울 의지를 잃었고, 설상가상으로 날씨까지 무척 더워 군사들 사이에서 병이 돌기 시작했다. 제갈恪의 상처는 조금 나아져 다시 성을 공격하려 했으나, 부하 관리가 달려와 보고했다. "모두가 병에 걸렸는데 어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갈恪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병을 핑계 대는 자는 다시 말하기 전에 베어버리겠다!" 이 말을 들은 병

사들 중 도망치는 자가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때 갑자기 도둑 채림이 자기 부대를 이끌고 위나라로 투항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제갈恪은 깜짝 놀라 직접 말을 타고 각 진영을 살피러 다녔는데, 과연 군사들의 얼굴은 노랗게 부어올라 병색이 완연했다. 이에 그는 군사를 거두어 오나라로 돌아갔다. 한편, 이미 관구검에게 이 사실을 알린 첩자가 있었다. 관구검은 대군을 일으켜 뒤를 쫓아 몰아쳤고, 오나라 군대는 대패하여 돌아왔다. 제갈恪은 몹시 부끄러워하며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오나라 황제 손량은 직접 그의 집을 찾아가 안부를 물었고, 문무 백관들도 모두 찾아와 문안을 올렸다. 제갈恪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까 두려워, 먼저 관리와 장수들의 허물을 찾아내어 가벼운 죄는 변방으로 쫓아버리고, 무거운 죄는 참수하여 본보기를 보였다. 이로 인해 안팎의 관리와 장수들은 모두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또한 그는 심복 장수인 장약과 주은에게 어림군을 맡겨 자신의 앞잡이로 삼았다.

한편, 손준의 자는 자원이며, 손건의 동생인 손정의 증손이자 손공의 아들이다. 손권이 살아있을 적에 그를 매우 아껴 어림군(금군)을 통솔하게 했는데, 이번에 제갈각이 장약과 주은 두 사람에게 어림군을 맡겨 그 권한을 빼앗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속으로 크게 분노했다. 태상경 등윤은 평소 제갈각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기회를 틈타 손준에게 말했다. "제갈각이 권력을 독점하고 제멋대로 굴며 공경들을 살해하니, 장차 황제를 위협할 불충한 마음을 품을 것 같습니다. 그대는 종실의 일원이니 어찌 일찍 대책을 세우지 않으십니까?" 손준이 대답했다. "저도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천자에게 상소를 올려 그를 처단하라는 명을 청하겠습니다." 이에 손준과 등윤은 오나라의 주인인 손량에게 나아가 이 일을 비밀리에 고했다. 손

량이 말했다. "짐도 저 자를 볼 때마다 매우 두려웠소. 늘 제거하고 싶었으나 마땅한 기회를 잡지 못했소. 이제 그대들이 참으로 충성스럽고 의로운 마음을 가졌다면, 비밀리에 계획을 세워보시오." 등윤이 제안했다. "폐하께서는 연회를 베풀어 제갈각을 불러들이신 뒤, 벽 뒤에 무사들을 몰래 숨겨 두십시오. 술잔을 던지는 것을 신호로 삼아 연회석상에서 그를 죽여 후환을 없애야 합니다." 손량은 그 방책을 따르기로 했다.

한편, 제갈恪는 군사에서 패해 조정으로 돌아온 뒤, 병을 핑계로 집에 머물며 마음을 잡지 못하고 낮이 나간 상태였다. 어느 날 그가 우연히 대청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삼베옷을 입고 상복을 차려입은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제갈恪이 꾸짖으며 누구냐고 묻자, 그 사람은 크게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제갈恪이 그를 붙잡아 고문하자, 그 사람이 말했다. "저는 아버지를 여의고 스님을 모셔와 추모를 부탁하러 성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절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뜻밖에 태부의 저택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쩌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제갈恪은 화가 나 문을 지키던 군사들을 불러 물었다. 군사들이 대답했다. "저희 수십 명이 모두 창을 들고 문을 지키고 있었으며, 잠시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갈恪은 크게 분노하여 군사들을 모조리 참수해 버렸다.

그날 밤, 제갈恪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갑자기 대청에서 벼락이 치는 듯한 굉음을 들었다. 제갈恪이 밖으로 나가 살펴보니, 대들보가 두 동강 나 있었다. 겁에 질린 제갈恪이 침실로 돌아가는데, 갑

자기 음산한 바람이 불어닥치더니 자신이 죽인 상복 입은 사람과 수십 명의 군사들이 각각 제 머리를 들고 나타나 목숨을 내놓으라며 달려들었다. 제갈恪은 너무 놀라 땅에 쓰러졌고,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다음 날 아침, 세수를 하려는데 물에서 지독한 피비린내가 났다. 제갈恪이 시녀들에게 호통을 쳐 수십 대야를 연달아 갈아치웠으나, 모두 똑같이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제갈恪이 의구심에 휩싸여 있을 때, 갑자기 황제의 사자가 도착하여 태부를 연회에 초대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제갈恪은 수레와 행렬을 준비하게 하고 막 집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누령이 한 마리가 나타나 옷자락을 물고 킁킁거리며 마치 우는 듯한 소리를 냈다. 제갈恪이 화가 나서 "이 개가 나를 놀리는 것이냐?"라고 외치며 좌우의 부하들에게 개를 쫓아버리라고 호통을 친 뒤, 수레를 타고 집을 나섰다.

수레를 타고 몇 걸음 가지 않았을 때, 수레 앞에서 하얀 무지개 같은 빛줄기가 땅에서 솟구쳐 올라 마치 하얀 비단이 하늘로 치솟는 듯한 광경이 펼쳐졌다. 제갈恪은 이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여겼다. 이때 심복 장수인 장약이 수레 앞으로 다가와 은밀히 고했다. "오늘 궁중에서 연회를 연다고 하는데, 그것이 좋은 자리인지 나쁜 자리인지 알 수 없으니 주공께서는 가볍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제갈恪은 그 말을 듣고 수레를 돌리게 했다.

그러나 수레가 열 걸음도 채 가지 못했을 때, 손준과 등윤이 말을 타고 수레 앞으로 달려와 말했다. "태부님, 어찌하여 이리 급히 돌아가려 하십니까?" 제갈恪이 "갑자기 배가 아파 황제를 뵈 수가 없네"라고 대답하자, 등윤이 말했다. "조정에서 태부님의 군사들이 돌아온 것을 기

넘하여, 직접 뵙고 큰일을 논의하고자 특별히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태부님께서 비록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부디 힘을 내어 함께 가셔야 합니다." 제갈恪은 그 권유를 받아들여 손준, 등윤과 함께 궁으로 들어갔다. 장약 또한 뒤따라 들어갔다.

제갈恪은 오나라 황제 손량을 보고 예를 갖춘 뒤 자리에 앉았다. 손량이 술을 올리라고 명하자 제갈恪은 마음속으로 의심이 생겨 "병든 몸이라 술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손준이 "태부님의 집에는 항상 드시는 약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져와 마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제갈恪이 "그렇게 하라"고 대답하자, 곧바로 부하를 시켜 집으로 돌아가 직접 만든 약술을 가져오게 했다. 제갈恪은 그제야 안심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이 몇 차례나 돌았을 무렵, 오나라 황제 손량이 먼저 일을 꾸며 일어났다. 손준이 전각 아래로 내려가 긴 겹옷을 벗어 던지고 짧은 옷으로 갈아입은 뒤, 안에는 갑옷을 입고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든 채 전각 위로 올라가 크게 외쳤다.

“천자께서 역적을 처단하라는 조서를 내리셨다!”

제갈恪은 크게 놀라 술잔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검을 뽑아 맞서려 했으나, 이미 머리가 땅에 떨어지고 없었다. 장약은 손준이 제갈恪을 베는 것을 보고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손준은 급히 칼끝을 피하다가 왼쪽 손가락을 다쳤으나, 몸을 돌려 휘두른 칼로 장약의 오른쪽 팔을 베었다. 무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장약을 덮치더니, 그를 베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짓이겨 버렸다. 손준은 무사들에게 제갈恪의

가족들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하는 한편, 장약과 제갈恪의 시신을 갈대 멍석에 말아 작은 수레에 실어 성 남문 밖 석자강의 무덤가에 내버리게 했다.

한편, 제갈恪의 아내는 방 안에서 정신이 혼미해진 채 안절부절못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 계집종이 방으로 들어오자, 제갈恪의 아내가 물었다. "네 몸에서 어찌 이리 피비린내가 진동하느냐?" 그러자 그 종이 갑자기 눈을 부라리며 이를 갈더니, 몸을 날려 뛰어오르며 머리로 대들보를 들이받으며 크게 외쳤다. "내가 바로 제갈恪이다! 간악한 도적 손준에게 살해당하고 말았구나!" 제갈恪의 온 가족과 노소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통곡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마가 도착해 저택을 포위하더니, 제갈恪의 가족과 노소를 모두 결박하여 시장터로 끌고 가 참수했다. 때는 오나라 건흥 2년 겨울 10월이었다.

예전에 제갈근이 살아있을 때, 제갈恪이 영리함을 겉으로 너무 드러내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말했다. "이 아이는 집안을 보필할 인물이 아니다!" 또한 위나라의 광록대부 장집이 사마사에게 말하기를, "제갈恪은 머지않아 죽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사마사가 그 이유를 묻자 장집이 대답했다. "주군을 위협할 정도로 기세가 드높으니, 어찌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현실이 되어 결국 예언이 적중하고 말았다.

한편, 손준이 제갈恪을 죽이자 오나라 황제 손량은 손준을 승상 대장군 부춘후에 봉하고, 안팎의 모든 군사를 총괄하게 했다. 이로써 모든 권력은 손준의 손에 완전히 넘어갔다.

한편, 강유는 성도에서 제갈恪이 보낸 서신을 받았다. 위나라를 치는 데 도움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강유는 조정에 나아가 후주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낸 뒤, 다시 대군을 일으켜 중원을 향해 북벌을 시작했다.

말하자면, 한 번 군사를 일으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두 번이나 적을 치며 성공을 바라노라. 승패가 어떻게 될지는, 다음 이야기에 서 이어진다.